2026년도 국가유산위원회

제1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6. 6. 18.(목) 13:30~17:00

▣ 장　소 : 대전 인터시티 호텔

▣ 출석위원: 송석기(위원장), 국성하, 김영민, 김종헌, 서동천, 서영희, 심경미, 이상희, 이혜은, 정운 스님, 정인하, 조남철, 조은정(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이하 자료와 같음

국 가 유 산 위 원 회

□ 고지사항

1.「국가유산위원회 규정」제11조에 따라,

ㅇ 위원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국가유산위원회 규정」제12조 제6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국가유산위원회 규정」제10조 및「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12조에 따라 회의 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제1차 회의 안건 목록

【주요심의사항】		
1	사적「서울 구 서대문형무소」현상변경 허가(여옥사 전시환경 개편)	(공 개)
2	사적「만해 한용운 심우장」주변 성북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 개)
3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공 개)
4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등 6개소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	(공 개)
【일반심의사항】		
5	국가등록문화유산「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종합정비계획	(공 개)
6	「안동의소파록」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심의	(공 개)
7	「대동사」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심의	(공 개)
8	「임실 박경수 고택」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심의	(공 개)
【보고사항】		
9	사적「서울 구 서대문형무소」현상변경 허가 처리 보고 (10옥사 공동기획전 운영)	(공 개)
10	국가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공 개)

주요심의사항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1

1. 사적「서울 구 서대문형무소」현상변경 허가(여옥사 전시환경 개편)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지정구역 내 위치한 여옥사 상설전시 개편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지정구역 내 위치한 여옥사 상설전시 개편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 대상문화유산명 : 사적「서울 구 서대문형무소」('88.02.27. 지정)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 문화유산지정구역 내 여옥사 (1동, 79.8㎡ / 2012.01.27. 복원)

○ 신청내용 : 여옥사 상설전시 개편

- 여옥사 복원 당시 조성된 기존 노후 전시물을 다양한 시각적 매체를 활용하여 복도 및 감방(8개실) 대상 전시 환경 개편

· (복도) 천장, 좌우 상단벽면 메쉬 LED 설치

· (감방) 가벽체(전시 구조물) 설치 8개 호실, 자립형 거치대(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배치) 설치, 그래픽 패널 설치

· 외부 빛 차단을 위한 비고정형 차광막(목재ㆍ부착식 시트지) 설치

· 서버함체 설치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6.06.11.) : 국가유산위원 OOO, 국가유산전문위원 OOO

○ 여옥사의 물리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홀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작은 공간에 많은 홀로그램이 설치되어 전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 ○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었던 8호 감방의 경우는 그 공간의 특성을 잘 보여주도록 함. 그리고 1호 감방의 유리 바닥은 지하실과의 물리적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 ○ 창호와 천장을 가급적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홀로그램을 설치하고, 복도에 설치하는 메쉬 LED를 통해 구현되는 콘텐츠로 인하여 천장 구조물이 (상시) 가려지지 않도록 전시 프로그램 상영시간 조정을 고려할 것.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여옥사의 물리적 환경에 맞도록 전시 구성 등 조정

- 소위원회 구성(3명)하여 추진

· 소위원회 위원: OOO, OOO, OOO

○ 출석위원 13명 / 조건부 가결 12명 / 제척 1명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2

2. 사적「만해 한용운 심우장」주변 성북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만해 한용운 심우장」주변에 성북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만해 한용운 심우장」주변 성북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내용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적 「한양도성」현상변경 허가 신청(역사유적정책과/ 2026. 5. 27.접수)

- 신청지는 「한양도성」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만해 한용운 심우장」, 「창덕궁」, 「서울 백악산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

○ 추진경과

- '22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01.25.) : **조건부 가결**
  · 제출한 계획대로 추진하되, 세부계획안 확정 후 문화재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함(공원조성, 도로확장, 가스배관 매설 등 인프라 구축 세부계획, 공동정비구역 절토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암반 진동으로 인한 문화재 영향 포함)
- 허가기간 연장 : 2022.03.06.~2029.05.31.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

(2) 대상문화유산명 : 사적「만해 한용운 심우장」('19.04.08. 지정)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OO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OOO 일대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2-1구역(평지붕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이하)
2-2구역(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6m이하)

○ 신청내용 : 심우장 주변 성북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기 허가 받은 정비계획에서 개별정비지구 해제 후 공동정비구역으로 단일 획지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건축규모 및 기반시설 정비계획 변경

[전체 사업 개요]
· 총 대지면적/실사용면적(획지): 74,187.1㎡ / 61,939.1㎡
· 총 건축면적/연면적 : 19,890.02㎡ / 84,132.3882㎡
· 건폐율/용적률 : 32.11% / 84.02%
· 구조/지붕형태 : 철근콘크리트 / 평지붕
· 건축 규모 : 지하 2층, 지상 1층 ~ 지상 4층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계획 (심의대상 구역)
· [1구역] 역사공원 조성 : 제1종전용주거지역(기존 건축물 존치)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조성 면적 확대
· [1구역, 2-1구역] 도로신설 : 심우장 동측 공공보행통로 폭 6m
· 공동주택 등 건축 계획

구분	정비계획/규모	실사용면적	건축물 최고높이/장변/이격거리
1구역	기반시설(역사공원)	(기허가) 2,797.6㎡ (금차) 5,096㎡	해당 없음/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0m
2-1구역	(기허가) 개별정비지구 (금차) 공동정비지구/3개동; 106, 110, 112 일부세대	19,660.62㎡ *단일획지	(기허가) 기존규모(허용기준內) (금차) 15.9m/45.43m~49.39m/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40.5m
2-2구역	(기허가·금차) 공동정비지구/7개동; 11·112·118·122 일부세대, 114, 115, 119		(기허가) 14.919m (금차) 15.9m/ 45.7m~49.39m/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2.1m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6.06.08.) : 국가유산위원 OOO, OOO, 전문위원 OOO

○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 건으로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1구역 내 사업구역은 고시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높이 등)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2구역 내 사업계획은 기허가('22.03)된 범위(높이 등)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공공보행통로는 기존 옛 골목길 선형 등의 흔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와 걸맞게 통로 폭도 조정(축소)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범위와 함께, 구체적인 시설 및 조경계획(안)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심우장 전면과 배면에 설치 예정인 옹벽에 대해서는 재료, 공법 등의 세부 계획(안)이 필요해 보임.
- 이밖에 기허가 된 2-2구역(기존 대비 절토량 증가)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대상지 내의 절, 성토량이 적지 않아 지형 변화의 폭이 클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 허가된 사업이 허가될 당시 전제된 조건사항은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허용기준 감안하여 건물 높이 조정

- 공공보행통로 재검토(폭, 선형 등)

- 불필요한 절·성토 사항 조정하여 원지형을 최대한 살릴 것

○ 출석위원 13명 / 보류 13명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3

3.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 제안사항

(재)천리포수목원 소재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2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등록 검토('25.2.25.)를 거쳐 등록 예고한 (재)천리포수목원 소재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등록 검토 시 「태안 천리포수목원 민병갈 가옥 및 기록물」의 명칭을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로 부여하도록 검토하였음

○ 기록물('25.9.18.) 등록대상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 기록물 재조사 추진하여 변경 기록물 세부 수량 확인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OOOOOO

(2)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	규격(㎝)	제작 연대	소유자	소재지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	7건 56점	18.5×13 등	1962년 ~ 1989년	OOOOOO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OO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4) 추진경과

○ ('24. 3. 5.)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충청남도 → 국가유산청)

○ ('24. 6.19.)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현장 조사

* 보완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 회신('24.10.15.)

○ ('24.11.13.)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보완 조사

○ ('25. 2. 5.)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추가 조사

○ ('25. 2.25.) 제2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검토

- (명칭)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
- 기타조건: 수목원과 관련된 물리적인 공간은 관련 자료 등을 조사보완 후 가치판단 등을 재검토

○ ('25. 9.18.)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대상 변경 요청(태안군→국가유산청)

○ ('25. 9.23.) 제9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 **'보류'**

- '25. 9. 18. 접수된 등록 대상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 기록물에 대해 재조사 추진

○ ('26. 3.4.~3.5.)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 재조사

* 식물관리기록 일지 8,000장 누락. 당초 등록 신청 시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1장의 앞뒤에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를 각 1장(총 2장)으로 셈. 재조사 시 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량 차이 발생 원인을 확인함

○ ('25.3.18.~'25.4.17./ 30일간) 등록 예고

- (이의제기 / '25.3.29) 천리포수목원은 토종 식물 종자들을 밀반출한 곳('97년 KBS 일요스페셜에서 방송)이므로 등록 절차 철회 요청
- (의견서 / '25.4.17)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시기인 1946년도 서신 제외 요청

○ ('26. 3.24.) 제2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검토 **'원안 가결'**

(5) 등록예고

○ '26.4.9.~'26.5.11.(32일간) ***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1, 2> 참조

○ 보완조사 종합 의견('26.3.5.~6. / OOO, OOO)

- 제9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에서 '보류' 된 건에 대하여 26년 3월 5~6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 당시 '2종 각1식'으로 표기된 기록물을 재검토하여 7건 56점으로 파악함

○ 문화유산위원 OOO('24.6.19.)

- 토지매입, 수목원 업무일지, 식물 채집, 해외 학회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교류에 대한 기록, 수목원의 기록 사진, 한국 답사 사진 및 개인 서신 등 대상 기록물은 천리포 수목원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 다만, 신청번호 2-1 수목원 조성 사진 및 슬라이드, 2-2 식물채집 사진은 참고용 자료로 판단하며 3-2 국내 문화유적지 답사 사진 및 슬라이드, 3-3 개인사 사진은 수목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부족한 면이 있어 등록대상에서는 제외함

○ 문화유산전문위원 OOO('24.6.19.)

- 신청자료는 천리포수목원의 설립부터 1979년까지의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있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수목원의 역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해외식물의 국내도입뿐만 아니라 식물의 기록체계 수립 과정과 관련된 기록의 변천도 파악할 수 있음. 토지매입증서(1-1), 업무일지(1-2), 식물채집·번식 및 관리(1-3), 해외교류(1-4)는 등록문화유산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사진(수목원 조성(2-1), 식물채집(2-2), 국내문화유적 답사(3-2)), 개인사 서신(3-1)은 천리포 수목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서신(3-1)의 경우 서신(2)·서신(3)·서신(6)은 민병갈 가옥과 관련된 자료로 민병갈 가옥 등록심사와 연계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전문위원 OOO('24.6.19.)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사립) 수목원 시설로서 당시 수목원이 조성되는 일련의 과정과 상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 또한, 이들 역사적 기록을 통해 물리적 흔적(공간)들이 현재까지도 확인된다는 측면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있음
- 특히, 이곳 수목을 통해 다양한 외래 수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역사적 기록물로써 뿐만 아니라 조경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임
- 다만, 역사적 기록물을 반증하는 물리적 흔적으로 가옥(한옥)에 대한 건축적 내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발굴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와 함께 초기에 조성된 정원(즉, 밀러가든) 일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등록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연유산위원 OOO('25.2.11.) (서면검토)

-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의 역사는 곧바로 우리나라 수목원의 역사로,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설립자인 민병갈 박사가 젊었을 때부터의 습관인 편지와 사진자료 등 기록을 남기는 성격은 기록 중심의 천리포수목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수목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음.
-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아 식물도입을 포함한 수목원 관리에 기록을 남기는 일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중요한 업무로, 수목원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임.
- 천리포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초기부터 업무/수목관리 일지를 포함한 각종

자료와 자체적인 간이 기상관측 시설의 설치로 기상 상황을 매일 수집, 기록, 분석해 왔으며, 이는 지역의 기상현상의 이해와 천리포수목원 내의 미기후를 이해하고 수목의 관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

- 천리포수목원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해송집과 그 주변의 토지는 천리포수목원의 시작과 발전에 발원지로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매우 높음.
- 1970년에 건축한 목조 한옥인 “해송집”은 건평 94.3㎡, 대지면적 402㎡로, 점차 사라져 가는 한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해 왔으며, 천리포수목원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건물임.
- 천리포수목원의 특징은 노단식 화계처럼 원 지형과 수목원 조성 전 토지 이용의 형태를 큰 훼손 없이 보전하여 조성한 점, 초기 밀러가든의 식재 수목이 현재도 자라고 있는 점, 아울러 당시로는 초현대적인 24시간 난방 시설을 한 유리온실(철거됨)과 관수시설을 설치한 점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함.
- 따라서 민병갈 가옥 “해송집”과 초기 수목원의 밀러가든의 토지부분도 기록물과 연계하여 추가 조사를 통하여 등록문화유산으로 추가 등재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ㅇ 출석위원 13명 / 원안 가결 13명

<붙임 1>

국가등록문화유산 재조사
의견서

조사일자	2026.3.5.~3.6	대상문화유산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관련 기록물	
종 별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재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향리	
조사자	소속	문화유산위원	성명	
		문화유산전문위원		

1. 조사 배경 및 목적

조사대상 자료인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은 2025년 2월 25일 제2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결과 수목원과 관련된 물리적인 공간은 관련 자료 등을 조사보완 후 가치판단 등을 재검토 사유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2025년 9월 18일 등록대상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2025년 9월 23일 제9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에서 '보류' 된 바 있음. 이에 2026년 3월 5-6일 재조사를 실시함

2. 조사 결과

신청 당시 '2종 각1식'으로 표기된 기록물을 재검토하여 **7건 56점 13,115장의** 형식으로 파악함

붙임 : 조사목록 1부. 끝.

2026년 3월 9일

제출자

○ 변경 수량 내역

-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변경 신청) * '25. 9.23. 제9차 위원회	수량(최종)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	2종 각 1식	**7건 56점**

- 대상문화유산 수량 내역

(변경 신청) 수량 내역('25. 9.23. 제9차 위원회)	(최종) 수량 내역
○ (1-1) 토지매입증서 (1건 2점 4장) ○ (1-2) 업무일지 (1건 19점 2,675장) ○ (1-3) 식물 채집 기록 (1건 4점 312장) - 식물 번식 기록 (1건 9점 1,116장) - 식물 관리 기록 (1건 6점 976장) ○ (1-4) 해외 교류 기록 (1건 8점 638장) ○ (3-1) 개인 서신 (1건 8점 56장)	○ (1-1) 토지매입증서 (1건 2점 4장) ○ (1-2) 업무일지 (1건 19점 2,675장) **○ (1-3) 식물 관련 기록(3건 19점 9,742장)** - 식물 채집 기록 (1건 4점 312장) - 식물 번식 기록 (1건 9점 1,116장) - 식물 관리 기록 **(1건 6점 8,314장)** ○ (1-4) 해외 교류 기록 (1건 8점 638장) ○ (3-1) 개인 서신 (1건 8점 56장)
2종 각 1식 (7건 56점(5,777장))	7건 56점**(13,115장)**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 수량 변경 내역

○ (1-1) 토지매입증서 (1건 2점 4장)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토지 매입 증서	1962	2	4	- 수목원 조성을 위한 9,000㎡(2,727평)의 필지 구입	토지 매입 증서	1962	1	2	4	- 수목원 조성을 위한 9,000㎡(2,727평)의 필지 구입
소계		2	4		소계		1	2	4	

○ (1-2) 업무일지 (1건 19점 2,675장)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업무일지 1	1970~73	1	84	- 최초 식물기록, 식재 (1.후박나무, 2.참식나무, 3.동백나무) (p.1~p.4) - 해외식물도입 제반 서류 (견적서와 송장-학명표기, 등록번호, 크기와 가격, 수량 등 표기) (p.5~p.17) - 해외 식물도입 검역 신고서와 국내 수목 시장 (충북 청원, 청주 일대)과 거래 내역서 (p.18~p.33) - (민병갈 작업분) 식재계획도: 재식수목 위치와 수량, 방위표, 학명, 주변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식재도면 제작 (p.35~p.59) - (민병갈 작업분) 수목 수량 확인서 및 배분 내역(한글표기) (p.60~p.87)	업무일지 1	1970~73	1	1	84	- 최초 식물기록, 식재 (1.후박나무, 2.참식나무, 3.동백나무) (p.1~p.4) - 해외식물도입 제반 서류 (견적서와 송장-학명표기, 등록번호, 크기와 가격, 수량 등 표기) (p.5~p.17) - 해외 식물도입 검역 신고서와 국내 수목 시장 (충북 청원, 청주 일대)과 거래 내역서 (p.18~p.33) - (민병갈 작업분) 식재계획도: 재식수목 위치와 수량, 방위표, 학명, 주변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식재도면 제작 (p.35~p.59) - (민병갈 작업분) 수목 수량 확인서 및 배분 내역(한글표기) (p.60~p.87)
업무일지 2	1974	1	152	- 1974년 4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식물 종자 리스트와 온실 내 파종 위치 도면 (일지번호 74-1) - 종자 및 구근 입하목록 (유목 포함) (일지번호 74-68) - (민병갈 작업분) 구근을 식재한 식재 도면 (일지번호 74-103) - (민병갈 작업분) 묘포장과 파종 위치를 표기한 식재 도면 (일지번호 74-121)	업무일지 2	1974		1	152	- 1974년 4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식물 종자 리스트와 온실 내 파종 위치 도면 (일지번호 74-1) - 종자 및 구근 입하목록 (유목 포함) (일지번호 74-68) - (민병갈 작업분) 구근을 식재한 식재 도면 (일지번호 74-103) - (민병갈 작업분) 묘포장과 파종 위치를 표기한 식재 도면 (일지번호 74-121)
업무일지 3	1975	2	298	- 기상 체크 시작, 기상 개황도의 출현	업무일지 3	1975		2	298	- 기상 체크 시작, 기상 개황도의 출현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천기 일수, 최고, 최저, 평균기온, 강우, 강설량, 습도와 바람-지진 발생 시간과 강도, 마지막 눈과 첫눈 표기 (일지번호 75-278) - 일자별 도입 식물 리스트와 식재 위치도 (일지번호 75-141) - 식물 이름의 국명과 학명 표기 (일지번호 75-143) - 식물 삽목묘의 국내 출처와 지명, 채취 수량 표기, 묘포장의 마스터플랜 (일지번호 75-170) - 온실의 삽목묘 위치도와 국내 채취한 장소와 수량 표기 (일지번호 75-170) - 천리포수목원 업무일지의 형식완료, 날짜, 기상상황, 주요업무, 방문자, 비고란을 두어 형식에 맞춤 (일지번호 75-140)						(천기 일수, 최고, 최저, 평균기온, 강우, 강설량, 습도와 바람-지진 발생 시간과 강도, 마지막 눈과 첫눈 표기 (일지번호 75-278) - 일자별 도입 식물 리스트와 식재 위치도 (일지번호 75-141) - 식물 이름의 국명과 학명 표기 (일지번호 75-143) - 식물 삽목묘의 국내 출처와 지명, 채취 수량 표기, 묘포장의 마스터플랜 (일지번호 75-170) - 온실의 삽목묘 위치도와 국내 채취한 장소와 수량 표기 (일지번호 75-170) - 천리포수목원 업무일지의 형식완료, 날짜, 기상상황, 주요업무, 방문자, 비고란을 두어 형식에 맞춤 (일지번호 75-140)
업무일지 4	1976	3	433	- 연도별 기상 개황 (일지번호 76-4) - 완도호랑가시 발견 과정 (남평 임업시험장, 목포 선교사집 등지에서 호랑가시 채종) (일지번호 76-40) - 방풍벽 설치와 씨앗 매장법등 식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환경 조성 (일지번호 76-42) - 식물 비료용 해초 운반과 솔잎 활용을 위한 솔가지 채취 (일지번호 76-133) - 수목 기증활동 (소원면 관내 교육기관과 관공서) (일지번호 76-154)	업무일지 4	1976		3	433	- 연도별 기상 개황 (일지번호 76-4) - 완도호랑가시 발견 과정 (남평 임업시험장, 목포 선교사집 등지에서 호랑가시 채종) (일지번호 76-40) - 방풍벽 설치와 씨앗 매장법등 식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환경 조성 (일지번호 76-42) - 식물 비료용 해초 운반과 솔잎 활용을 위한 솔가지 채취 (일지번호 76-133) - 수목 기증활동 (소원면 관내 교육기관과 관공서) (일지번호 76-154)
업무일지 5	1977	4	468	- 보유 수종 리스트 제작 (일지번호 77-15) - 무관수밀폐법과 송충이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 (일지번호 77-17) - WeakBed를 설치하여 우리 환경에 취약한 식물을 별도 관리 (일지번호 77-73) - 모래땅 위에 2차 소나무 방풍림 설치 (일지번호 77-82) - 절부암과 인천 등지의 해안가에서 호랑가시 특이종 발견 후 명명 (일지번호 77-232) - 남해안 여행길 등 호랑가시 신품종 탐사를 위한 채집여행 (일지번호 77-844)	업무일지 5	1977		4	468	- 보유 수종 리스트 제작 (일지번호 77-15) - 무관수밀폐법과 송충이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 (일지번호 77-17) - WeakBed를 설치하여 우리 환경에 취약한 식물을 별도 관리 (일지번호 77-73) - 모래땅 위에 2차 소나무 방풍림 설치 (일지번호 77-82) - 절부암과 인천 등지의 해안가에서 호랑가시 특이종 발견 후 명명 (일지번호 77-232) - 남해안 여행길 등 호랑가시 신품종 탐사를 위한 채집여행 (일지번호 77-844)
업무일지 6	1978	4	554	- 장항-군산-함열-전주 임업시험장-변산반도 등 호랑가시를 찾기 위한 여정 (일지번호 78-5)	업무일지 6	1978		4	554	- 장항-군산-함열-전주 임업시험장-변산반도 등 호랑가시를 찾기 위한 여정 (일지번호 78-5)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 광주-순천농전-광양임업시험장과 지역의 식물 전문가 회합 (일지번호 78-11) - 미국워싱턴대학교와 Index Seminum 시작 (일지번호 78-78) - 번식일지(Cutting List, 파종리스트)에 대한 리스트 정리 (일지번호 78-105) - HSA(미국호랑가시학회), MSI(국제목련학회), RHS(왕립원예학회)와의 교류 본격화 (일지번호 78-816) - 식물 기록카드 작성 본격화 (일지번호 78-989),						- 광주-순천농전-광양임업시험장과 지역의 식물 전문가 회합 (일지번호 78-11) - 미국워싱턴대학교와 Index Seminum 시작 (일지번호 78-78) - 번식일지(Cutting List, 파종리스트)에 대한 리스트 정리 (일지번호 78-105) - HSA(미국호랑가시학회), MSI(국제목련학회), RHS(왕립원예학회)와의 교류 본격화 (일지번호 78-816) - 식물 기록카드 작성 본격화 (일지번호 78-989),
업무일지 7	1979	4	686	- 식물분류학회 참석 (일지번호 79-544) - 민병갈 가옥 지붕수리 (일지번호 79-765) - 민병갈 가옥 응접실 수리 (일지번호 79-911) * 수목원 재단법인 설립 (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산정과 식물리스트 작성) * 18만평의 토지확보로 외연확장 * 민병갈 한국 귀화	업무일지 7	1979		4	686	- 식물분류학회 참석 (일지번호 79-544) - 민병갈 가옥 지붕수리 (일지번호 79-765) - 민병갈 가옥 응접실 수리 (일지번호 79-911) * 수목원 재단법인 설립 (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산정과 식물리스트 작성) * 18만평의 토지확보로 외연확장 * 민병갈 한국 귀화
소계		19	2,675		소계		1	19	2,675	

○ (1-3) 식물 관련 기록(3건 19점 9,742장)

- 식물채집 기록 (1건 4점 312장)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No.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1	식물 채집 1	1975-76	1	51	- 1975.12.31.~1976.1.5. / 1976.1.23. 총 2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제주도, 완도, 강진 등 - 채집 식물 : 분꽃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붓순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 민병갈 작성(친필)	1	식물 채집 1	1975-76	1	1	51	- 1975.12.31.~1976.1.5. / 1976.1.23. 총 2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제주도, 완도, 강진 등 - 채집 식물 : 분꽃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붓순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 민병갈 작성(친필)
	식물 채집 2	1976-77	1	196	- 국내외 식물채집과 도입리스트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일본 등		식물 채집 2	1976-77		1	196	- 국내외 식물채집과 도입리스트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일본 등

					- 채집 식물 : 참나무, 으름덩굴 등							- 채집 식물 : 참나무, 으름덩굴 등
	식물 채집 3	1976	1	42	- 1976.7.30.~1976.8.3. / 1976.8.12. / 1976.8.24. 총 3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전남, 제주도, 일본 등 - 채집 식물 : 은행나무, 호장근, 곰취 등 - 특이사항 : HSA에 미등록된 호랑가시나무 발견 * 민병갈 작성(친필)		식물 채집 3	1976		1	42	- 1976.7.30.~1976.8.3. / 1976.8.12. / 1976.8.24. 총 3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전남, 제주도, 일본 등 - 채집 식물 : 은행나무, 호장근, 곰취 등 - 특이사항 : HSA에 미등록된 호랑가시나무 발견 * 민병갈 작성(친필)
	식물 채집 4	1976-77	1	23	- 1977.1.26. / 1977.10.30.-11.20 총 2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제주도, 미국 등 - 채집 식물 : 감탕나무속 식물 등 * 민병갈 작성(친필)		식물 채집 4	1976-77		1	23	- 1977.1.26. / 1977.10.30.-11.20 총 2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제주도, 미국 등 - 채집 식물 : 감탕나무속 식물 등 * 민병갈 작성(친필)
	소계		4	312			소계		1	4	312	

- 식물 번식 기록 (1건 9점 1,116장)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No.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2	파종 1	1975-77	1	98	- 토양 성분 배합 실험 실시 - 밀폐무관수기법 실험 - 초기 수목원 조성 적합한 수종 선택 위한 토양 개량법 실험	2	파종 1	1975-77	1	1	98	- 토양 성분 배합 실험 실시 - 밀폐무관수기법 실험 - 초기 수목원 조성 적합한 수종 선택 위한 토양 개량법 실험
	파종 2	1975-77	1	186	-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채집된 호랑가시 종자 야장 (천리포식물원 식물 조사 카드 뒷면에 기록) - 묘포장 파종 위치 표기 - 완도호랑가시 품종 등록을 위한 채집 여행에서 채집된 종자 - 1976년 제주도와 기타 지역, 임업 시험장에서 보내 온 종자 파종 - 1977년 민병갈이 해외 (뉴질랜드 등)에서 들여 온 종자 파종		파종 2	1975-77		1	186	-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채집된 호랑가시 종자 야장 (천리포식물원 식물 조사 카드 뒷면에 기록) - 묘포장 파종 위치 표기 - 완도호랑가시 품종 등록을 위한 채집 여행에서 채집된 종자 - 1976년 제주도와 기타 지역, 임업 시험장에서 보내 온 종자 파종 - 1977년 민병갈이 해외 (뉴질랜드 등)에서 들여 온 종자 파종
	파종 3	1977~80	2	138	- 파종기록야장 - N : 지금, 온 : 온실, S : 모래 등 약어로 현재 식물 위치 표기 O : 현재 전부 파종, ✓ : 싹앗 부패, △ : 싹앗 교환 (오류) * 위와 같은 기호로 현재 식물 상태 표기		파종 3	1977~80		2	138	- 파종기록야장 - N : 지금, 온 : 온실, S : 모래 등 약어로 현재 식물 위치 표기 O : 현재 전부 파종, ✓ : 싹앗 부패, △ : 싹앗 교환 (오류) * 위와 같은 기호로 현재 식물 상태 표기
	파종 4	1979	1	147	- 1979년 온실 내 파종 현황 (국내 : 8온실 앞 씨앗밭, 3온실 이끼파종, 국외 : 중국 중산식물원)		파종 4	1979		1	147	- 1979년 온실 내 파종 현황 (국내 : 8온실 앞 씨앗밭, 3온실 이끼파종, 국외 : 중국 중산식물원)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No.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 백엽상 및 묘포장의 파종 현황 야장							- 백엽상 및 묘포장의 파종 현황 야장
	삽목 1	1978-79	1	80	- 미등록 호랑가시종의 발견 및 등록을 위한 삽수 채집 여행 - 완도호랑가시 자생지인 호남 지방 여정 - 호랑가시 자생지에서 채취한 삽수의 채집 장소와 리스트 야장		삽목 1	1978-79		1	80	- 미등록 호랑가시종의 발견 및 등록을 위한 삽수 채집 여행 - 완도호랑가시 자생지인 호남 지방 여정 - 호랑가시 자생지에서 채취한 삽수의 채집 장소와 리스트 야장
	삽목 2	1979	1	28	- 1975년 천리포에서 채취한 바늘잎식물(구과) 삽목 야장 - 변산반도, 한국합판 등 호남 지방에서 채취한 호랑가시나무 삽수 삽목 (1978-79년 이면지 사용)		삽목 2	1979		1	28	- 1975년 천리포에서 채취한 바늘잎식물(구과) 삽목 야장 - 변산반도, 한국합판 등 호남 지방에서 채취한 호랑가시나무 삽수 삽목 (1978-79년 이면지 사용)
	삽목 3	1979	1	382	- 울릉도 여행길에 채집한 삽수 야장 - 식생대별 식물 생육 환경 조사 - 천리포수목원 각 지역별 자연환경적 특성 기록 (공책묶음으로 1979-1991년까지 기록의 총합)		삽목 3	1979		1	382	- 울릉도 여행길에 채집한 삽수 야장 - 식생대별 식물 생육 환경 조사 - 천리포수목원 각 지역별 자연환경적 특성 기록 (공책묶음으로 1979-1991년까지 기록의 총합)
	삽목 4	1980	1	57	- 호랑가시 삽목 야장 - 학명, 일련번호, 도입사, 성, 수량, 규격, 식재 장소 표기 - 4온실 8번 베드(Bed)까지 삽목 리스트 야장		삽목 4	1980		1	57	- 호랑가시 삽목 야장 - 학명, 일련번호, 도입사, 성, 수량, 규격, 식재 장소 표기 - 4온실 8번 베드(Bed)까지 삽목 리스트 야장
	소계		9	1,116			소계			9	1,116	

- 식물 관리 기록 (1건 6점 8,314장)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No.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3	식물 생육 조사 1	1973	1	59	- 조무연, 선순화, 김교수*의 식물모니터링 야장 *조무연, 선순화, 김교수 : 국내 식물관 전문가 - 학명, 국명, 식재 간격, 염해 상태, 생장량 측정	3	식물 모니터링 야장식물 생육조사	1973	1	1	59	- 조무연, 선순화, 김교수*의 식물모니터링 야장 *조무연, 선순화, 김교수 : 국내 식물관 전문가 - 학명, 국명, 식재 간격, 염해 상태, 생장량 측정
	식물 생육 조사 2	1976~79	1	662	- 식물 이력 관리 카드 - 학명, 도입처, 일련번호, 식재 위치, 국명, 이식 기록 등을 기록		식물이력 카드	1976~84		1	8,000	- 식물 이력 관리 카드 - 학명, 도입처, 일련번호, 식재 위치, 국명, 이식 기록 등을 기록
	식물 생육 조사 3	1978	1	33	- 1 온실 부근에 위치한 묘포장의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 6 온실 내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1온실 위 묘판 식물 생육조사	1978		1	33	- 1 온실 부근에 위치한 묘포장의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 6 온실 내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No.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식물의 학명, 수량, 정확한 위치 표기)							(식물의 학명, 수량, 정확한 위치 표기)
	식물 생육 조사 4	1978	1	88	- 전주(전봇대) 밑에 있는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식재도, 학명, 수량), - 버버리속 (매자나무 조사), - 수목원 내 초가집 밑에 있는 베드의 식물 조사 및 기록(학명, 도입처) - 5 온실 앞에 있는 베드의 식물 조사 및 기록		전주 밑 묘판 식물 생육조사	1978		1	88	- 전주(전봇대) 밑에 있는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식재도, 학명, 수량), - 버버리속 (매자나무 조사), - 수목원 내 초가집 밑에 있는 베드의 식물 조사 및 기록(학명, 도입처) - 5 온실 앞에 있는 베드의 식물 조사 및 기록
	식물 생육 조사 5	1980	1	123	- 측백집 앞의 베드에서 생장하는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수량, 학명, 삽목 방식, 일련번호) - 표찰을 제작하여 관리해야 할 식물의 목록 * 일부 내용은 일본어로 표기		측백집 앞 식물 생육조사	1980		1	123	- 측백집 앞의 베드에서 생장하는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수량, 학명, 삽목 방식, 일련번호) - 표찰을 제작하여 관리해야 할 식물의 목록 * 일부 내용은 일본어로 표기
	식물 관리도면	1977	1	11	- 수목원 주제원 및 도면 - 4 온실과 초가집 사이, 4 온실과 우물 베드, 초가집과 온실 베드, 주차장 베드, 송씨산 베드, 큰밭 베드, 8 온실 베드, 벚나무집 베드		식물 관리도면	1977		1	11	- 수목원 주제원 및 도면 - 4 온실과 초가집 사이, 4 온실과 우물 베드, 초가집과 온실 베드, 주차장 베드, 송씨산 베드, 큰밭 베드, 8 온실 베드, 벚나무집 베드
	소계		6	976			소계			6	8,314	

○ (1-4) 해외 교류 기록 (1건 8점 638장)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해외 교류 1	1966	1	1	- 교류대상 : 미국농무부 - 미국농무부가 민병갈에게 미국의 롱우드가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두 식물학자(E. Corbett & R. Righty)의 6개월 한국 식물 탐사 일정에 도움을 요청	해외 교류 1	1966	1	1	1	- 교류대상 : 미국농무부 - 미국농무부가 민병갈에게 미국의 롱우드가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두 식물학자(E. Corbett & R. Righty)의 6개월 한국 식물 탐사 일정에 도움을 요청
해외 교류 2	1978-81	1	13	- 교류대상 : Barnes Foundaiton - Barnes Foundation의 경관 조성 협조 요청 - 민병갈이 Barnes Foundation에 회원 가입 * 미국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을 표본으로 삼음 * 천리포수목원의 모델이 될 적합한 곳을 Barns Foundation으로 지정	해외 교류 2	1978-81		1	13	- 교류대상 : Barnes Foundaiton - Barnes Foundation의 경관 조성 협조 요청 - 민병갈이 Barnes Foundation에 회원 가입 * 미국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을 표본으로 삼음 * 천리포수목원의 모델이 될 적합한 곳을 Barns Foundation으로 지정
해외 교류 3	1977-80	1	180	- 교류대상 : 뉴욕식물원 - Index Seminum(국가 간 종자 교류 협약) 신청서 * 뉴욕식물원과의 지속적 교류	해외 교류 3	1977-80		1	180	- 교류대상 : 뉴욕식물원 - Index Seminum(국가 간 종자 교류 협약) 신청서 * 뉴욕식물원과의 지속적 교류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 식물정보교환과 식물전문가, 기관과의 교류 활동의 매개 * 미국 동부의 대표적 수목원으로 탐방객 방문수가 월등한 유명 수목원으로 수목 관리부터 회원제 등 수목원 업무 전반에 걸친 기법 도입						* 식물정보교환과 식물전문가, 기관과의 교류 활동의 매개 * 미국 동부의 대표적 수목원으로 탐방객 방문수가 월등한 유명 수목원으로 수목 관리부터 회원제 등 수목원 업무 전반에 걸친 기법 도입
해외 교류 4	1977-78	1	8	- 교류대상 : 미국 철새보호협회 - 미국 철새보호협회의 리플렛 - 민병갈 본인을 포함한 가족 및 친지의 미국 철새보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해외 교류 4	1977-78		1	8	- 교류대상 : 미국 철새보호협회 - 미국 철새보호협회의 리플렛 - 민병갈 본인을 포함한 가족 및 친지의 미국 철새보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해외 교류 5	1977~85	1	157	- 교류 대상 : HSA 회원 - 1973년 HSA(Holly Society America, 미국호랑가시학회)를 가입하겠다는 서신 - HSA 회원 간 호랑가시 관련 정보에 대한 서신 교환 - 완도호랑가시, 변산라이어 등 한국의 호랑가시를 국제 학회에 소개한 원고	해외 교류 5	1977~85		1	157	- 교류 대상 : HSA 회원 - 1973년 HSA(Holly Society America, 미국호랑가시학회)를 가입하겠다는 서신 - HSA 회원 간 호랑가시 관련 정보에 대한 서신 교환 - 완도호랑가시, 변산라이어 등 한국의 호랑가시를 국제 학회에 소개한 원고
해외 교류 6	1976~81	1	53	- 교류 대상 : AABGA(American Association of Botinical Gardens and Arboreta Inc. 미국 수목원 협회) - AABGA 소개 책자 - 민병갈이 AABGA를 가입하겠다는 서신 * 미국 수목원 협회 가입을 통한 전문가 교류 * 미국단체의 힘을 빌려 다양하고 많은 식물정보를 교류하는 창구	해외 교류 6	1976~81		1	53	- 교류 대상 : AABGA(American Association of Botinical Gardens and Arboreta Inc. 미국 수목원 협회) - AABGA 소개 책자 - 민병갈이 AABGA를 가입하겠다는 서신 * 미국 수목원 협회 가입을 통한 전문가 교류 * 미국단체의 힘을 빌려 다양하고 많은 식물정보를 교류하는 창구
해외 교류 7	1977-78	1	225	- 교류대상 : 영국 Hillier 수목원 - Hiller 수목원에서 천리포수목원의 식물을 구입하겠다는 서신 - 민병갈이 Hiler경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 - Hiller 수목원의 식물 구입을 위한 견적서 * 왕립원예협회(RHS)를 매개로 원예 강국인 유럽 대륙으로 전문가 교류 영역 확장	해외 교류 7	1977-78		1	225	- 교류대상 : 영국 Hillier 수목원 - Hiller 수목원에서 천리포수목원의 식물을 구입하겠다는 서신 - 민병갈이 Hiler경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 - Hiller 수목원의 식물 구입을 위한 견적서 * 왕립원예협회(RHS)를 매개로 원예 강국인 유럽 대륙으로 전문가 교류 영역 확장
해외 교류 8	1989	1	1	- 교류 대상 : RHS - Veitch Meal 수상 대상자로 선정 통보 * 원예계의 노벨상, 세계 원예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수여 현재까지 약 400 여명이 수상함 *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선정, 아시아의 가장 발전 가능성 있는 수목원으로 선정 * MSI(세계목련학회)와 IDS(국제수목학회), HSA(호랑가시 학회)등 저명한 국제 학회를 유치함 * 이러한 세계적 식물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하버드대학교와 벨기에 Kalmthout 수목원 등 해외 수목원과 공동 연구를 위한 MOU 체결과 해외	해외 교류 8	1989		1	1	- 교류 대상 : RHS - Veitch Meal 수상 대상자로 선정 통보 * 원예계의 노벨상, 세계 원예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수여 현재까지 약 400 여명이 수상함 *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선정, 아시아의 가장 발전 가능성 있는 수목원으로 선정 * MSI(세계목련학회)와 IDS(국제수목학회), HSA(호랑가시 학회)등 저명한 국제 학회를 유치함 * 이러한 세계적 식물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하버드대학교와 벨기에 Kalmthout 수목원 등 해외 수목원과 공동 연구를 위한 MOU 체결과 해외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유명 식물기관의 "한국의 반드시 가야 할 수목원"으로 정평						유명 식물기관의 "한국의 반드시 가야 할 수목원"으로 정평
소계		8	638		소계		1	8	638	

○ (3-1) 개인 서신 (1건 8점 56장)

변경 신청('25.9.23. 제9차 위원회)					최종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분류	제작년도	건	점	장	내용
서신 1	1966	1	5	- Log House' 처럼 한옥은 조립과 합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술적 우수성을 피력	서신 1	1966	1	1	5	- Log House' 처럼 한옥은 조립과 합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술적 우수성을 피력
서신 2	1970	1	6	- 천리포 해변의 자연 풍광에 대한 예찬 - 국립임업시험장 조씨로부터 내년에 식물을 기증 받기로 함 - 민병갈 가옥의 온돌 시스템 -민병갈(Carl F. Miller) -> Aunt Ruth, Mom & All(미국의 지인 모두)	서신 2	1970		1	6	- 천리포 해변의 자연 풍광에 대한 예찬 - 국립임업시험장 조씨로부터 내년에 식물을 기증 받기로 함 - 민병갈 가옥의 온돌 시스템 -민병갈(Carl F. Miller) -> Aunt Ruth, Mom & All(미국의 지인 모두)
서신 3	1971	1	5	- 천리포의 다양한 새에 대한 예찬 - 천리포의 전기(발전실) - 민병갈(Carl F. Miller) ->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서신 3	1971		1	5	- 천리포의 다양한 새에 대한 예찬 - 천리포의 전기(발전실) - 민병갈(Carl F. Miller) ->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서신 4	1972	1	6	- 대연각 호텔의 화재 시 미국인 헬기 조종사의 활약을 설명 - 헬기를 타고 천리포 해변에 착륙하여 시간을 보냄 - 민병갈(Carl F. Miller) ->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서신 4	1972		1	6	- 대연각 호텔의 화재 시 미국인 헬기 조종사의 활약을 설명 - 헬기를 타고 천리포 해변에 착륙하여 시간을 보냄 - 민병갈(Carl F. Miller) ->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서신 5	1976	1	2	- 기타 가옥에 대한 기술적 대화 - 민병갈(Carl F. Miller) -> Mom, Aunt Ruth, Aunt Julia	서신 5	1976		1	2	- 기타 가옥에 대한 기술적 대화 - 민병갈(Carl F. Miller) -> Mom, Aunt Ruth, Aunt Julia
서신 6	1979	3	32	- 공익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 - 59ha(18만 평)의 토지를 모두 구입해 외연 확장 - HSA에 발표할 논문 기고 천리포수목원 설명 - 수목원의 세계화가 완성됨 - 건물 건축 계획(도서관, 표본실, 직원아파트 2동) - 민병갈(Carl F. Miller) -> Holly Society Association (미국호랑가시나무학회), Dear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Dear Mom & Ruth 4건	서신 6	1979		3	32	- 공익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 - 59ha(18만 평)의 토지를 모두 구입해 외연 확장 - HSA에 발표할 논문 기고 천리포수목원 설명 - 수목원의 세계화가 완성됨 - 건물 건축 계획(도서관, 표본실, 직원아파트 2동) - 민병갈(Carl F. Miller) -> Holly Society Association (미국호랑가시나무학회), Dear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Dear Mom & Ruth 4건
소계		8	56		소계		1	8	56	

<붙임 2>

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태안 천리포수목원 민병갈 가옥 및 기록물
2. 소 재 지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OOO
3. 소 유 자 : OOOOOO
4. 제작연대 : 가옥(1970년 이축) / 기록물(1962~1973년)
5. 수　　량 : 가옥(1동) / 기록물(2종 각 1식)
6. 규　　격 : 가옥(94.3㎡건축면적) / 기록물(18.5cm × 13cm 등)
7. 재　　질 : 가옥(목조) / 기록물(종이 등)
8. 조사자 의견('24.6.19.)

<문화유산위원 OOO>

1) 개요

○ (기록물) 천리포수목원의 조성과 운영에 관련된 기록물로 신청자료는 토지매입증서 1점, 업무일지 18점, 식물채집 기록 4점, 식물번식 기록 8점, 식물관리 기록 6점, 해외 교류 기록 8점, 개인 서신 14점, 수목원 조성 사진첩 4점 및 식물 채집 사진첩 3점, 국내 문화유적지 답사 사진 및 슬라이드첩 22점, 민병갈 개인 사진첩 8점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1-1) 토지매입증서는 1962년 수목원 조성을 위한 필지 구입 계약서 1점 4장임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토지 매입 증서	1962	1	4	- 수목원 조성을 위한 9,000㎡(2,727평)의 필지 구입
소계		1	4	

○ (1-2) 업무일지는 1970-1979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해외 식물 도입과 관련된 견적서와 송장 등 서류와 검역신고서, 민병갈 선생이 작업한 식재계획도, 식재 도면을 비롯하여 식물의 국명과 학명, 식물관리 실험, 민병갈 가옥의 수리와 수목원 재단 설립에 이르기까지 수목원 업무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업무일지 1	1970~73	1	87	- 최초 식물기록, 식재 (1.후박나무, 2.참식나무, 3.동백나무) (p.1~p.4) - 해외식물도입 제반 서류 (견적서와 송장-학명표기, 등록번호, 크기와 가격, 수량 등 표기) (p.5~p.17) - 해외 식물도입 검역 신고서와 국내 수목 시장 (충북 청원, 청주 일대)과 거래 내역서 (p.18~p.33) - (민병갈 작업분) 식재계획도: 재식수목 위치와 수량, 방위표, 학명, 주변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식재도면 제작 (p.35~p.59) - (민병갈 작업분) 수목 수량 확인서 및 배분 내역(한글표기) (p.60~p.87)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업무일지 2	1974	1	167	- 1974년 4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식물 종자 리스트와 온실 내 파종 위치 도면 (일지번호 74-1) - 종자 및 구근 입하목록 (유목 포함) (일지번호 74-68) - (민병갈 작업분) 구근을 식재한 식재 도면 (일지번호 74-103) - (민병갈 작업분) 묘포장과 파종 위치를 표기한 식재 도면 (일지번호 74-121)
업무일지 3	1975	1	152	- 기상 체크 시작, 기상 개황도의 출현 (천기 일수, 최고, 최저, 평균기온, 강우, 강설량, 습도와 바람-지진 발생 시간과 강도, 마지막 눈과 첫눈 표기 (일지번호 75-278) - 일자별 도입 식물 리스트와 식재 위치도 (일지번호 75-141) - 식물 이름의 국명과 학명 표기 (일지번호 75-143) - 식물 삽목묘의 국내 출처와 지명, 채취 수량 표기, 묘포장의 마스터플랜 (일지번호 75-170) - 온실의 삽목묘 위치도와 국내 채취한 장소와 수량 표기 (일지번호 75-170) - 천리포수목원 업무일지의 형식완료, 날짜, 기상상황, 주요업무, 방문자, 비고란을 두어 형식에 맞춤 (일지번호 75-140)
업무일지 4	1976	3	684	- 연도별 기상 개황 (일지번호 76-4) - 완도호랑가시 발견 과정 (남평 임업시험장, 목포 선교사집 등지에서 호랑가시 채종) (일지번호 76-40) - 방풍벽 설치와 씨앗 매장법등 식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환경 조성 (일지번호 76-42) - 식물 비료용 해초 운반과 솔잎 활용을 위한 솔가지 채취 (일지번호 76-133) - 수목 기증활동 (소원면 관내 교육기관과 관공서) (일지번호 76-154)
업무일지 5	1977	4	870	- 보유 수종 리스트 제작 (일지번호 77-15) - 무관수밀폐법과 송충이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 (일지번호 77-17) - WeakBed를 설치하여 우리 환경에 취약한 식물을 별도 관리 (일지번호 77-73) - 모래땅 위에 2차 소나무 방풍림 설치 (일지번호 77-82) - 절부암과 인천 등지의 해안가에서 호랑가시 특이종 발견 후 명명 (일지번호 77-232) - 남해안 여행길 등 호랑가시 신품종 탐사를 위한 채집여행 (일지번호 77-844)
업무일지 6	1978	4	949	- 장항-군산-함열-전주 임업시험장-변산반도 등 호랑가시를 찾기 위한 여정 (일지번호 78-5) - 광주-순천농전-광양임업시험장과 지역의 식물 전문가 회합 (일지번호 78-11) - 미국워싱턴대학교와 Index Seminum 시작 (일지번호 78-78) - 번식일지(Cutting List, 파종리스트)에 대한 리스트 정리 (일지번호 78-105) - HSA(미국호랑가시학회), MSI(국제목련학회), RHS(왕립원예학회)와의 교류 본격화 (일지번호 78-816) - 식물 기록카드 작성 본격화 (일지번호 78-989),

업무일지 7	1979	4	1,194	- 식물분류학회 참석 (일지번호 79-544) - 민병갈 가옥 지붕수리 (일지번호 79-765) - 민병갈 가옥 응접실 수리 (일지번호 79-911) * 수목원 재단법인 설립 (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산정과 식물리스트 작성) * 18만평의 토지확보로 외연확장 * 민병갈 한국 귀화
소계		18	4,103	

○ (1-3) 식물채집 기록은 1975-1977년까지 제주도, 완도, 강진, 강화도, 일본, 미국 등 민병갈 선생이 작성한 식물 채집에 관한 것임.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1	식물 채집 1	1975-76	1	40	- 1975.12.31.~1976.1.5. / 1976.1.23. 총 2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제주도, 완도, 강진 등 - 채집 식물 : 분꽃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붓순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 민병갈 작성(친필)
	식물 채집 2	1976	1	48	- 1976.7.30.~1976.8.3. / 1976.8.12. / 1976.8.24. 총 3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전남, 제주도, 일본 등 - 채집 식물 : 은행나무, 호장근, 곰취 등 - 특이사항 : HSA에 미등록된 호랑가시나무 발견 * 민병갈 작성(친필)
	식물 채집 3	1976	1	183	- 1977.9.3. / 1977.11.1.~11.17 / 1977.1.27.~1.29 총 3회 채집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강화도, 일본 등 - 채집 식물 : 참나무, 으름덩굴 등 * 민병갈 작성(친필)
	식물 채집 4	1976-77	1	22	- 1977.1.26. / 1977.10.30.-11.20 총 2회 - 채집 목적 :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 - 채집 장소 : 제주도, 미국 등 - 채집 식물 : 감탕나무속 식물 등 * 민병갈 작성(친필)
	소계		4	293	

식물 번식 기록은 1975-1979년까지의 파종 기록, 1978-1979년까지의 삽목 기록임.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2	파종 1	1976-77	1	164	-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채집된 호랑가시 종자 야장 (천리포식물원 식물 조사 카드 뒷면에 기록) - 묘포장 파종 위치 표기 - 완도호랑가시 품종 등록을 위한 채집 여행에서 채집된 종자 - 1976년 제주도와 기타 지역, 임업 시험장에서 보내 온 종자 파종 - 1977년 민병갈이 해외 (뉴질랜드 등)에서 들여 온 종자 파종
	파종 2	1977-79	1	174	- 파종기록야장 - N : 지금, 온 : 온실, S : 모래 등 약어로 현재 식물 위치 표기 O : 현재 전부 파종, ✓ : 씨앗 부패, △ : 씨앗 교환 (외국) * 위와 같은 기호로 현재 식물 상태 표기
	파종 3	1977~79	1	97	- 토양 성분 배합 실험 실시 - 밀폐무관수기법 실험 - 초기 수목원 조성 적합한 수종 선택 위한 토양개량법 실험
	파종 4	1979	1	142	- 1979년 온실 내 파종 현황 (국내 : 8온실 앞 씨앗밭, 3온실 이끼파종,

					국외 : 중국 중산식물원) - 백엽상 및 묘포장의 피종 현황 야장
	삽목 1	1975	1	22	- 1975년 천리포에서 채취한 바늘잎식물(구과) 삽목 야장 - 변산반도, 한국합판 등 호남 지방에서 채취한 호랑가시나무 삽수 삽목
	삽목 2	1978	1	217	- 미등록 호랑가시종의 발견 및 등록을 위한 삽수 채집 여행 - 완도호랑가시 자생지인 호남 지방 여정 - 호랑가시 자생지에서 채취한 삽수의 채집 장소와 리스트 야장
	삽목 3	1977	1	86	- 호랑가시 삽목 야장 - 학명, 일련번호, 도입사, 성, 수량, 규격, 식재 장소 표기 - 4온실 8번 베드(Bed)까지 삽목 리스트 야장
	삽목 4	1978-79	1	196	- 울릉도 여행길에 채집한 삽수 야장 - 식생대별 식물 생육 환경 조사 - 천리포수목원 각 지역별 자연환경적 특성 기록
	소계		8	1,098	

식물 관리 기록은 식물 생육 조사 기록 5점과 식물 관리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3	식물 생육 조사 1	1973	1	104	- 조무연, 선순화, 김교수*의 식물모니터링 야장 *조무연, 선순화, 김교수 : 국내 식물관 전문가 - 학명, 국명, 식재 간격, 염해 상태, 생장량 측정
	식물 생육 조사 2	1976~79	1	8,000	- 식물 이력 관리 카드 - 학명, 도입처, 일련번호, 식재 위치, 국명, 이식기록 등을 기록
	식물 생육 조사 3	1977	1	31	- 1 온실 부근에 위치한 묘포장의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 6 온실 내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식물의 학명, 수량, 정확한 위치 표기)
	식물 생육 조사 4	1977	1	109	- 측백집 앞의 베드에서 생장하는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수량, 학명, 삽목 방식, 일련번호) - 표찰을 제작하여 관리해야 할 식물의 목록 * 일부 내용은 일본어로 표기
	식물 생육 조사 5	1977	1	83	- 전주(전봇대) 밑에 있는 묘판 식물의 생육을 조사 및 기록 (식재도, 학명, 수량), - 버버리속 (매자나무 조사), - 수목원 내 초가집 밑에 있는 베드의 식물 조사 및 기록 (학명, 도입처) - 5 온실 앞에 있는 베드의 식물 조사 및 기록
	식물 관리도면	1977	1	10	- 수목원 주제원 및 도면 - 4 온실과 초가집 사이, 4 온실과 우물 베드, 초가집과 온실 베드, 주차장 베드, 송씨산 베드, 큰밭 베드, 8 온실 베드, 벚나무집 베드
	소계		6	8,337	

○ (1-4) 해외 교류 기록은 미국 농무부, 뉴욕식물원, 미국 철새보호협회, 영국왕립원예협회, 국제수목학회 등과의 교류 서신 및 자료와 원고가 포함되어 있음.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해외 교류 1	1967	1	1	- 교류대상 : 미국농무부 - 미국농무부가 민병갈에게 미국의 롱우드가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두 식물학자(E. Corbett & R. Righty)의 6개월 한국 식물 탐사 일정에 도움을 요청
해외 교류 2	1978-81	1	12	- 교류대상 : Barnes Foundaiton - Barnes Foundation의 경관 조성 협조 요청 - 민병갈이 Barnes Foundation에 회원 가입 * 미국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을 표본으로 삼음 * 천리포수목원의 모델이 될 적합한 곳을 Barns Foundation으로 지정
해외 교류 3	1977-80	1	172	- 교류대상 : 뉴욕식물원 - Index Seminum(국가 간 종자 교류 협약) 신청서 * 뉴욕식물원과의 지속적 교류 * 식물정보교환과 식물전문가, 기관과의 교류 활동의 매개 * 미국 동부의 대표적 수목원으로 탐방객 방문수가 월등한 유명 수목원으로 수목 관리부터 회원제 등 수목원 업무 전반에 걸친 기법 도입
해외 교류 4	1977	1	50	- 교류대상 : 미국 철새보호협회 - 미국 철새보호협회의 리플렛 - 민병갈 본인을 포함한 가족 및 친지의 미국 철새보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해외 교류 5	1976~79	1	150	- 교류 대상 : HSA 회원 - 1973년 HSA(Holly Society America, 미국호랑가시학회)를 가입하겠다는 서신 - HSA 회원 간 호랑가시 관련 정보에 대한 서신 교환 - 완도호랑가시, 변산라이어 등 한국의 호랑가시를 국제 학회에 소개한 원고
해외 교류 6	1977~81	1	53	- 교류 대상 : AABGA(American Association of Botinical Gardens and Arboreta Inc. 미국 수목원 협회) - AABGA 소개 책자 - 민병갈이 AABGA를 가입하겠다는 서신 * 미국 수목원 협회 가입을 통한 전문가 교류 * 미국단체의 힘을 빌려 다양하고 많은 식물정보를 교류하는 창구
해외 교류 7	1977-	1	212	- 교류대상 : 영국 Hillier 수목원 - Hiller 수목원에서 천리포수목원의 식물을 구입하겠다는 서신 - 민병갈이 Hiler경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 - Hiller 수목원의 식물 구입을 위한 견적서 * 왕립원예협회(RHS)를 매개로 원예 강국인 유럽 대륙으로 전문가 교류 영역 확장
해외 교류 8	1989	1	1	- 교류 대상 : RHS - Veitch Meal 수상 대상자로 선정 통보 * 원예계의 노벨상, 세계 원예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수여 현재까지 약 400 여명이 수상함 *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선정, 아시아의 가장 발전 가능성 있는 수목원으로 선정 * MSI(세계목련학회)와 IDS(국제수목학회), HSA(호랑가시학회)등 저명한 국제 학회를 유치함 * 이러한 세계적 식물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하버드대학교와 벨기에 Kalmthout 수목원 등 해외 수목원과 공동 연구를 위한 MOU 체결과 해외 유명 식물기관의 "한국의 반드시 가야 할 수목원" 으로 정평
소계		8	651	

○ (3-1) 개인 서신은 1966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6년 (각 1점), 1979년 (8점)에 작성된 것으로 수발신자가 확인되고 있음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서신 1	1946	1	1	- 1946년 미해군에 잔류할지, 귀국할지 고민하는 내용 - 미군 정보 학교에서의 일화를 통해 동양의 사상을 학습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문화를 섭렵하는 계기가 됨 - 민병갈(Carl F. Miller) -> 어머니 Mrs. Edna Milller
서신 2	1970	1	6	- 1970년 민병갈 가옥(해송집)을 짓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함 - 평소에 살던 한옥이 헐린다는 소식, 그 한옥을 철거하여 천리포로 이축했다는 내용과 'Log House' 처럼 한옥은 조립과 합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술적 우수성을 피력 - 청량리 임업시험장의 조무연(홍릉 수목원 연구관)으로부터 1트럭 분량의 식물을 기증 받음 -민병갈(Carl F. Miller) -> Aunt Ruth, Mom & All(미국의 지인 모두)
서신 3	1972	1	6	- 민병갈 가옥(해송집)을 짓고 난 후 입식 생활을 위한 가옥의 수리 진행 - 민병갈 가옥 옆에 도서관으로 사용할 소사나무집을 지음 - 소유하고 있는 식물 관련 서적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함 - 민병갈(Carl F. Miller) ->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수신인은 Aunt Ruth로 어머니보다 전파력이 큰 루스고모께 보낸 편지
서신 4	1973	1	4	- 천리포 해변의 자연 풍광에 대한 예찬 - '파도소리와 새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지상 천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예찬 - 민병갈(Carl F. Miller) ->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수신인은 Aunt Ruth로 어머니보다 전파력이 큰 루스고모께 보낸 편지
서신 5	1971	1	4	- 대연각 호텔의 화재 시 미국인 헬기 조종사의 활약을 설명 - 헬기를 타고 천리포 해변에 착륙하여 시간을 보냄 - 민병갈(Carl F. Miller) -> Everyone미국의 친지 & 지인) 수신인은 Aunt Ruth로 어머니보다 전파력이 큰 루스고모께 보낸 편지
서신 6	1976	1	2	- 민병갈 가옥의 온돌 시스템과 전기(발전실) - 기타 가옥에 대한 기술적 대화 - 민병갈(Carl F. Miller) -> Mom, Aunt Ruth, Aunt Julia
서신 7	1979	8	23	- 공익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 - 59ha(18만 평)의 토지를 모두 구입해 외연 확장 - HSA에 발표할 논문 기고 천리포수목원 설명 - 수목원의 세계화가 완성됨 - 민병갈(Carl F. Miller) -> Holly Society Association(미국호랑가시나무학회)
소계		14	46	

○ 인화 사진과 슬라이드는 1960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목원 조성(2-1)과 식물채집(2-2), 국내 문화유적지 답사(3-2), 민병갈 개인사진(3-3)임

2-1. 수목원 조성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사진(인화) 1	1960	1	85	- 해송집, 소사집, 닭섬 등
사진(인화) 2	1960	1	391	- 목련사진, 수목원화재, 풍년화, 호랑가시삽수 채취
사진(인화) 3	1960~80	1	155	- 수목원 조성 초기, 해송집 주변, 어머니 방문, 신흥사 사찰, 울릉도 답사 등
사진(슬라이드)	1970년대	1	77	- 1970년 이후 천리포수목원 조성 초기 모습, 낭새섬과 민병갈 가옥, 천리포마을 등
소계		4	708	

2-2. 식물 채집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사진(인화)	1970년대	3	635	- 장소 : 변산반도, 전라도, 광양 임업 시험장 등 - 식물 : 완도호랑가시, 변산라이어 등
소계		3	635	

3-2. 사진(국내 문화유적지 답사)

No.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1	사진(인화) 1	1940~45	1	346	- 광복 전 서울, 경기도, 건축물, 인물사진 - 광복 전 1940년대 한국의 사진 자료 - 시가지 모습과 한국 지인들이 민병갈의 설명글과 함께 촬영일시까지 기록됨
	사진(인화) 2	1946~50	1	205	- 광복 후 서울, 38도선 일대 시가지, 건축물, 인물사진 - 광복 후 1940년대 한국의 사진 자료 - 시가지 모습과 한국 지인들이 민병갈의 설명글과 함께 촬영일시까지 기록됨
2	사진(슬라이드) : 국내 1	1950	1	123	-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행사, 경복궁, 창덕궁, 수원성 * 전쟁 전후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 도시를 촬영한 사진
	사진(슬라이드) : 국내 2	1960	1	394	- 포천, 청주, 공주, 목포, 제주, 부산, 인천, 경부 - 왕릉 사진
	사진(슬라이드) : 국내 3	1960	1	364	- 하와이, 부산, 양양, 삼척, 원주, 경주
	사진(슬라이드) : 국내 4	1960	1	314	- 쌍계사, 불국사, 동화사 등 다양한 사찰 방문
	사진(슬라이드) : 국내 5	1960	1	273	- 경주 석굴암, 미국 가족사진, 어머니 한국 방문, 본인 사진
	사진(슬라이드) : 국내 6	1960	1	237	- 1970년대의 시대상 - 민병갈의 지인, 한국의 문화재. 풍경
3	사진(인화) : RAS 1	1950년대	1	214	- 인천 상륙, 서울 호텔, 군함 내 생활, - 전쟁 전후의 서울 시가
	사진(인화) : RAS 2	1950년대	1	286	- 경회루, 석조전, 국일관, 뚝섬, 범어사, 안양
	사진(인화) : RAS 3	1950년대	1	312	- 조선 궁궐 건축물 사진, 왕족, 현판 사진 등
	사진(인화) : RAS 4	1950년대	1	111	- 호서제일문, 백제 구도 부여, 광한루, 대만, 일본 여행
	사진(인화) : RAS 5	1959	1	121	- 수덕사, 스님, 예산 삽교면, 온양 온천
	사진(인화) : RAS 6	1960	1	121	- 동해, 설악산, 낙산사, 폭포
	사진(인화) : RAS 7	1960	1	74	- 법주사, 한강철교, 도담삼봉, 해인사, 불국사
	사진(인화) : RAS 8	1960년대	1	117	- 동해, 설악산 흔들바위, 사찰
	사진(인화) : RAS 9	1960년대	1	262	- 활쏘기, 청도소싸움, 농악대 축하연, 강강수월래, 단체관광버스
	사진(인화) : RAS 10	1960년대	1	6	- 백제 부여, 호서제일문
	사진(인화) : RAS 11	1960년대	1	88	- 안압지, 도담삼봉, 불국사, 첨성대 등
	사진(인화) : RAS 12	1960년대	1	211	- 여주 실륵사, 사비루 등
	사진(인화) : RAS 13	1960년대	1	267	- 청평, 통도사 남해, 해운대 탐방 포항, 변산반도, 해인사, 평해온천 - 순정효황후 윤씨와 민병갈을 포함한 RAS 회원들의 차담 사진
	사진(인화) : RAS 14	1970년대	1	143	- 제주도, 단체 관광 버스, 군함 승선, 폭포 계선사 사찰
소계			22	4,589	

* RAS : Royal Asiatic Society 왕립 아시아 협회

3-3. 사진(개인사)

분류	제작년도	점	장	내용
사진(인화) : 개인사 1	1940-79	1	123	- 민병갈 지인 미국 친지 방문 등
사진(인화) : 개인사 2	1950년대	1	332	- 서울 공항, 대학 졸업식장, 해군사관생도, 해변 휴가 사진, 영화 배우 등
사진(인화) : 개인사 3	1960	1	257	- 보스턴, 뉴욕 등 해외 여행 사진
사진(인화) : 개인사 4	1960	1	579	- 능호정, 농산정, 금호문, 진선문, 대한문, 중화전, 함녕전, 덕흥전, 석조전 등
사진(인화) : 개인사 5	1960-70	1	107	- 민병갈의 친구들 1950~2000년대 직장, 수목원 식물전문가, 후슈잉* 등 *후슈잉 : 아놀드수목원 최초의 여자 원장, 홍콩인.
사진(인화) : 개인사 6	1960-79	1	174	- 홍제동 한옥에서의 김치 파티, 민병갈의 미국 및 한국 지인
사진(인화) : 개인사 7	1970년대	1	77	- 변산반도 여행
사진(인화) : 개인사 8	1970년대	1	82	- 민병갈의 주변 인물
소계		8	1,731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기록물) 전반적으로 양호함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기록물) 민병갈식물도서관 내에서 전문인력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5)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 (기록물) 2012년 민병갈 박사 학술심포지엄, 2022-2023년 한국전통조경학회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소개된 바 있으며 주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활용이 가능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없음

7) 등록가치의견

○ (기록물) 토지매입, 수목원 업무일지, 식물 채집, 해외 학회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교류에 대한 기록, 수목원의 기록 사진, 한국 답사 사진 및 개인 서신 등 대상 기록물은 천리포 수목원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 다만, 신청번호 2-1 수목원 조성 사진 및 슬라이드, 2-2 식물채집 사진은 참고용 자료로 판단하며 3-2 국내 문화유적지 답사 사진 및 슬라이드, 3-3 개인사 사진은 수목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부족한 면이 있어 등록대상에서는 제외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기록물 등록시) 천리포 수목원 기록물

<문화유산전문위원 OOO>

1) 개요(기록물)

○ 천리포수목원은 민병갈이 1960년대 초부터 조성한 수목원임. 천리포수목원은 1962년부터 부지를 매입해 조성되었으며, 한국 수목원의 모태로 평가됨. 신청

자료는 토지매입증서 1점, 업무일지 18점, 식물채집 기록 4점, 식물번식 기록 8점, 식물관리 기록 6점, 해외 교류 기록 8점, 개인 서신 14점, 수목원 조성 사진첩 4점, 및 식물 채집 사진첩 3점, 국내 문화유적지 답사 사진 및 슬라이드첩 22점, 민병갈 개인 사진첩 8점임. 신청 자료는 천리포수목원의 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기록으로 한국현대사에서 수목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식물학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토지매입증서(1-1)

토지매입증서는 1962년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문서임. 토지매입증서는 1점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목원 조성을 위해 토지(9,000㎡(2,727평))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임.

○ 업무일지(1-2)

천리포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업무일지임. 작성 시기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이며, 18권 4,103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업무일지는 천리포수목원에 식재된 식물, 해외식물 도입과 관련된 견적서와 송장, 식재도면, 식물의 학명, 민병갈 가옥의 수리 등 천리포 수목원 조성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임.

○ 식물채집 및 번식 및 관리(1-3)

민병갈이 식물의 다양성 연구 및 채집을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임. 식물채집(293장, 1975-1977년), 식물번식(1,098, 1976-1979년), 식물관리(8,337, 1973-1977년)로 이루어져 있음. 민병갈은 제주도, 완도, 강진, 강화도, 일본, 미국 등 국내외에서 식물을 조사하고 채집했으며, 이것을 천리포 수목원에 이식함. 신청자료는 채집장소, 채집식물, 파종, 삽목 등을 상세히 기록했으며, 식물의 생육과 도입처, 학명, 수량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임.

○ 해외교류(1-4)

민병갈이 미국농무부, Barnes Foundation, 뉴욕식물원, 미국 수목원협회, 미국 철새보호협회, 영국왕립원예협회, 국제수목학회 등과 교류한 자료임. 신청자료는 민병갈이 국체단체와 협력하고 교류한 교류서신과 원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천리포 수목원을 위해 해외학자등과 교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임.

○ 사진(2-1, 2-2)

민병갈이 1960-1970년대 천리포수목원 및 주변지역, 그리고 수목원의 식물, 식물채집 장소 등을 촬영한 사진과 슬라이드임. 신청 자료는 천리포 수목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로 판단됨

○ 기타(3-1)

민병갈이 어머니와 미국의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임. 신청 자료는 천리포수목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서신도 포함되어 있음. 신청자료 중 민병갈 가옥과 관련된 서신은 민병갈 가옥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가 있음

○ 기타(3-2, 3-3)

민병갈이 국내문화유적 답사 당시 촬영한 사진과(3-2), 개인사진(3-3)임. 천리포

수목원과 관련이 없는 사진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기록물) 천리포 수목원 기록물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별도의 보존처리는 필요 없다고 판단됨.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기록물) 민병갈식물도서관에서 관리가 되고 있음

5)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 (기록물) 천리포 수목원의 기록물은 한국현대사에서 수목원의 역사와 식물학 관련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기록물)

천리포수목원은 1962년부터 조성된 대표적인 수목원임. 신청자료는 천리포수목원의 설립부터 1979년까지의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있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수목원의 역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해외식물의 국내도입뿐만 아니라 식물의 기록체계 수립과정과 관련된 기록의 변천도 파악할 수 있음. 토지매입증서(1-1), 업무일지(1-2), 식물채집・번식 및 관리(1-3), 해외교류(1-4)는 등록문화유산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사진(2-1(수목원 조성), 2-2(식물채집)) 자료는 1960-1970년대 천리포수목원 및 주변지역, 그리고 수목원의 식물, 식물채집 장소 등을 촬영한 사진과 슬라이드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기타(3-1(서신(개인사), 3-2(국내문화유적답사))은 천리포 수목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진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3-1(서신)의 경우 서신(2)・서신(3)・서신(6)은 민병갈 가옥과 관련된 자료로 민병갈 가옥 등록 심사와 연계해 선정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기록물 등록시) 천리포 수목원 기록물

<문화유산전문위원 OOO>

1) 개요

○ 등록 신청 대상은 '태안 천리포수목원 민병갈 가옥 및 기록물'로서 오늘날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와 천리포 해안 사이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의 조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련의 기록물과 오늘날 (재)천리포수목원(1979년 설립)의 설립자이면서 최초 수목원 조성을 주도하였던 인물인 '민병갈(미국명 Carl F Miller, 1921~2002)이 거주하였던 한옥 1동임.

○ 민병갈은 미국계 귀화인(1979년 귀화)으로 1944년 일본 오키나와 미군사령부 통역장교로 근무한 후 1945년 미군 정보장교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국내 미군정청과 미국 원조기관(AID) 등에서도 근무한 바 있음. 한국전쟁 이후 1962년에는 한국은행 고문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 오늘날 천리포수목원 일대의 땅을 의도치 않게 매입하게 되면서 수목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즉, 1962년 3월 천리포 해안 사구(모래 언덕) 위에 위치한 네 필지 627평을 시작으로 그 해 4월까지 이 일대 부지 2,727평(9,000㎡)을 매입하였고, 8년 뒤인 1970년부터는 천리포수목원의 모태가 되는 소위, '밀러가든'을 조성하기 시작하게 되었음. 밀러가든은 천리포수목원이 태동되었던 곳으로 당시 식재된 수목과 함께 노단 포지 및 묘포장 등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고 민병갈 가옥도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밀러가든은 그 이후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현재는 전체 면적이 약 617,100㎡에 이르는 국제적 규모의 수목원으로 발전하였음.

○ 민병갈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토지매입증서(1962년~)와 함께 업무일지, 식물채집, 식물전식(파종 및 삽목), 식물관리 등의 기록물이 비교적 온전히 잘 남아 있음. 이들 기록 중 일부 업무일지(New Plants 1970~1973)와 식물채집(1975~1977)의 기록은 민병갈이 직접 작성한 친필 기록이며, 이중 업무일지(New Plants 1970~1973)는 오늘날 천리포수목원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기록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수목원 조성 관련 계획도가 삽도 형식으로 그려져 있음.

○ 이와 함께,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거주지와 사무공간 등을 위해 '민병갈 가옥(일명 해송집)'을 포함해 3동의 가옥(한옥)도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은 1970년 도시개발(서울 서대문 무악재 도로공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을 이곳으로 옮겨와 새롭게 용도에 맞게 고쳐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이축 공사를 진행한 목수는 김시철로 전해지고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당시 모두 5동의 한옥을 뜯어와 3동의 한옥으로 고쳐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은 발전실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함. 그리고 민병갈 가옥을 제외한 나머지 한 동은 현재 민병갈 가옥 남쪽에 위치한 '소사나무집'으로서 당시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지난 2000년 11월 화재로 인해 새로 고쳐지어 지금은 카페로 활용하고 있음.

○ 오늘날 천리포수목원은 밀러가든과 에코힐링센터, 목련원, 낭새섬(닭섬), 침엽수원, 종합원, 큰골 등 모두 7개의 영역(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러가든과 에코힐링센터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민병갈 가옥(1970년 6월 21일 상량)은 천리포수목원 전체 영역 중 일반인 공개지역 중 한 곳인 '밀러가든'에 속해 있으며, 천리포해안 모래 언덕 절벽에 인접하

여 위치하고 있음. 민병갈의 거주지와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 민병갈 사후(2002년) 외부에 개방하여 힐링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

- ㅇ 가옥의 배치가 수목원이 있는 남동쪽을 등지고 서해 바다가 보이는 북서쪽을 향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좀 이색적인데, 이는 일반적인 전통 가옥의 배치 형태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한옥 생활을 즐기던 서양인의 건축 관념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임.
- ㅇ 또한, 민병갈이 미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Korean houses are put together like Lincoln logs…"라고 적은 내용을 근거로 하면, '한옥의 가구식 목구조 시스템이 통나무집(log house)과 같이 조립과 합체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위의 기록 중 'Lincoln logs'는 당시 미국에서 판매되었던 소위, 집짓기 나무 블록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그의 생각은 수차례 개, 보수한 가옥의 여러 흔적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로 또 다른 편지 내용에 따르면 이축해 온 민병갈 가옥을 1972년 입식으로 개조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음.
- ㅇ 가옥의 형태는 우리나라 경기 및 중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ㄱ자형 평면을 취한 한식목구조 건물로서 본채와 날개채 모두 5량 가구로 짜 맞추고 그 위에 팔작지붕을 올렸으며, 기둥 상부는 기본적으로 민도리집으로 결구하고 일부에 소로 수장으로 장식한 비교적 소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ㅇ 가옥의 평면은 남쪽에 위치한 一자형 본채의 경우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건너방과 우측에 안방을 두고 있으며, 북쪽에 딸린 一자형의 날개채는 본채의 안방에 접하여 욕실과 화장실, 부엌, 누마루 등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음.
- ㅇ 현재 가옥의 내부공간(욕실, 화장실 부엌 등)과 외부 창호 등은 대부분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는데, 지난 2014년에는 환경부에서 진행한 '탄소 먹는 바이오 그린 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수선 공사를 통해 보, 기둥 등 주요 구조체의 드잡이 공사와 함께 일부 노후 부재에 대한 교체 등을 실시한 바 있음. 특히, 이때 난방공사(온수난방)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돌방의 기존 구들이 모두 제거되었는데, 당시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초 이축 당시에는 전통 구들을 사용하였고 그 후 80년대쯤 대청과 안방 일부 공간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였다고 함. 한옥에 라이에이터 난방 설비가 설치된 사례가 흔치 않으므로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대수선 공사로 인해 그 흔적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임.
- ㅇ 이밖에, 가옥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이력이 남아 있지 않아 이축되기 이전(以前) 가옥의 모습(상황)과 이축 당시의 건축적 정황(공사과정 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임. 다만, 관련 연구자료 및 관계자 증언 등에 따르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오는 과정 속에서 증, 개축 등으로 인해 5차례의 크고 작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ㅇ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변형 과정을 통해 나타난 일부 건축적 현상들 중에는 비교적 의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날개채 동쪽 외벽 면 일정 규모의 차양 칸을 달아내어 내부용 복도로 사용한 것은 근대기 한옥에 반영된

중요한 시대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햇빛이 비교적 잘 드는 응접실과 대청마루의 서쪽과 남쪽 편으로 일부 공간을 달아내어 온실로 사용한 것과 입식 주방 및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서양식 생활을 접목한 근대기 한옥의 변용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온실 공간은 지난 2004년까지 사용된 후 현재의 용도(응접실)로 리모델링 되어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없으나, 관련 기록물과 함께 하인방 아래 남아 있는 배수관의 흔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천리포 수목원 기록물'의 경우, (재)천리포수목원 내 기록연구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어 양호한 상태이기는 하나, 각종 전문설비를 갖춘 별도의 수장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며, 전산화 작업을 통한 DB 구축도 필요해 보임.

○ '민병갈 가옥'의 경우에도 2014년 대수선 공사가 있었고 또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보존, 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다만, 증, 개축 등으로 인해 5차례의 크고 작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밖에, 2014년 대수선 공사를 통해서 일부 과거(이축 당시)의 흔적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는 하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간(평면)의 변화와 함께 일부 구조체의 변형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 특히, 일부 내부 공간에서는 기둥이 제거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붕하중 부담을 위해 보의 단면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선이 진행되었음.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의 (재)천리포수목원의 여러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여건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변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도 개발 등으로 인한 훼손 및 멸실될 우려가 없어 보임.

5) 문화유산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재)천리포수목원 측에서는 향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대외에 널리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천리포수목원 자료실을 조성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전시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천리포수목원이 갖는 역사적,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감안할 때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맞게 가치를 보존하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 동산분야에서 근·현대기 생성된 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는 여러 유형의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부동산(시설물) 분야와 함께 일괄로 동시에 등록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7년 등록된 '군

산 둔율동 성당'과 2020년 등록된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가 있음. 즉,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는 '군산 둔율동 성당'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2점의 자료로서 성당의 계획 수립, 착공, 완공, 건축기금 등 건축 전반의 과정 및 당시 공사 허가신청서, 청사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이에, 성당의 건축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당과 상호 연계된 통합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추가로 등록되었음.

7) 등록가치의견

-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사립) 수목원 시설로서 당시 수목원이 조성되는 일련의 과정과 상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들 역사적 기록을 통해 물리적 흔적(공간)들이 현재까지도 확인된다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 특히, 이곳 수목을 통해 다양한 외래 수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역사적 기록물로써 뿐만 아니라 조경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음.
- ○ 다만, 역사적 기록물을 반증하는 물리적 흔적으로 가옥(한옥)에 대한 건축적 내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발굴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와 함께 초기에 조성된 정원(즉, 밀러가든) 일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등록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먼저, '천리포수목원 기록물'을 등록하고 '민병갈 가옥'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작업을 거쳐 후에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등록 시 명칭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 부여지침에 따라「태안 천리포수목원 민병갈 기록물」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자연유산위원 OOO> 서면검토

1) 개요

- ○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큰 관심을 가졌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미국인인 Carl Ferris Miller는 평소 전국 각지를 답사하였음. 1960년대 한국일보 사주, 경제부총리인 장기영과 교류하였으며, 그분의 별장이 있는 천리포 바로 옆의 물닭섬에 자주 들름. 이러던 차에 1962년에 천리포 해변에 소규모의 땅을 구입하였지만, 수목원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음. 이후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이창복 교수, 산림청 홍릉수목원의 조무연 연구관 등과 교류 중 수목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1970년부터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결심함.

○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이하 천리포수목원)의 설립자인 민병갈 박사는 1979년에 귀화하는 등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한국인보다 더욱 사랑하고 몸소 실천하였으며, 수목원 설립 30년 만에 국제수목학회(International Dendrology Society)는 2000년 4월에 아시아 지역의 수목원으로는 처음으로 천리포수목원에 “Arboretum Distinguished for Merits”의 내용을 동판에 새겨 수여하여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함.

○ 우리나라 수목원의 모태인 천리포수목원은 우리나라 첫 사립수목원으로, 1962년 9,000㎡의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디었음. 이는 1999년 5월에 출발한 포천의 광릉수목원을 국립수목원으로 승격한 것보다 29년 앞서 설립한 것임.

○ 당시에는 매우 척박한 땅이었으나, 태안반도와 미기후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수집물이 된 호랑가시나무류와 목련류등 다양한 수목을 키우는데 최적의 장소임 뒤늦게 인식함.

○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토양이 척박한 천리포 바닷가의 모래땅에 정확한 기록과 함께 씨앗과 묘목으로부터 출발한 천리포수목원은 국제학회인 미국호랑가시학회(Holly Society of America)가 벨기에의 Bokrijk Arboretum, 프랑스의Jardin Arboretum 등과 함께 호랑가시나무수목원(Holly Arboretum)으로 지정한 국제적인 유수의 호랑가시나무 전문 수목원임.

○ 천리포수목원은 조성 초기부터 식물의 도입번호(accession number) 시스템의 도입으로 정확한 식물관리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수목원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우리나라 대부분 수목원에서는 아직도 도입할 능력이 되지 못한 실정임.

○ 특히 천리포수목원은 국내·외에서 수목원의 핵심인 조성, 기록유지, 수목원의 특성화, 교육 및 국제교류에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영국왕립원예협회(RHS:Royal Horticultural Society)는 민병갈 설립자에게 1989년 12월에 Veitch Medal을 수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금탑산업훈장과 국립수목원 원내에 박정희 대통령 등 5인과 함께 “숲의 명예전당”에 흉상이 모셔져 있음.

○ 2024년에는 “술 취한 식물학자(Drunken botanists)”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Amy Stewart가 민병갈 박사를 포함한 전 세계의 전설적인 식물수집가 50인을 선정하여 “The tree collectors: the collectors tales of arboreal obsession”를 출간하였음.

○ 1970년에 건축한 목조 한옥인 “해송집”은 건평 94.3㎡, 대지면적 402㎡인 천리포수목원의 탄생과 함께한 건축물을 지닌 의미 깊은 역사적인 공간으로, 이 집의 상량식을 한 해인 1970년 6월 21일을 천리포수목원의 창립 기념일로 함.

○ 해송집은 전통적인 풍수 이론에 입각한 건물의 입지보다는 한옥의 특성과 이용편의를 살리는 등 점차 사라져 가는 한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함.

○ 수목원 설립 초기부터 건립한 한옥, 현재 화계로 이용하는 노단식 돌담 등 수목원 이전의 토지이용에 따른 적극적인 지형 보존, 최신식 유리온실 건축과 관수시설의 설치와 채소밭은 최근 수목원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천리포수목원의 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수목원 초기 부지 내의 온실 등 일부 소실된 시설의 복원 전략이 필요함.

○ 민병갈 박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영국왕립원예협회, 국제수목학회, 국제호랑가시나무학회, 국제동백나무학회 등 관련 기관과 하바드대학 아놀드수목원 등 식물원, 수목원과 교류를 활성화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직원을 자비로 해외의 유명한 식물원, 수목원에 파견하여 연수 기회의 제공으로 인력양성에 노력함.

○ “천리포수목원”, “Carl Ferris Miller” 및 “민병갈”이라는 Keyword로 보아 불모지에 가까웠던 태안반도 지역에 세계적인 자산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우리나라 수목원의 앞날에 등대와 같은 역할로 큰 희망을 주었음.

○ 매우 독창적인 천리포수목원과 같은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취지에 부합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수목원의 발전과 사회 기여 및 국제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1) 수목원 관리 기록:

① 식물 기록:

○ 설립 초기부터 식물의 도입, 꺽꽂이, 종자 파종, 온실 관리 또는 식물채집 등 수목원에서 발생한 주요 업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필요한 참고 도면과 함께 빠짐없이 기록함.

○ 우리나라의 식물원과 수목원 중에서 이런 자료를 보유한 곳은 천리포수목원이 유일함.

② 기상관측 기록:

○ 천리포수목원 부지의 지형 요인을 고려하여 6곳에 자동 기상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매일의 강수량, 풍향, 풍속 등 기상관측과 함께 기록을 남겨 천리포수목원의 수목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임.

(2) 건물(해송집)과 원 구입 부지:

○ 1962년에 처음으로 구입한 9,000㎡의 부지 내에 1970년 봄에 서울에서 철거한 고가를 옮긴 대지면적 402㎡, 건평 94.3㎡인 목조 한옥인 “해송 집”은 전통 한옥의 형태를 살려 재건축한 것으로, 이 공간은 천리포수목원 탄생과 발전의 역사적 산실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음. 해송집 주변은 밭으로 쓰던 지형을 그대로 보존과 함께 초기에 정원으로 조성하여 지금에 이름. 따라서 해송집이 위치한 원 부지 9,000㎡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천리포수목원의 가치를 높이는데 시너지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함.

○ 이 외에 개조 및 신축한 8채의 한옥은 천리포수목원의 독특성과 상징성에 큰 의미를 지니며, 이는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을 사랑한 민병갈 박사의 중요한 결과물임.

(3) 수목원의 공간 특성:

○ 천리포수목원은 설립 초기부터 기존의 토지이용과 지형 보존을 크게 염두에 두어 조성하였으며, 이는 미기후의 특성으로 다양한 식물을 키우는데 타 수목원과 비교하여 큰 장점으로 여김.

○ 채소밭과 같은 기존의 토지이용을 살려 실생활에 이용하였으며, 이는 최근에 식물원과 수목원에서 중요한 주제인 kitchen garden의 원조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1) 기록물:

ㅇ 대부분의 서류는 유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함.

ㅇ 모든 사진 자료는 필름 보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

(2) 건물(해송집):

ㅇ 1970년 6월 21일에 상량식을 한 천리포수목원의 첫 한옥임.

ㅇ 주기적인 건물관리로, 현재 다양한 목적의 숙소로 이용하는 등 양호한 상태임.

(3) 수목원의 공간 특성:

ㅇ 천리포수목원의 한정된 공간에 16,000여 분류군을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리포수목원과 주변 지형이 지닌 미기후(microclimate)의 영향이 절대적인 곳임.

ㅇ 따라서 천리포수목원이 출발한 “밀러 가든”은 최대한 동선을 포함한 원 지형 보존의 노력이 크게 필요함.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ㅇ 천리포수목원은 1970년 수목원 조성 이후의 건축물과 각종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 수목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함.

ㅇ 우리나라의 문화역사를 몸으로 사랑한 민병갈 박사가 천리포수목원에 펼친 한옥의 건축 의지를 염두에 두어, 한옥의 경우, 최대한 원형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천리포수목원의 주변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이며, 관할관청인 태안군과 의회도 천리포수목원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큰 관심을 가져 보존관리에 매우 양호한 환경임.

5)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1) 건물(해송집):

ㅇ 건물의 유지관리가 쉽도록 현재와 같이 이용을 활성화함이 바람직함.

ㅇ 건물 외부의 정원은 초기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일부 복원함이 바람직함.

(2) 기록물:

ㅇ 수목원 관리의 핵심인 “기록관리”는 수목원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사회 조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임.

ㅇ 국내의 식물원과 수목원 또는 공원 등의 관리자 교육에 선진사례로 적극 활용함.

(3)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ㅇ 비교적 오지인 태안반도의 끝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은 지역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매우 명성이 높은 수목원임.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나라의 식물원과 수목원의 가치 증진에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견인 요인이 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ㅇ 전 세계 2,500여개의 식물원, 수목원 중에서 학술 연구 및 교육 측면에서 이탈리

아의 파도바식물원(Orto Botanico di Padova, 1997년) 식물수집, 연구 및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영국의 왕립 큐우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Kew, 2003년), 및 열대식물원의 가치로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식물원(SingaporeBotanic Gardens, 2015년) 등 3개소를 UNESCO의 World Heritage Site로 지정한 바 있음.

- ㅇ 우리나라 식물원과 수목원은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이는 시간이 지나면 결코 보완할 수 없음.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아 천리포수목원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사례로, 우리나라 식물원과 수목원의 큰 자랑임.
- ㅇ 천리포수목원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은 UNESCO의 World Heritage Site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물원과 수목원 분야에서 초유의 일로, 이는 국가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일임.

7) 등록가치의견

- ㅇ 천리포수목원의 조성과 함께 천리포의 자연환경 보전에 심혈을 기울인 민병갈 박사가 남긴 건축물과 기록물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상실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되돌아보는 중요하고 귀중한 증거임.
- ㅇ 세계유산인 “조선왕조실록”으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는 특히 해방이후 식물원과 수목원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기록문화의 명성을 되찾는 노력의 하나로 천리포수목원의 가옥과 기록물은 큰 의미를 지님.
- ㅇ 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식물 관련 대학의 도서관과 비교하여 꽤 좋은 민병갈식물도서관(Carl Ferris Miller Botanical Library)을 운영 중이며, 민병갈 박사가 1945년에 우리나라에 진주한 이후 남긴 매우 희귀한 영상자료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과거 기록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이 시설에 보관, 관리 중임.
- ㅇ 현재 상황에서 보아 천리포수목원의 역사와 함께해온 해송집과 그간 관리, 보유해 온 각종 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크게 부합하기에 등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ㅇ “태안 천리포수목원 민병갈 가옥 및 기록물” 또는 “태안천리포수목원 기록물 및 민병갈 가옥”으로 중 택일함이 바람직함.

9) 참고문헌

- ㅇ 민병갈. 2021. 나무를 심는 사람. 김영사. 576쪽.
- ㅇ 임준수. 2012. 나무야 미안해. 해누리. 325쪽.
- ㅇ 임준수·류기성. 200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김영사. 207쪽.
- ㅇ He, S. A., Z. Zhang & Y. Gu. 2016. Chollipo Arboretum. In Phytohortology, p. 89, 96, 97, 110, 113 & 665. Science Press, Beijing. 814pp.
- ㅇ Hill, P. 1987. A diversity of hollies. Arnoldia 47(1): 2-13.
- ㅇ Kim, Y. S. 2018. Introduction to Chollipo Arboretum Foundation. Hortus

Botanicus (International Journal of Botanic Gardens) 13: 23-36.
○ Kim, Y. S. & C. H. Choi. 2021. Magnolias in the Chollipo Arboretum and Republic of Korea. Vestinik 103: 101-111.
○ Kim, Y. S. 2022. Hollies in the Chollipo Arboretum and Korea. Keynote Speech. Building a Green, Healthy and Resilience Future with Forests. 2-6 May 2022, Congress of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Organization, COEX, Seoul, Republic of Korea.
○ Stewart, A. 2024. The expatriate -Carl Ferris Miller. In The tree Collectors: tales of arboreal obsession. p. 281-284. Random House, USA.

첨부 1 **이의제기 관련 내용**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천리포수목원의 기록물은 국가유산지정은 안된다.
작성자	황**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180

한국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곳.
천리포수목원의 기록들이 문화재가 되어 기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1960~70년대 한반도의 많은 토종 종자들을
미군 GMC트럭으로 빼돌리고, 다시 외교행랑에 실려
미국으로 불법 밀반출(한국을 도난 도륙)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KBS의 고발 다큐로 약 50분 동안 방송되었다.

한반도의 토종 식물 종자들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현재 미국의 식물 종자 개량및 미국의 종자 자원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실을 아는가?

천리포수목원의 과거는 (현재도 진실을 파악해봐야한다)
한국의 종자를 밀반출한 기지역활을 한곳이다.
이 곳의 기록물을 문화재로 한다면
도둑질 해서 해외에 빼돌린 것을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한다"는 밖에 안된다.

당장 철회하기바란다.
또 이 사실을 기획한 담당자도 문책하기 바란다.

식물학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확인도 없이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가?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큰일이 날것이다.

첨부 2 **의견서 내용**

의 견 서

의 견 제출인	성 명 (법인 · 단체명)	
	주 소	충청남도 태안군 천리포 1길
	연 락 처	

내 용

이번 등록예고문에 기재된 기록물의 제작연대 '1946년 ~ 1989년' 중, 1946년은 천리포수목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시기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구분	등록예고	의견
제작연대	1946년~1989년	1962년~1989년

1946년은 천리포수목원 설립자인 민병갈(Carl Ferris Miller) 선생의 개인적 이력과는 연관될 수 있으나, 천리포수목원 조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서 및 활동은 1962년 토지매입증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기록물의 범위 또한 1962년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962년은 민병갈 선생이 천리포 지역의 첫 토지를 매입한 해로, 실제 수목원 조성 관련 문서의 시작점이기도 하며, 천리포수목원 내부의 공식 연혁에서도 이 시점을 설립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

등록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의견제출인

태안군수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4

4.「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등 6개소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등 6개소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검토(‘26. 3.24.)를 거쳐 필수보존요소로 지정 권고된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등 14개소 중 소유자 동의를 얻은 국가등록문화유산 6개소에 대하여 필수보존요소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대상

번호	국가유산명	소유자 (관리자)	동의여부 (날짜)	필수보존요소 지정 대상
1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국가유산청 (서울시)	동의	1. 명문석 2. 부속실 바닥 타일
2	군산 해망굴	군산시장	동의 (‘26. 4. 6.)	탄흔이 있는 동측면 터널 석재 마감
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시장	동의 (‘26. 4. 6.)	지붕 고측창 및 도머창
4	거창 구 자생의원	거창군수	동의 (‘26. 4.13.)	수술실
5	칠곡 구 왜관성당	000000	동의 (‘26. 4.21.)	곡선형 정면 계단
6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000	동의 (‘26. 5.12.)	1. 정면 출입구 포치 2. 1층 베란다

(2) 필수보존요소 지정사유 등 세부내용

필수보존요소 지정 대상						
번호	국가유산명	지정명칭(안)	수량 위치	지정기준 분류기준	지정사유	비고
1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명문석	1기 우측면 하단	역사적 가치 기술 및 재료	건립 연도 및 주택 명칭이 기록된 일종의 머릿돌로서 그 형식 등이 독특하여 희소성이 인정됨	
		부속실 바닥 타일	1식 1층 관리실 바닥 (장판 아래)	학술적 가치 기술 및 재료	대한제국시기의 덕수궁에서 사용하던 타일과 유사한 것으로, 원형의 타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 희소성이 인정됨	
2	군산 해망굴	탄흔이 있는 동측면 터널 석재 마감	1식 동측 진입부	역사적 가치 기술 및 재료	한국 전쟁의 상흔이 오롯이 남아 있는 증거로서 보존 가치가 있음	
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지붕 고측창 및 도머창	1식 전면 지붕 창호부	예술적 가치 창호 및 장식	지붕의 고측창과 도머창을 활용한 독특한 입면 디자인과 함께 원형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있음	
4	거창 구 자생의원	수술실	1식 1층 내부 수술실	학술적 가치 공간 및 입면	최초 건립 당시 의료원의 기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음	
5	칠곡 구 왜관성당	곡선형 정면 계단	1식 전면 진입부	예술적 가치 공간 및 입면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해 만든 진입계단으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 보존 가치가 있음	
6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정면 출입구 포치	1식 전면 진입부	예술적 가치 공간 및 입면	출입구 포치에 철골구조의 형상을 재해석하여 구성한 독창적인 형태의 기둥 장식이 특징적임	
		1층 베란다	1식 측면 부출입부	예술적 가치 공간 및 입면	소위, 콜로니얼 건축양식에서 차용한 베란다 공간을 일양절충식 가옥에 설치한 것으로서 시대성이 반영된 중요한 건축적 요소로 보존 가치가 있음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6개소 필수보존요소 지정

(4) 추진경과

○ ‘24년 9~12월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사전 기초조사 실시(9개소)

○ ‘25년 5~9월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용역’ 시범조사 실시(12개소)

○ ‘26년 1월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대상 검토’ 자문회의 실시

* 자문위원: OOO, OOO, OOO(문화유산위원)

○ ‘26년 3월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대전육교 (상·하행선)’ 및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은 금회 필수보존요소 지정 권고대상에서 제외함
-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필수보존요소 일부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

1. 중앙홀 코아 내부공간(계단 및 창호 포함)/3. 현관포치(진입경사로, 스크래치 타일 및 코너타일 포함)

○ ‘25년 3~4월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 권고 안내’ 소유자 동의서 징구

- 지자체: 소유자 동의서 공문 제출(군산시 4.6./ 거창시 4.13.)
- 개인 및 단체: 현장* 동의서 제출(단체 4.21./ 개인 5.12.)

* 제도 안내 및 현장 설명 실시

라.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위원 12명 / 원안 가결 12명

<붙임 1> 현황사진첩

○ 국가등록문화유산

1.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2. 군산 해망굴
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4.거창 구 자생의원
5. 칠곡 구 왜관성당	6.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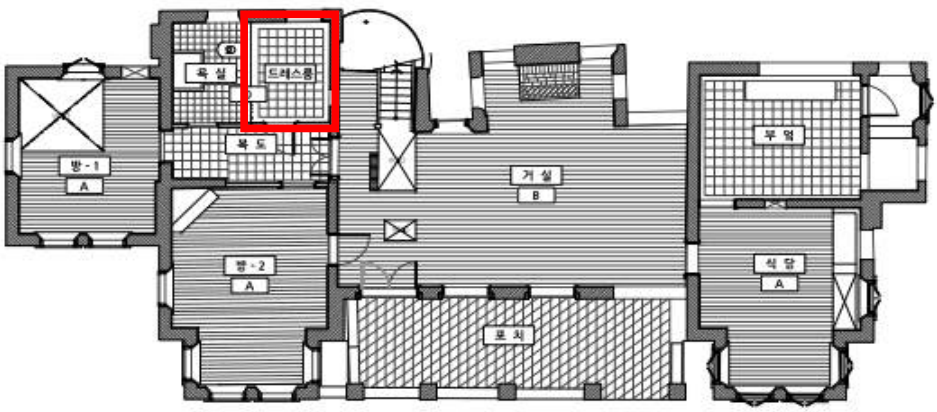
<붙임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1.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 명문석, 바닥타일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우측면도 – 명문석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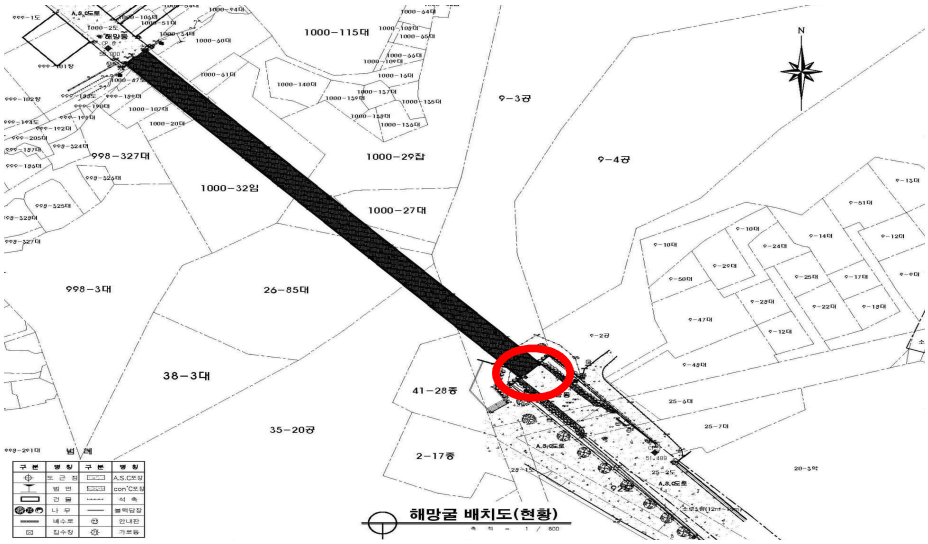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부속실 바닥 타일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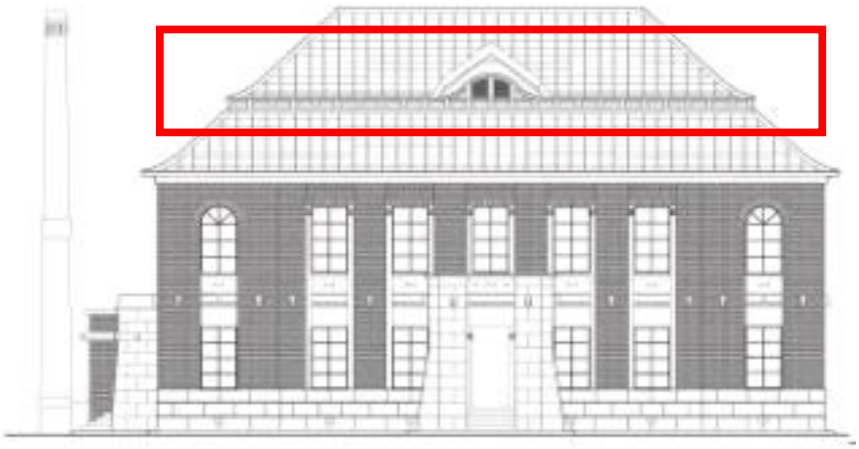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명문석	부속실 바닥 타일(2021, 수리보고서 타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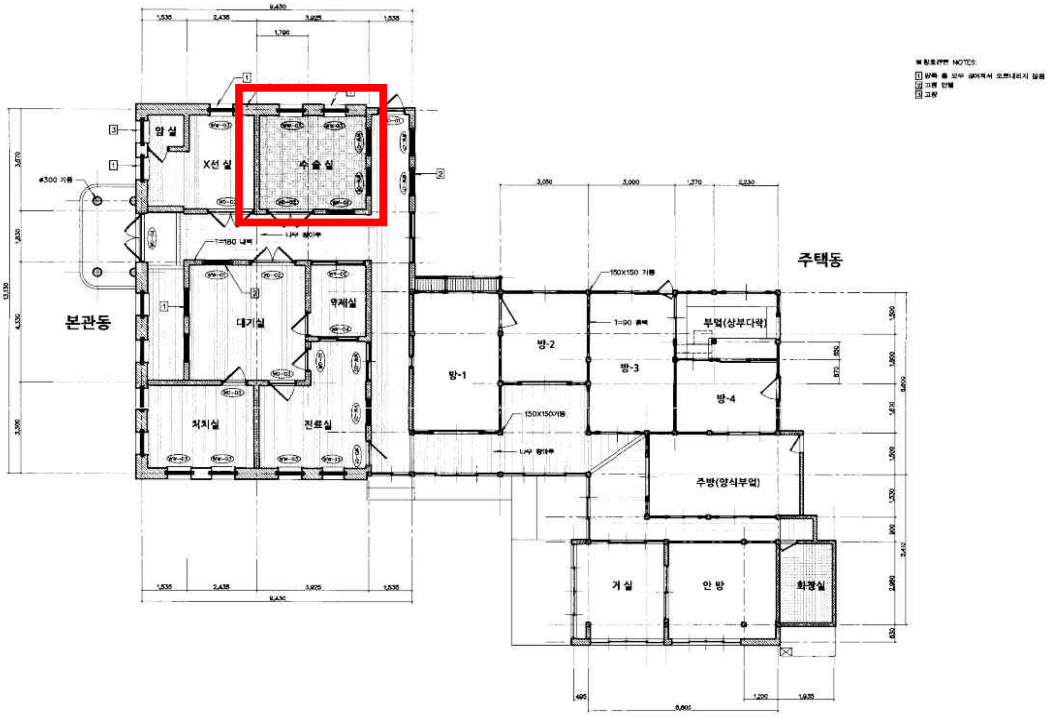
2. 군산 해망굴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평면도 – 동측면 터널 석재 마감 위치
	
	항공사진(동측면 터널 석재 마감 위치)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동측면 터널 석재 마감
	벽체 탄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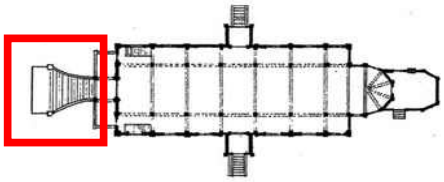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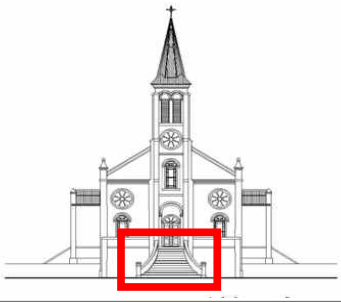
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입면도 - 지붕 고측창 및 도머창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지붕 고측창 및 도머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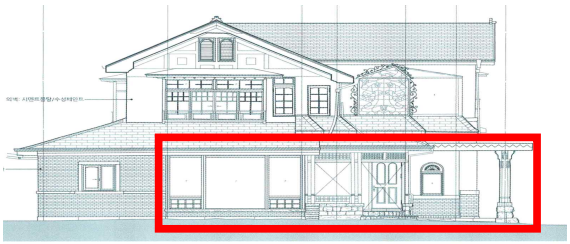
4. 거창 구 자생의원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1층 평면도 – 수술실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수술실 사진

5. 칠곡 구 왜관성당

	지상 1층 평면도 – 곡선형 정면 계단 위치	정면 입면도 – 곡선형 정면 계단 위치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곡선형 정면 계단(정면)	곡선형 정면 계단(측면)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6.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평면도 정면 출입구 포치 1층 베란다 위치	정면도/ 좌측면도 정면 출입구 포치 · 1층 베란다 위치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정면 출입구 포치	
	1층 베란다	

<붙임 3>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6건

(1)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건립연도	1923년(1930년 재건)
소 유 자	국가(국가유산청)	관 리 자	서울특별시	구 조	조적조
현 용 도	전시관	원 용 도	주택	규모·수량[1]	1동(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293.8㎡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1919년 제암리 학살 사건을 보도한 앨버트 테일러 가족이 거주했던 가옥으로당시 서양에서 유입된 근대 주거 형식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유산으로 앨버트의 행적과 생활상이 어린 장소적 가치가 있음. 희소한 벽돌 쌓기 방식, 벽감을 둔 벽난로 등의 기법이 건축적 가치가 있음. 완전한 서양식 주택 구성으로 H자형 평면에 응접실, 식당, 베란다로 이루어진 실구성 모습을 보여줌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정초석 명문, 왕대공트러스	√			√
	공간·입면	입면, H자 평면구성, 포치, 홀, 부엌, 테라스		√		
	기술·재료	벽돌쌓기(공동벽 쌓기), 벽돌(일정하지 않은 규격)		√		√
	창호·장식	창대석 테라조 마감, 바닥 타일 마감(관리실)		√		√
	설비·가구	벽난로(벽감) 및 굴뚝		√		
	환경·기타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정초석 명문	좌측부 하부 석재 마감부(러스티케이션), 1개	<딜쿠샤 1923>명문은 건축 연도 및 주택 명칭의 증거로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보여줌
	벽돌쌓기 (공동벽 방식)	1,2층 벽체 노출부 등 2개소 이상	적벽돌 쌓는 방식(공동벽)은 건축의 전체 구성 및 구조와 공법으로 문화유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
	벽난로 및 굴뚝	2층 우측방(벽난로) 정면 좌측 지붕 굴뚝 각 1개소	벽감이 남아있는 에드워디안 양식의 2층 동쪽 원형 벽난로와 1,2층 벽난로 흔적(노출 벽체)와 연결된 정면 좌측 지붕부 굴뚝(원형)은 주택 생활상 보여줌
	바닥 타일	1층 관리실(옛 드레스룸) 바닥 타일, 1식	건축 내 원형 타일이 재시공된 유일한 부분으로 마감 및 장식적 요소로서 건축 형식의 특성을 보여줌
	창대석 (테라조 마감)	외부 정면 좌측 돌출부(방2,4), 4개소	전면 좌측 돌출부 아치형 창호의 테라조 창대석은 시대적 특성을 보이며 원형이 잘 남아있음

종합의견[9]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은 2017년 등록 이전의 변형과 등록 후 해체복원의 과정을 거친 변화가 있음. 해체복원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완전 해체가 아닌 큰 틀을 유지하고 복원되어 건축 평면, 구조, 기법 등의 요소에는 유산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 대상 건축물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은 등록조사보고서 내 평가되었던 가치가 복원의 과정을 거치며 유산의 가치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원형과 원상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훼손 시 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인물기념의 경우 인물과 관련한 사건 및 기록과 연결된 요소이거나 당시 생활양식 측면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며, 복원 사례의 경우 가치 전달 여부와 원형부 구간을 판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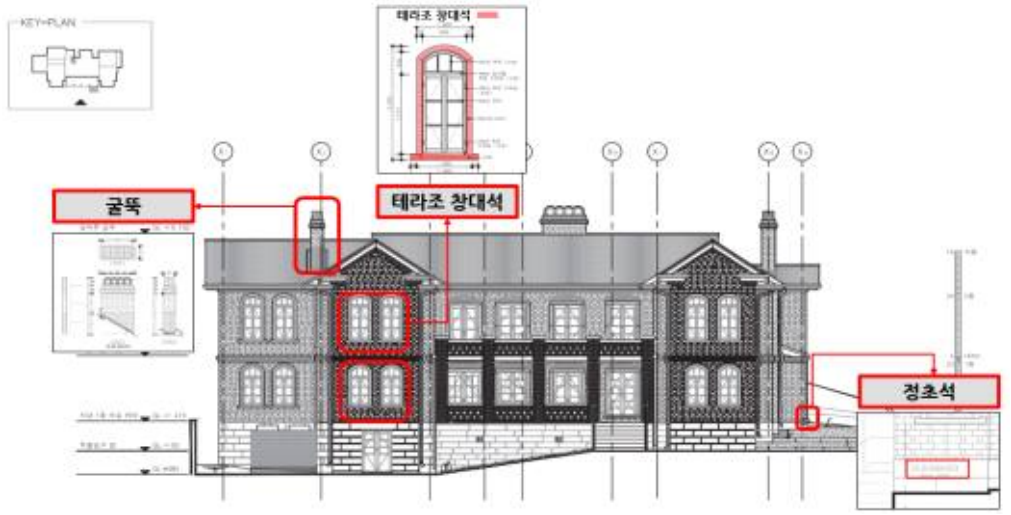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5월 18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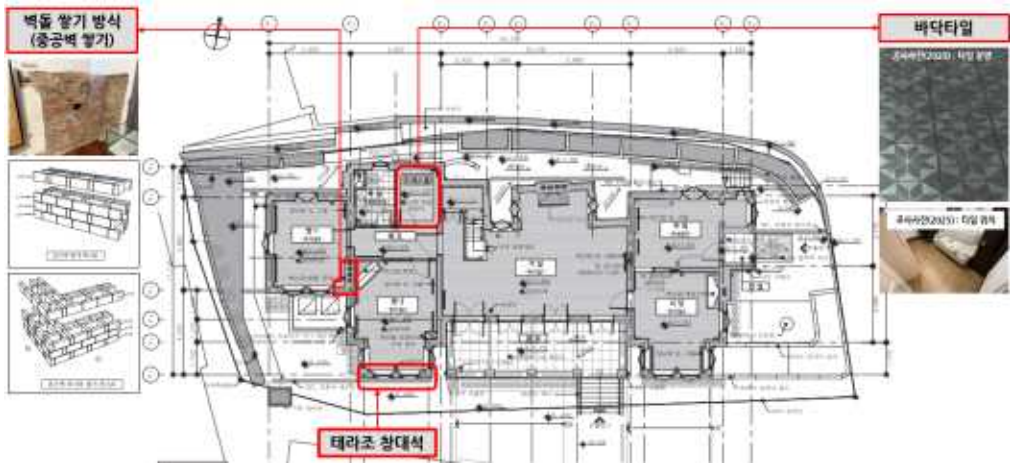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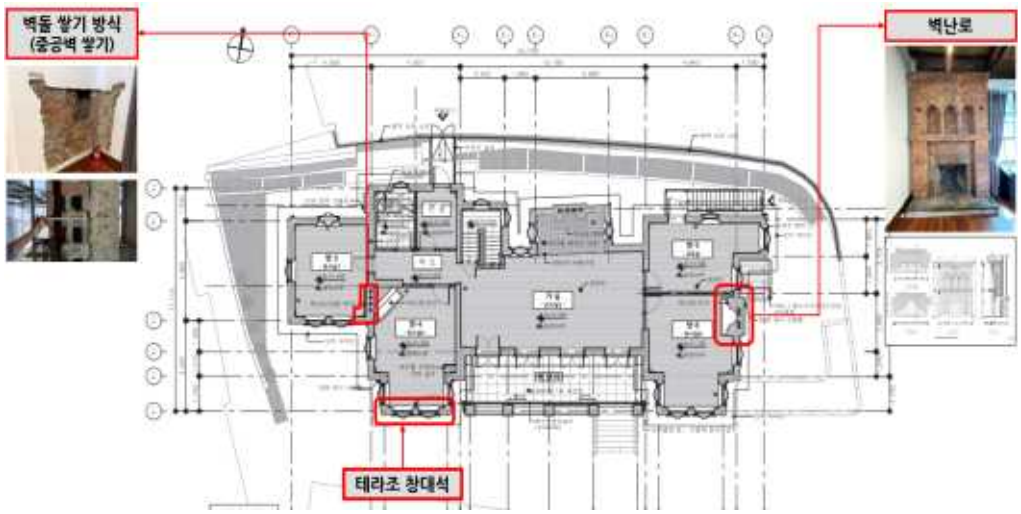
정면도(정초석, 테라조 창대석, 굴뚝 위치)



1층 평면도(중공벽 쌓기, 바닥 타일 위치)



2층 평면도(중공벽 쌓기, 벽난로 위치)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12)]

정초석 명문	벽돌쌓기(공동벽 방식)-1층 벽체 노출전시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벽돌쌓기(공동벽 방식)-2층 벽체 노출전시

벽돌쌓기(공동벽 방식)-2층 전시모형

벽난로

굴뚝

창대석(테라조 마감)

바닥 타일(1층 관리실 장판 아래)

(2021, 수리보고서 타일 사진)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건립연도	1923년
소 유 자	국가(국가유산청)	관 리 자	서울특별시	구 조	조적조
현 용 도	전시관	원 용 도	주택	규모·수량[1]	1동(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293.8㎡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1919년 제암리 학살 사건을 보도한 앨버트 테일러 가족이 거주했던 가옥으로당시 서양에서 유입된 근대 주거 형식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유산으로 앨버트의 행적과 생활상이 어린 장소적 가치가 있음. 희소한 벽돌 쌓기 방식, 벽감을 둔 벽난로 등의 기법이 건축적 가치가 있음. 완전한 서양식 주택 구성으로 H자형 평면에 응접실, 식당, 베란다로 이루어진 실구성 모습을 보여줌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딜쿠샤 명문석(역사적 가치)	√			
	공간·입면					
	기술·재료	중공벽 방식의 벽돌 쌓기	√			
	창호·장식	창문틀, 부속실 타일	√			
	설비·가구	2층 동쪽방 벽난로	√			
	환경·기타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딜쿠샤 명문석	외부 좌측 하단	원형 잔존 부분 중 역사적 가치가 인정됨
	중공벽 방식 벽돌쌓기	-	상동
	벽난로	2층 동쪽방	상동
	부속실 타일	부속실	상동
	창문틀	-	상동

종합의견[9]	딜쿠샤는 1923년 건립의 명문석이 남아 있는 비교적 연대가 명확한 문화유산이지만, 여러 변형을 거쳐 원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복원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건립 당시의 원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대부분 원형 고증에 의해 재건된 사례이다. 이 경우 원형이 남아 있는 부분 이외에 복원된 모습을 필수보존요소로 선정하기 어려우며, 복원 시 비례나 치수, 소재 등에 대한 치밀한 고증이 동반되었다면 선정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여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형이 남아있는 곳 중에서도 중공벽 방식의 벽돌쌓기, 2층 동쪽방 벽난로, 창문틀, 부속실의 타일, 딜쿠샤 명문석 정도가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복원된 부분은 복원 과정에서 면밀한 고증이 이루어졌다고 검증하기 전까지는 필수보존요소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5월 18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건립연도	1923년
소 유 자	국가(국가유산청)	관 리 자	서울특별시	구 조	조적조
현 용 도	전시관	원 용 도	주택	규모·수량[1]	1동(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293.8㎡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1923년 건립된 (벽돌)조적조 주택으로 당 시대상을 나타내는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음. 특히 벽돌을 세워 쌓아 벽돌 면이 외부로 드러나는 소위 '공동벽쌓기' 는 본 문화유산의 두드러진 특징임. 원형복원사업을 통해 실내외 주요 부분의 원형이 회복되었으나 바닥 및 벽난로, 벽체 등의 재료와 상세 등은 고증의 한계로 온전한 원형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수명 연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철골 구조 보강을 해 놓은 상태임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정초석, 기단석, 계단, 지붕 형태	√	√		
	공간·입면	H자의 평면 기본 형태, 배면 연결 브릿지		√		
	기술·재료	재료(붉은벽돌) 및 벽돌쌓기 방식	√	√		
	창호·장식		√			
	설비·가구	원형 벽난로	√	√		
	환경·기타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재료(붉은벽돌) 및 벽돌쌓기 방식	건축물 외부	1926년 이후 복구된 부분이 유지되어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임
	정초석, 기단석, 계단	건축물 외부	상동
	H자의 평면 기본 형태	건축물 내부	상동
	원형 벽난로	건축물 내부	상동
	지붕 형태	지붕부	상동
	건물 배면 지형과 2층 연결 브릿지	건축물 배면	원형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경사지를 활용한 특징 잘 나타내는 요소임

종합의견[9]	본 문화유산은 해방 후 무단 점유 과정을 거치며 내부 공간의 변형이 심했으며, 원형 복원을 통해 이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재현 수준에 그쳐 복원부의 문화유산적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재현된 공간, 의장, 벽난로 등의 장치, 재료 등은 필수보존요소라고 보기 어려움. 1926년 화재 후 복구된 부분이 유지 되고 있는 곳을 본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러내는 필수보존요소라 판단하여 위와 같이 대상을 정리함.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5월 18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2) 군산 해망굴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군산 해망굴			건립연도	1926년
소 유 자	군산시	관 리 자	군산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
현 용 도	터널(이동통로)	원 용 도	터널(이동통로)	규모 · 수량	높이 4.5m, 길이 131m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

일제강점기에는 군산신사와 신사광장(현 서초등학교), 공회당, 도립군산의료원, 안국사(현 흥천사) 등이 인근에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군산 주둔 북한군 지휘본부가 터널 안에 자리하여 연합군 공군기의 공격을 받았던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다.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 · 구조	볼트 구조, 탄흔 있는 벽체	√		√	
	동쪽 및 서쪽 입구의 입면을 형성하는 석축				√
공간 · 입면	아치형 입구의 전면 파사드	√	√		
기술 · 재료	-				
창호 · 장식	-				
설비 · 가구	-				
환경 · 기타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안)	현황(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
동서측 아치형 입구 및 석축	1식, 외부	터널의 아치형 주출입구이자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는 석축부로 주요 구조체에 해당하여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함
터널 콘크리트 볼트 구조	1식, 내부	터널을 형성하고 있는 내부의 콘크리트 볼트 구조로 터널의 주요 구조체에 해당함
탄흔 벽체	1식, 외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지휘소로 사용되어 연합군 공군기 기총 사격 흔적임. 역사적 사건과 연관한 흔적으로 보존이 필요함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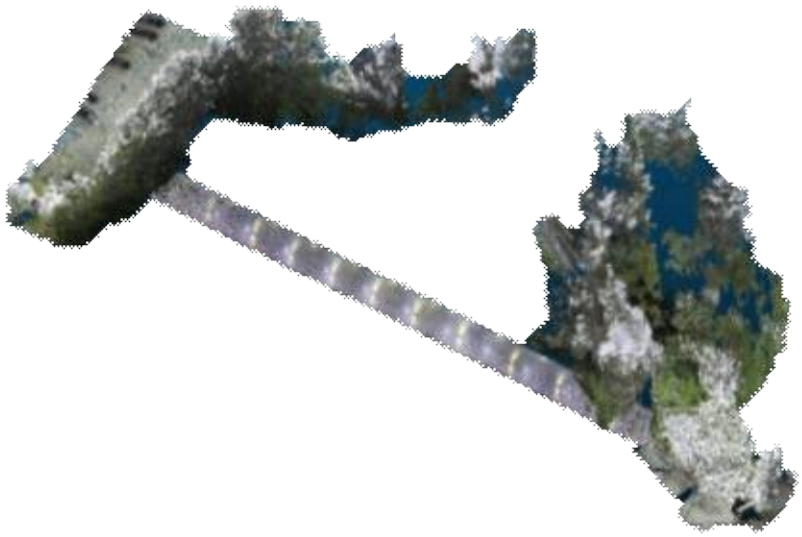
군산 구도심 방향에서의 아치형 입구를 중심으로한 전면 파사드와 군산 내항 쪽에서의 아치형 입구를 중심으로 한 전면 파사드를 필수 보존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두 파사드에서는 6.25 한국 전쟁 시 북한 인민군 지휘소로 사용됨으로서 연합군 공군기들에 의한 기총 사격 흔적 또한 중요하다. 또한 굴을 팔 때 나타난 쪼개어진 암석들의 표면이 당시 혹독한 노동환경을 나타내어주는 것이라 의미가 있으나 지금 현재는 내부 굴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요 구조체 이외에 필수보존요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군산 해망굴의 동쪽 및 서쪽 입구의 입면을 형성하는 석축은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석축에 남아있는 한국 전쟁 기간 중의 탄흔 등도 보존이 필요함

조 사 자	소 속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조사일	2024년 10월 4일 / / 2026년 1월 21일	소 유 자 사전 동의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297㎜[백상지(80g/㎡)]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11)	군산 해망굴 3D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12)	아치형 입구 및 석축	벽체 탄흔
	군산 해망굴 내부	

210㎜×297㎜[백상지(80g/㎡)]

필수보존요소 지정 관련 검토 의견서(군산)

대상문화유산	명 칭	구 조선은행군산지점, 군산 해망굴	종 별	국가등록문화유산	유형분류	
내용	구 조선은행군산지점 및 군산 해망굴 필수보존요소 지정 검토					

■ 조사의견

검토의견	○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해방 후 민간에 매각되어 예식장,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되면서 잦은 증, 개축이 진행되었고 1990년 화재로 인해 내부공간이 소실됨. 이후 방치되었다가 2012년 보수공사를 통해 정면 및 서쪽면 출입구, 서쪽 벽체, 배면 부속공간 슬래브가 복원되었고, 전시시설로 리모델링됨. ○ 최초 신축 당시의 원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남쪽과 동쪽의 벽체와 북쪽 벽체의 일부, 지붕 트러스 구조, 외장재인 타일과 석재 마감, 일부 석재 장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1층과 2층을 구분하는 콘크리트 기둥과 슬래브는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해방 후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건축물의 주된 구조체인 벽체와 지붕 트러스 구조를 제외하고 보존이 필요한 요소는 외장재인 타일과 석재 마감 및 장식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군산시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는 굴뚝도 보존이 필요함. ○ 내부공간의 경우 변형이 많아 필수보존요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 군산 해망굴은 터널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체인 볼트 구조 자체가 필수적인 보존 요소로서 주요 구조체 이외에 필수보존요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 군산 해망굴의 동쪽 및 서쪽 입구의 입면을 형성하는 석축은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석축에 남아있는 한국 전쟁 기간 중의 탄흔 등도 보존이 필요함.
검 토 자	○ 일자 : 2024. 10. 4.(금) ○ 문화유산위원	

필수보존요소 지정 관련 검토 의견서(군산)

대상문화유산	명 칭	군산 해망굴	종 별	국가등록문화유산	유형분류	
내용	군산 장계산을 뚫어 군산 구도심과 군산 내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기 위해 아치형으로 높이 4.5 m, 길이 13 m 의 굴을 뚫어 길을 낸 것.					

■ 조사의견

검토의견	ㅇ 군산 구도심 방향에서의 아치형 입구를 중심으로한 전면 파사드와 군산 내항 쪽에서의 아치형 입구를 중심으로 한 전면 파사드를 필수 보존요소로 지정할 수 있다. ㅇ 한편 이 두 파사드에서는 6.25 한국 전쟁 시 북한 인민군 지휘소로 사용됨으로서 연합군 공군기들에 의한 기총 사격 흔적 또한 중요하다. ㅇ 또한 굴을 팔 때 나타난 쪼개어진 암석들의 표면이 당시 혹독한 노동환경을 나타내어주는 것이라 의미가 있으나 지금 현재는 내부 굴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 토 자	ㅇ 일자 : 2024. 10. 4.(금) ㅇ 문화유산위원 (서명)

필수보존요소 지정 관련 검토 의견서(군산)

대상문화유산	명 칭	군산 해망굴	종 별	국가등록문화유산	유형분류	시설물
검 토 자	ㅇ 일자: 2026. 1. 21.(수) ㅇ 문화유산전문위원 (서명)					

■ 조사의견

검토의견	ㅇ 해망굴은 당시 바닷가(부두)와 원도심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서 축조 기법 등을 통해서 근대기 토목 기술사적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음 -현재는 내부는 새로운 마감재로 교체 되어 원형의 흔적을 잘 살펴볼 수 없으나, 동, 서쪽 입구의 입면을 형성하는 석축은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립연도	1923년
소 유 자	군산시	관 리 자	군산시	구 조	조적조
현 용 도	전시관	원 용 도	업무시설	규모 · 수량	1동 2층 건축면적 586.01㎡, 연면적 1,023.62㎡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	중앙의 돌출된 현관과 양측면 모서리 돌출로 대칭성과 수직성을 강조한 외관은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침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금융시설로 채만식의 '탁류' 에 등장하기도 하는 군산지역 근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대건축물로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음.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 · 구조	지붕 트러스, 남쪽 및 동쪽의 벽체, 북쪽 벽체의 일부	√	√		
	공간 · 입면	2층으로 구성된 외부 파사드(창호 중심)	√	√		
	기술 · 재료	-				
	창호 · 장식	곡선형 도머창 외장재 타일, 석재 마감 및 장식 요소	√	√		
	설비 · 가구	내부 금고, 별도 보관 굴뚝	√			
	환경 · 기타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안)	현황(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
	지붕 트러스 구조	1식, 내부 지붕부	당대 대규모 건축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자료
	파사드 창호	1식, 외부 전면	독특한 은행 입면, 고측창, 도머창 등
	벽체 및 외부 마감재	1식, 외부	구조 외 외장재인 타일과 석재 마감의 장식적 요소 중 원형부 보존이 필요한 부분임
	별도 보관 굴뚝	1기, 군산시 보관	군산시에서 별도 보관 중인 굴뚝 보존 필요
	금고	1개, 내부	건물의 용도 및 기능적 성격을 반영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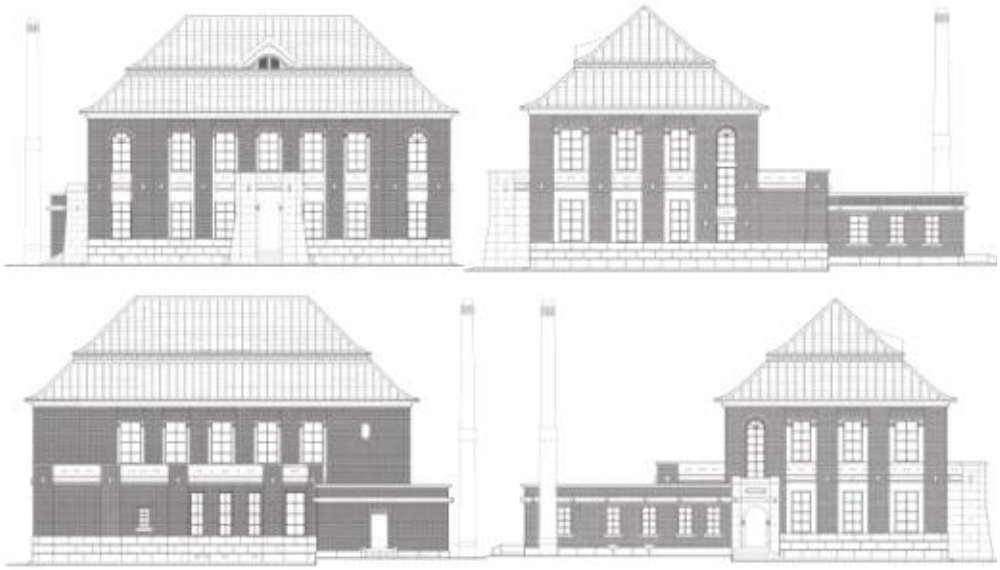
종합의견

-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호를 중심으로 하여 2층으로 구성된 외부 파사드가 독특한 은행의 입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붕의 구성이 가운데 고측창을 두어 2중의 지붕 구성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면지붕 중앙의 반원형 곡선형의 도머창의 입면 효과는 일본건축과 유사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내부에서는 금고부분이 이 건물의 성격을 나타내어주기 때문에 필수 보존 요소라고 생각한다. 조적으로 지붕 내부 트러스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붕 트러스 구조는 당시 대규모 건물을 가능케 한 기술적 자료로서 필수 보존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
- 건축물의 주된 구조체인 벽체와 지붕 트러스 구조를 제외하고 보존이 필요한 요소는 외장재인 타일과 석재 마감 및 장식요소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군산시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는 굴뚝도 보존이 필요함. 내부공간의 경우 변형이 많아 필수보존요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조 사 자	소 속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조사일	2024년 10월 4일/ 2026년 1월 21일	소 유 자 사전 동의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297㎜[백상지(80g/㎡)]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11)	입면도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12)	지붕 트러스 구조	파사드 창호
	1층 벽체 및 금고	벽체 및 외부 마감재

210㎜×297㎜[백상지(80g/㎡)]

필수보존요소 지정 관련 검토 의견서(군산)

대상문화유산	명 칭	군산 조선은행	종 별	국가등록문화유산	유형분류	
내용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하여 1922년 신축한 은행건물로 당시 항구도시 군산의 중요한 입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물					

■ 조사의견

검토의견	ㅇ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호를 중심으로 하여 2층으로 구성된 외부 파사드가 독특한 은행의 입면을 보여주고 있다. ㅇ 지붕의 구성이 가운데 고측창을 두어 2중의 지붕 구성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면지붕 중앙의 반원형 곡선형의 도머창의 입면 효과는 일본건축과 유사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ㅇ 내부에서는 금고부분이 이 건물의 성격을 나타내어주기 때문에 필수 보존 요소라고 생각한다. ㅇ 구조적으로 지붕 내부 트러스가 나타나 있지믄 않지만 지붕 트러스 구조는 당시 대규모 건물을 가능케한 기술적 자료로서 필수 보존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
검 토 자	ㅇ 일자 : 2024. 10. 4.(금) ㅇ 문화유산위원 (서명)	

필수보존요소 지정 관련 검토 의견서(군산)

대상문화유산	명 칭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종 별	국가등록문화유산	유형분류	건축
검 토 자	ㅇ 일자: 2026. 1. 21.(수) ㅇ 문화유산전문위원 (서명)					

■ 조사의견

검토의견	ㅇ 2012년 보수 및 복원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건물의 내·외부에 걸쳐 신축 당시의 모습도 잘 유지하고 있음. -외벽(정면 파사드 및 일부 측면 벽)에 남아 있는 건축 당시의 타일 마감재 -망사르드 지붕 구조(트러스 등) 및 도머창과 고측창 등의 창호 -동 건물이 은행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부 금고실

(4) 거창 구 자생의원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거창 구 자생의원			건립연도	1954년(상량)
소 유 자	거창군	관 리 자	거창군	구 조	병동(1)1954/병동(2)1963 (RC2층 병동은 후대증축)
현 용 도	근대의료박물관 (전시,교육기능 지속)	원 용 도	의료시설	규모·수량[1]	3동,443㎡ [본관+주택328㎡/병동56㎡/병동②59㎡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최초 외과수술을 정착시킨 1세대 외과의사의 활동 무대, 경남 북부권 거점 의료시설의 흔적 보존. 한·일(쇼인주쿠리)·양식 절충의 입면·평면·구조(포치, 세그멘탈(세미)아치창, 멘사드/박공/팔작의 복합 지붕, 마루·복도 결합)의 독창적 공간성. 의료서비스 담당한 집단기억 장소, 현재 전시·문화 공공성 유지. 목조 (코야구미), 인조석 씻어내기와 몰탈 뿜칠등 재료·공법, 수술실·X선실·암실 등 기능 공간원형의 자료성.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러스티케이션 2단 분절, 한·일·양 절충(포치·아치창 vs 한식 외관·대청·툇마루-아궁지(부엌)다락, 일식지붕-창호)		√		
		목조 트러스(코야구미/왕·쌍·달대공) 지붕(멘사드·박공·팔작(일식-기와)·시멘트·슬레이트기와).내림마루 쿠다리무네(降棟)	√			
	공간·입면	평면 본관-주택-병동이 중정을 에워싼 채배치(사적-접객공간으로 진입 후 병원업무영역 연계). 병동 ㄱ자 툇마루와 온돌·아궁이, 본관 T자형 중복도 진료부·처치부·약제부·수술·X선·암실 분절.	√		√	√
	기술·재료	아라이다시(洗い出し)(포치,출입구,창호)		√		
	창호·장식	하부 인조석 씻어내기+ 상부 시멘트 뿜칠의 마감 2단 분절	√			
		전면 포치/멘사드 캐노피, 세미아치창, 세장 목재오르내리창.	√			
		내부 장마루. 수술실·욕실·포치 타일, 인조석씻어내기, 징두리벽	√	√		
	설비·가구	목구조 가구, 온실 흔적(1930년대 유행), 굴뚝(2층 온돌흔적)	√			
	환경·기타	의료 실천 기억(장비,표구,편액)과 공동체 치유 돌봄 상징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본관 포치 및 캐노피	1식, 외부	전면 독창적 공간성, 역사적 학술적가치 있음
	세미 아치창 구성	1식, 외부	전면 세그멘탈 아치창 역사적 학술적 가치
	한·일·양식 절충부	1식, 내외부	서양의 포치,아치창과 한식의 외관,대청,툇마루,아궁지(부엌)다락, 일식의 지붕,창호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 있음
	지붕 형태 및 구성	1식, 외부	멘사드, 박공, 팔작 슬레이트 등 지붕 형태 및 구성에 역사적, 학술적 가치 있음
	T자형 중복도와 복도 및 마루 결합 평면	1식, 내부	본관 이마/츠기노마/자시키가 대청(한식)을 따라 배치 T자형 중복도와 진료·처치·약제·수술·X선·암실의 기능 분절, 병동의 복도·마루가 결합되는 평면이 역사적, 사회적 가치 있음

종합의견[9]	1950년대 지방의료시설 초기 양상을 온전히 보여주는 본관·주택·병동군이 남아있으며, 각 동의 건립연대와 보존상태가 상이해 핵심 구성의 선별 지정이 타당. 개인 의원급으로는 희소한 등록 사례, 한·일·양식 절충의 입면-평면-구조와 중정 경관, 의료기능이 읽히는 실내 체계(사적공간-접객공간으로 들어가면 병원업무영역으로 연계)가 잘 남았음. 전시관 운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외부-내부-환경-무형을 연동한 일체형 필수보존요소 지정이 필요함.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거창 구 자생의원			건립연도	1954~63년
소 유 자	거창군	관 리 자	거창군	구 조	혼합(목조,철근콘크리트조)
현 용 도	전시관	원 용 도	의료시설	규모·수량[1]	3동, 443㎡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상 문화유산 가치[2]	(역사적 가치)성수현 원장은 한국전쟁 참전해 야전 외과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거창과 인근 지역 내 처음으로 외과수술 시작한 한국의 1세대 외과의사, 지역 의료서비스에 기여. (예술적 가치)한,일,양식 건축 복합된 입면,구조,평면을 갖는 공간으로 보는 면마다 다른 경관을 형성하는 독특한 건축공간. (사회적 가치)오랜시간 거창군민에 의료서비스 담당, 집단 기억의 보고. (학술적 가치)해방 이후 건립된 지방된 의료시설로서 건축물과 그 안의 시설 그리고 수집한 표구, 액자들이 학술적 가치가 있음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목구조 가구 구성, 병동 처마	√			√
	공간·입면	평면 구성, 포치, 러스티케이션 입면 구성, 주택동	√	√		√
	기술·재료	목재, 시멘트씻기마감(의료원), 근현대 기술 복합 기법	√	√	√	
	창호·장식	고창, 수술실 등 의료동 창호, 병동 창호	√	√		
	설비·가구	내부 의료 기물 보존			√	√
	환경·기타	기물과 함께 표구, 액자 등 의료시설 기능 및 정신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 (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의료동과 주택동 입면 구성 대비	1식, 외부	목구조 동일, 한·일·양식 복합 입면 지님(의료원 중단 상부 분절아치형태 창호,포치-양식/주택,병동 한식목구조 및 일식 혼합 외형). 의료동,주택,병동 대비 독특한 경관 독창성 있음. 특히 주택동 중정 입면, 의료동 입면은 유산 특징을 잘 보여줘 보존 필요.
	목구조 가구 구성	1식, 내부	복합형식 특성으로 건축 기술 교류, 융합 시대성 지님 특히 뼈대부 일식 목가구 고야쿠미 등 전체구성 보존
	평면 구성	1식, 내부	평면 실배치 복도(일식), 대청(한식) 등 연결 대표성
	수술실 내부 창호	1식, 내부	수술실 밝기 위해 창문 냄. 당시 의료원 기술성 가치
	중정 중심의 배치	1식 외부	3동 각 마당 에워쌈, 한옥 마당 변화 시대, 층위성
	표구, 편액, 내부 기물	1식, 내부	수술실 내부 기물 의료원 대표성, 표구,편액 의료 정신

종합의견[9]	한식, 일식, 양식이 혼합된 형식, 일식 목구조의 지붕가구를 바탕으로 한식의 외관, 양식의 평면 구성, 의료원의 형대식 구성 등의 형식을 갖고 있고 병동, 주택, 의료원의 배치가 중정을 이루고 있음. 수술실의 창문과 주택동의 복도에 면한 고창의 형태가 복합형식인 건축의 속성을 보여주고 내부의 기물들이 잘 남아있어 유산의 기능과 정신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음. 목구조 형식과 의양풍의 형태, 그리고 건물의 배치가 이루고 있는 중정의 경관이 가치가 있다.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특정한 위치의 창호를 특정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어 내부 기물, 공간을 전시에 활용하고 있어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공간, 구조 등의 요소들을 보존할만 함.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거창 구 자생의원			건립연도	1954년
소 유 자	거창군	관 리 자	거창군	구 조	혼합(목조,철근콘크리트조)
현 용 도	근대의료박물관	원 용 도	의원본관,주택,병동	규모·수량[1]	[의원본관+주택]1층:328㎡, 단층병동1:56㎡,병동2:59㎡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사회적 가치) 오랫동안 거창 지역 의료서비스 담당했던 집단기억으로서의 가치, (학술적 가치) 해방 이후 건입된 지방 의료시설로 의원, 주택, 변동 건축물 모두 잘 남아있어 의료사적,건축사적 보존가치 높음. / 본관은 목구조에 시멘트 기와를 얹었으며, 외벽은 적벽돌 조적 위 인조석 씻어내기(하부벽)와 시멘트 몰탈 뿜칠(상부벽), 내벽은 녹재 징두리벽과 상부 회벽으로 마감. 주택은 전통한옥 바탕으로 일본식 및 서양식이 절충된 목조건물, 단층 병동은 각 방(입원실)과 툇마루가 'ㄷ' 자 형태 배치. 복층 병동은 인접했던 주택을 매입해 증축한 건물로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임.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본관 주출입구 맨사드 지붕과 아치형 캐노피, 의원동 측면 지붕 형태(저킨헤드), 지붕 목구조				√
	공간·입면	의원동(대기실, 진료실, X선실(암실), 수술실, 처치실, 약제실), 주택동(방4개, 안방, 거실, 부엌, 주방(양식), 화장실), 병실동(병실), 입원동 2층 난간			√	√
	기술·재료	시멘트기와, 인조석씻기, 시멘트몰탈 뿜칠, 타일, 목재(구조, 마루, 창호)				√
	창호·장식	오르내리기창(의원동), 수직창(상부아치형태), 징두리벽 목재마감, 목재 장마루				√
	설비·가구	-				
	환경·기타	주택동 출입구 남쪽 마당 내 수목, 대문, 마당, 온실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지붕구조(멘사드,저킨헤드)	외부	잘린 박공과 우진각 결합 독특성, 보존필요
	수직창문(오르내리기창)	외부	향후 성능저하 교체 논의 예상, 보존 필요
	지붕 목구조	내부	향후 변형 가능성(취약성) 있어 보존 필요
	징두리 목재마감	내부	상동
	부엌(아궁이)	내부	상동
	대문,마당,온실	주변	상동

종합의견[9]

본 건축물은 등록 전 주택동 일부(주방, 화장실)변형이 이루어졌고, 이후 의료박물관으로써의 활용을 위해 전반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음. 등록조사보고서에 기술되는 모든 요소가 필수보존요소로 도출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기준일까지 확인되는 지정가치는 보존요소로 보고 현재일을 기준으로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변형요소에 대해서 필수보존요소로 도출함. 현재 근대의료박물관으로 활용되면서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등록조사보고서에도 언급되고 있는 보존요소들은 잘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성능저하로 교체에 관한 논의가 예상되는 창호 등은 현 조사에서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등록지정보고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지붕의 형태요소 중 박공과 우진각이 결합된 '잘린 박공지붕' 으로 불리우는 저킨헤드(jerkin head)가 적용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했음.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11)	배치도	1층 평면도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12)	의료동 본관 정면	의료동 배면
	지붕 목구조	징두리벽 목재 마감
	부엌(아궁이)	좌측 창호 및 마당 온실	출입구 남측 마당

210㎜×297㎜[백상지(80g/㎡)]

(5) 칠곡 구 왜관성당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칠곡 구 왜관성당			건립연도	1928년(본당 승격과 함께 건립)
소 유 자	OOOOOOOO	관 리 자	OOOOOOOO	구 조	조적조
현 용 도	종교시설	원 용 도	종교시설(예배 · 미사)	규모·수량[1]	1동, 487.45㎡, 고딕 성당형 본당+종탑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일제강점기 지역 본당의 성립. 6.25 전후 왜관수도원 형성 과정 거점. 1928년 건립 이래 반원아치 창, 첨탑(브로치 스파이어형), 목재 리브 아치·변형 볼트, 스테인드글라스 등 고딕 성당형 요소를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 한국전쟁기 수도원 정착과 연동된 역사적 장소성이 뚜렷함.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익랑 축소된 라틴크로스형 평면, 첨탑형 종탑 전면 결합	√	√		
		파사드:브로치 스파이어형 첨탑, 포치, 외벽 적벽돌 조적	√	√		
		목재 리브 아치, 변형 볼트, 석재 콘솔, 벽감(볼트 변형)	√	√		
	공간·입면	본당-후진축, 제의공간 뒤편 준비실 8각형, 성인상 벽감	√	√		
		전면부 고딕 대표 특성과 함께 곡선형 진입계단		√		
	기술·재료	외부 적벽돌, 내부 목재 리브, 석재 콘솔 원형성	√	√		
	창호·장식	반원아치, 원형창(로즈/오큘라스), 영롱쌓기, 처마 코니스 주두장식	√	√		
		세그멘탈(세미) voussoir 아치창·원형창 체계(스테인드글라스)		√		
	설비·가구	-				
	환경·기타	사제관,본관,영성문화원-수도원군 어루어진 종교적 경관축			√	
		성당으로서 지속 사용, 수도원 미사, 예배 핵심공간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전면 파사드 일괄	1식, 외부 전면	포치, 원형창, 반원아치창, 브로치 스파이어 첨탑 등 파사드 역사성, 예술성 있음
	적벽돌 외벽	1식, 외부	적벽돌 외벽 마감 및 조적(영식 및 영롱쌓기) 등에 역사성, 예술성 있음
	곡선형 진입계단과 난간부	1식, 외부 전면	고딕 대표 특성과 전면 곡선형 진입계단 역사성, 예술성 있음
	후진 목재볼트·리브와 석재 콘솔	1식, 내부 천장 후면	구조 및 의장 해석에 자료적 가치와 역사성, 예술성 있음
	성인상 벽감 및 배치에 따른 볼트 변형부	1식, 내부 천장 후면	구조 및 의장 해석에 자료적 가치와 역사성, 예술성 있음
	지하층 공간	1식, 지하	역사적 공간성 있음
	종 및 타종	1식, 종탑	종과 타종 사회성 있음(설명,운영지침 관리)

종합의견[9]	구 왜관성당은 지역 근현대 가톨릭의 핵심 거점이자, 고딕 성당형의 전형과 희소한 변주(곡선 계단·볼트 변형)가 공존하는 사례이다. 전면 파사드·적벽돌 외벽·창호체계와 본당-후진의 구조·의장, 지하층의 역사적 공간성을 필수보존요소로 할 것.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칠곡 구 왜관성당			건립연도	1928년
소 유 자	OOOOOOOO	관 리 자	OOOOOOOO	구 조	조적조
현 용 도	종교시설	원 용 도	종교시설	규모·수량[1]	1동, 487.45㎡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역사적 가치) 일제강점기 종교 활동 장소이자 한국전쟁시기 대피 장소임 (예술적 가치) 근현대 지어지던 고딕성당의 건축 형식을 갖추고 있고 종교시설로서 경관을 유지하고 있음, (사회적 가치) 성 베네딕트 수도회의 활동 장소, 사회적 활동 활발함, (학술적 가치) 근현대 종교 건축의 증거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브로치스파이어식 첨탑형태의 종탑 원형창 등으로 구성된 전면 파사드와 포치 후진 볼트 형태를 성인상 벽감 배치 고려하여 변형함	√	√		
	공간·입면	후진의 재단 뒤편으로 준비실 8각형 형태 1층 바닥 장선아래 지하층 대피장소 활용, 역사적 의의	√		√	
	기술·재료	적벽돌	√			
	창호·장식	반원형 아치 창호, 원형 창호 난간 영롱쌓기, 처마 코니스의 주두 등의 장식 석재 콘솔, 성인상과 성인상 배치를 위한 벽감 면가공된 목재 리브와 석조 콘솔장식	√	√		
	설비·가구	-				
	환경·기타	사제관 등 주변건물과 어우러진 종교적 경관 종탑의 타종은 종교시설로서의 정신을 이어가는 요소	√	√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전면 파사드 구성	1식, 외부 전면	고딕성당 형식의 대표성. 진입부 계단(나팔처럼 퍼지는 형태)과 영롱쌓기 난간, 돌출된 종합, 원형 창호, 박공형 입면, 스테인드글라스 등 유산의 독창성 지님
	후진 지붕부 목재 볼트와 벽감 구성	1식, 내부 후면 상부	신랑과 측랑에 목재 리브의 아치와 후진 제단에 리브가 교차하며 볼트를 구성하며, 성인상 두기 위한 벽감을 볼트와 같은 높이에 두어 관통하는 듯한 독창성 있는 형태임
	전체 배치와 경관	1식, 주변 배치	성당의 예배공간과 사제들 머물고 지역주민 향유하는 공동체성 가짐. 유산과 사제관, 사무동 등의 부속 건축, 조경이 형성하는 공동체성과 경관 유지 및 보존 필요
	종탑의 종과 타종	종탑부	종탑 상부 내 원형의 종 있으며, 1층에 타종이 가능한 줄 연결되어 있음. 타종은 시간 알림 및 신앙적 정신 무형적 가치 지님

종합의견[9]	구 왜관성당은 사제관을 비롯한 주변건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배치 그리고 진입부의 종탑과 원형 창 적벽돌 장식이 이루는 파사드 공간, 내부의 목재볼트와 성인상 등이 대표성, 독창성, 공동체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한국전쟁으로 일부 파손된 것을 보수한 이후 큰 변형 없이 유지하고 있어 원형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여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할 만하다.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칠곡 구 왜관성당			건립연도	1928년
소 유 자	OOOOOOOO	관 리 자	OOOOOOOO	구 조	조적조
현 용 도	성당(종교시설)	원 용 도	성당(종교시설)	규모·수량[1]	487.45㎡/지하1층,지상1층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북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예배당 건물, 현재까지 원형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첨탑과 함께 반원아치 창호 등이 성당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역사적 가치) 베네딕도회 수도원의 역사적 증거, (사회적 가치) 한국전쟁 이후 임시수도원 사용과 초기 천주교인들 공동의 기억, (학술적 가치) 근대기 성당건축의 설계와 건설 과정 확인 가능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비실리카 양식, 지붕 목구조 트러스	√			√
	공간·입면	중앙부 종탑, 포치, 진입계단, 네이브(중앙통로), 아일(좌우측통로), 앱스	√			√
	기술·재료	붉은 벽돌, 함석(지붕), 목재(리브 등), 불식쌓기, 영롱쌓기	√			√
	창호·장식	아치창, 주출입구(문틀과 문), 난간벽 장식, 베럴볼트를 구성하는 아치, 주두와 받침목	√			√
	설비·가구	-	√			
	환경·기타	한국전쟁 피난처의 역사적 공간	√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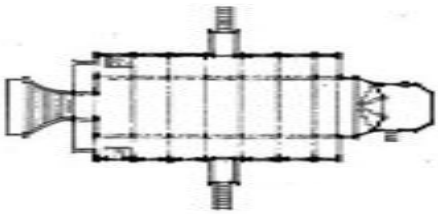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첨탑, 계단, 난간	1식, 외부	종탑부 포치 등 바실리카 양식, 진입계단과 영롱쌓기의 난간벽 장식 보존 가치 있음
	붉은 벽돌	1식, 외부	붉은벽돌은 불식쌓기로 보존 가치 있음
	주출입구 문	1식, 외부	주출입구의 문틀과 문 등 보존 가치 있음
	마루바닥 · 지붕부의 구조와 마감	1식, 내부	지붕 목조트러스 구조와 함석 마감, 마루바닥과 구조 등 보존가치 있음
	네이브, 아일 반원형 베럴볼트 구조 마감	1식, 내부	네이브(중앙통로)와 아일(좌우측통로)의 베럴볼트 구성의 아치부 보존 가치 있음
	베럴볼트 받침목	1식, 내부	베럴볼트 주두와 받침목 보존 가치 있음
	종탑의 종	1개, 내부	원형의 종으로 타종 기능이 유지됨

종합의견[9]	본 조사 건축물은 종교시설 중 근대 시기 천주교 성당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을 제외하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보수 이력 중 지붕 함석부분 수리나, 스테인드글라스 등의 교체가 이뤄진 것을 보면 원재료의 성능 저하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벽돌, 마루와 같은 사용 연한에 한계가 있는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며 지정 검토하였음.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11)	지상 1층 평면도	정면 입면도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12)	외부 첨탑, 적벽돌, 난간 등	외부 계단, 적별돌, 난간 등
	중앙 주출입구 문	외부 우측면 창호 및 출입구 등
	내부 베럴볼트 구조 마감	마루바닥 구조 및 마감

210㎜×297㎜[백상지(80g/㎡)]

(6)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건립연도	1940.1.1.(사용승인)
소 유 자	개인	관 리 자	개인	구 조	목조(절충)
현 용 도	주택	원 용 도	관사	규모·수량[1]	1동(지상 2층), 건축면적 138.8㎡, 연면적 214.5㎡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일본식·서양식 의장과 관공서 관사 성격이 절충된 외관의 현관 캐노피·주두 양식·스테인드글라스·오르내리창과 내부 다다미·도코노마 등 복합양식이 뚜렷함. 서양 주택요소(방갈로와 아트크래프트양식 조합, 포티코 캐노피, 오르내리기창)와 일식 요소(다다미, 도코노마, 오시이레, 카미다나)를 절충한 공관형 주택(기존 문화주택과 같은 표준화에서 탈피), 1층 발코니/온실부, 선룸, 돌출창(데마도), 정면 포티코 기둥/주두 장식, 굴뚝, 응접실 향나무 도코노마 등. 2층에 츠케쇼인, 란마 스테인드글라스 등. 상부구조에서 상량판 확인, 왕대공(king-post) 부재 지지 가구 상량묵서 존재.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왕대공 가구 및 상량판, 적벽돌 조적 및 혼합 마감,	√			√
	공간·입면	엔가와복도, 현관홀(히로마)-응접실 도코노마 축 구성 응접실 도코노마 등(토코바시라, 치가이다나, 다다미, 오시이레, 츠케쇼인, 란마)	√			√
		계단참과 난간	√			
		포티코캐노피, 아트크래프트/방갈로풍 외관				
	기술·재료	-				
	창호·장식	오르내리창(아게사게마도), 데마도 돌출창, 현관 고정창 스테인드글라스, 기둥 주두 장식	√	√		
	설비·가구	굴뚝 및 연도시설				√
	환경·기타	마당 석물과 조경, 담장/문 등 주변 환경 요소	√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 (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정면 현관 캐노피 및 기둥 · 주두 장식	1식, 전면	정면 출입구부의 캐노피, 기둥 상부 주두(장식 포함). 외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의장 · 기술사적 가치 큼(역사성, 예술성)
	오르내리창(상하창)	1식, 외벽	외벽 전반 상하창과 관련 문인방 · 틀 구성(역사성)
	응접실 도코노마 (床の間)	1식, 응접실	응접실 내 일본식 장식벽 · 바닥 · 판벽 포함. 공관형 주택의 접객 위계와 일본식 생활양식 반영. 오시이레(붙박이장) 흔적 - 거실 반대편 복도측 설치 흔적 포함(역사성, 학술성)
	다다미방(2층)	1식, 2층	도코노마, 치가이다나, 란마, 츠케쇼인, 다다미 및 판벽 · 창호 구성. 내부 생활공간(역사성, 예술성)
	상량판(상량묵서) 및 왕대공 부재	1식, 내부	2층 방 종도리 받침 왕대공에 걸린 판재형 상량판. 건립연혁 · 공사주체 · 의례 파악의 1차 사료(역사성)

종합의견[9]	근대기 공공기관 관사로서 서양식 외관요소(캐노피 · 스테인드글라스 · 오르내리창)와 일본식 내부요소(다다미 · 도코노마 · 오시이레)가 결합된 절충형 공관건축의 대표 사례다. 구조부 상량 · 왕대공 등은 연혁 고증의 핵심이며, 정면 캐노피 · 주두 · 창호 체계 · 실내 일본식 의장 등은 원형 및 가치를 보여준다.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9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건립연도	1940년
소 유 자	개인	관 리 자	개인	구 조	목조(절충)
현 용 도	주택	원 용 도	관사, 문화공간	규모·수량[1]	1동(지상 2층), 건축면적 138.8㎡, 연면적 214.5㎡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역사적가치)공공기관 이전 후 군산 원도심 공간 변화 증언, (예술적가치) 일본식과 서양식 복합 양식. (특징) 콜로니얼 베란다, 포치 장식 등 서양건축의 특성과 내부 심벽, 도코노마, 출창 등 일식가옥의 공간을 갖고 있는 복합형식의 독특한 가옥임. 특히 창호의 스테인드 글라스, 포치 장식, 내부의 난마의 목재 장식 등이 상류주택의 모습을 보여주어 이러한 형식의 주택 중에서도 독창적인 형식임. 관사임에도 독특한 주거 형식으로 독창성 가치 있음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목구조, 목구조 부재	√			
	공간·입면	도코노마, 오시이레, 포치, 베란다				
	기술·재료	-	√			
	창호·장식	외벽 마감, 포치 장식, 오르내리창, 스테인드글라스, 란마	√			
	설비·가구	-	√			
	환경·기타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 (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외벽 마감	1식, 외부	하부 러스티케이션 벽체, 코니스로 이루어진 삼단 구성을 인조석, 시멘트 이용한 근현대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그 시대의 기술을 보여주는 기술성의 가치가 있음
	스테인드글라스	1식, 내부(응접실)	1층 응접실 오르내리창의 상부에 스테인드글라스가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그 시대의 건축의 기술성을 보여주며 독창적인 외관을 구성하는 독창성의 가치가 있음
	포치 장식	1식, 외부(포치)	현관 포치의 기둥 장식은 철골구조의 형상을 재해석하여 구성한 독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가치가 있음
	다다미방과 도코노마, 츠케쇼인	1식, 2층 내부	2층 다다미방에 다다미와 도코노마, 츠키조엔, 돌출창 등의 일본식가옥의 공간이 남아있음 외부 양식 건축과 같은 형태와 대비되어 유산의 독특한 공간을 만드는 요소로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여 변경에 대한 검토 필요
	란마	1식, 내부	일본식 가옥의 란마(방과 복도 사이 벽)가 잘 남아있으며 목재 장식이 되어 있음. 유산만의 독창성의 가치를 보이고 있고 희소성이 있어 필수보존요소로 지정 필요
	베란다	1식, 내외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의 콜로니얼 건축들에서 유럽식 건축요소를 차용하여 두는 공간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특징. 해당 유산에서도 현관 앞에 베란다를 두고 목재 장식, 유산의 외부에서 경관을 이루고 있어 가치 있음

종합의견[9]	일본식가옥과 양식 가옥의 형태가 대비되는 유산의 특성을 보여주는 도코노마를 포함한 다다미방 그리고 포치장식, 스테인드글라스와 베란다 등의 요소들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여 유산의 독창성의 가치를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9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건립연도	1940년(추정)
소 유 자	개인	관 리 자	개인	구 조	목조(절충)
현 용 도	단독주택	원 용 도	관사	규모·수량[1]	1동(지상 2층), 건축면적 138.8㎡, 연면적 214.5㎡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상 문화유산 가치[2]	(등록 가치)근대기 공공기관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 일반적으로 관사가 표준화된 형식을 따르는 반면 이 주택은 규모가 큰 저택으로 일본식과 서양식 화려한 세부 표현기법 잘 남아있음. 일제강점기 영향 받은 군산지역 일식주택 내 서양식 특성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 있음. 1940년대 건축된 일본식 양식과 서양식 건축양식을 갖는 목조 2층 주택이며, 군산 원도심에 잔존하는 주택 중에서 중규모의 가옥으로 지붕구성과 현관 캐노피, 평면배치 등에서 서양식 주택 양식을 보이며, 내부에서는 일본식 주택의 특징 요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ㄱ자 경사지붕(목조트러스), 목구조, (치장)조적	√	√		
	공간·입면	ㄱ자 평면, 복도 중심 실구성, 캐노피(현관), 베란다, 캐노피(기둥상부주두장식포함), 응접실마루방, 도코노마, 다다미방, 목조계단(디딤판), 반침(오시이레)	√	√		
	기술·재료	붉은벽돌, 몰탈뿜칠, 화강석	√			
	창호·장식	오르내리기창(응접실), 스테인드글라스(고정창), 1층 응접실 도코노마 (문양)기둥	√			√
	설비·가구		√			
	환경·기타	전면 도로변 담장과 대문, 수공간, 석물		√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주출입구 캐노피	1식, 외부	주출입구(현관) 캐노피(마감재와 장식포함)
	부출입구 베란다와 비늘판벽	1식, 외부	부출입구 베란다(구조틀과 마감재포함), 측면 비늘판벽
	눈썹지붕	1식, 외부(2층)	2층 눈썹지붕
	붉은벽돌	1식, 외부(1층)	1층 하인방 아래 붉은벽돌
	응접실 오르내리기 창호	1식, 내외부(1층)	1층 응접실 오르내리기 창호
	지붕 목조트러스	1식, 내부	지붕 목재구조(트러스)
	스테인드글라스	1식, 내부	상부 고정창 스테인드글라스
	복도 마루	1식, 내부(1층)	1층 복도 마루틀과 마루널(점검구)
	도코노마, 오시이레, 란마	1식, 내부(2층)	2층방 도코노마, 오시이레, 란마
	담장과 대문	1식, 정면 진입부	주변요소로 정면 진입부 담장과 대문

종합의견[9]	본 건축물은 현재도 주택으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잘 보존하려고 하고 있지만, 향후에 생길지 모르는 재해나 건축자재의 사용성능 저하로 변경, 교체가 필요할 때 보존요소와 필수보존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였음. 전면도로에 접한 담장과 대문과 같은 경우도 향후에 주차수요 문제로 철거하고 주차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필수보존요소로 판단함.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5년 7월 29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11]	위치도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12]	주출입구 캐노피	부출입구 베란다
	2층 눈썹지붕	1층 하인방 아래 붉은벽돌

210㎜×297㎜[백상지(80g/㎡)]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 11)	정면 입면도	좌측 입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 12)	1층 장식	1층 응접실 오르내리기창
	1층 복도	1층 복도 마루구조
	2층 란마	담장 및 대문

210㎜×297㎜[백상지(80g/㎡)]

일반심의사항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5

5. 국가등록문화유산「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종합정비계획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국가등록문화유산「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의 종합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의 종합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5년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종합정비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부평 미쓰비시 줄사택」('24.8.8. 등록)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285 외 33필지

○ 소 유 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등록면적 : 대지면적 1,329㎡(34필지)

(2) 종합정비계획 추진경과

○ 2025. 08. 20. : 용역 착수

○ 2025. 12. 15. : 용역 중간보고

○ 2025. 12. 18. : 주민소통간담회

○ 2025. 12. 29. : 주민설명회

○ 2026. 04. 09. : 용역 최종보고

(3) 종합정비계획 주요내용

○ 사업 여건 분석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정비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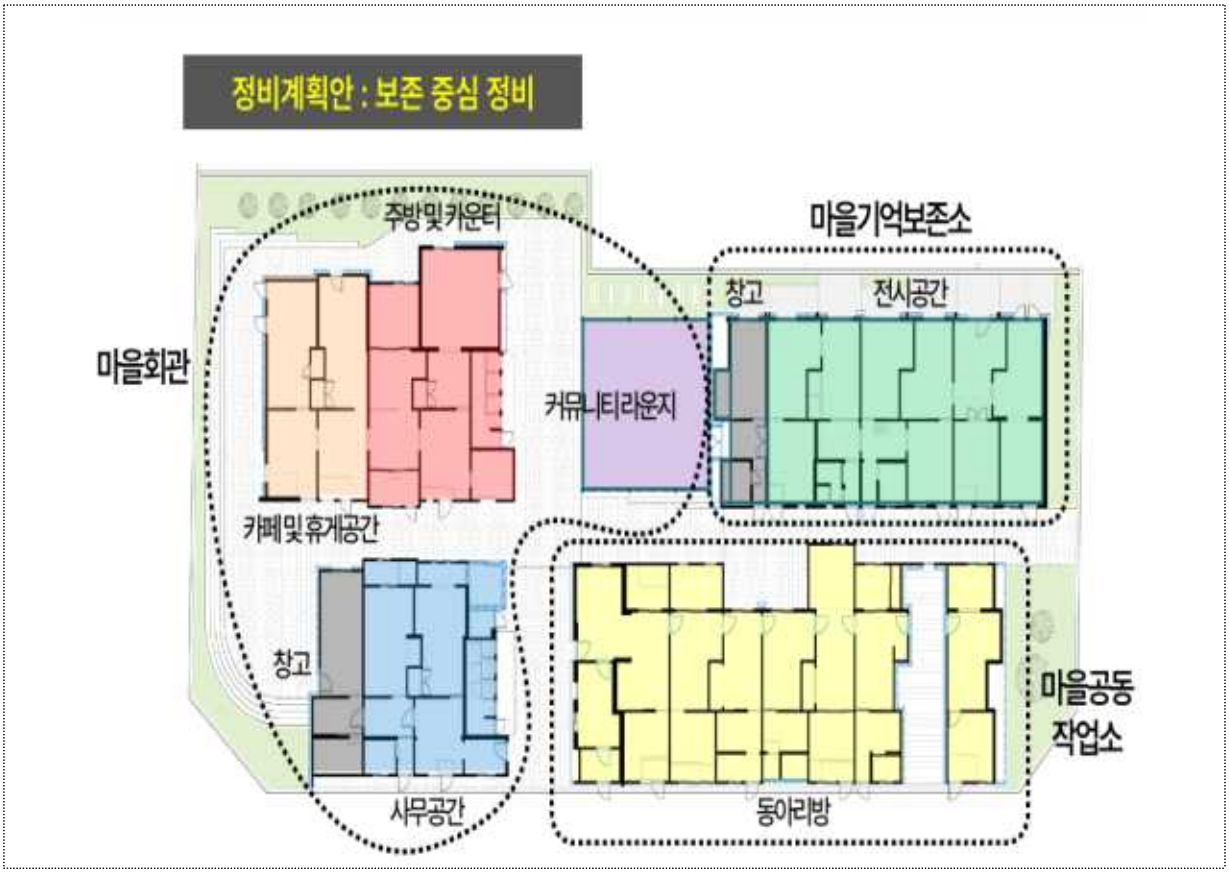
- 원형·증축부 분석

구분	**보존 범위** ※ 건축물 등록 예정 범위	**우선 철거 범위**
내용	① 잔존 원형부 ② 유의미한 증축부	① 무단 단순 증축부 철거 ② 붕괴세대 ③ 건축선에 저촉되는 증축부

○ 종합정비계획(안)

- 활용 용도 설정 : ‘삼릉 문화의 집’(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 세부 용도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기억보존소 등



○ 사업 추진 계획

사업구분		세부 추진 사항
단기계획	1단계 (2026년)	건축물 긴급정비 시행(안전조치, 폐기물 반출, 유구 확인 등)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정비(건축물의 등록 추진)
	2단계 (2027년)	정밀안전진단 및 종합정비를 위한 설계 추진
중기계획	3단계 (2028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수리·정비
		활용계획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문화유산 활용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마련
	4단계 (2029년)	대상지 내 조경계획(바닥포장 및 조명설치, 사인물 제작 등)
		홍보방안 마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실시
장기계획	주변정비	미등록 줄사택 활용방안 마련
		인접 도로 개선사업 추진

라. 현지조사 및 검토 의견(문화유산위원 OOO, OOO / '26.5.7.)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정비계획'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공간단위의 유산 내 주요 건축물, 공간(가로와 골목 등) 구성, 역사적 맥락, 경관 및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사 범위 내에서 공간의 역사성과 물리적 구성요소, 설비적인

요소의 잔존 상태, 문화유산적 가치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등록 범위로 제시한 개별 건축물의 보존 범위는 문화유산적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용역 단계에서 육안조사 및 문헌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건축물의 경우 내부구조, 원형 부재, 마감층, 증개축 흔적, 기초 및 구조부 상태 등은 해체 또는 부분 철거 이후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공간 내 물리적 요소를 대상으로 최종적인 문화유산적 가치판단과 보존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원형성 유지 여부 및 구조와 부재의 상태 등에 대해서 심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심화조사 과정은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당위성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정이면서도, 당초 문화유산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지역사회와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해당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기 의견은 해당 유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상태는 건축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유산의 열화 및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위원 13명 / 원안 가결 11명 / 제척 2명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6

6. 「안동의소파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심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소장 「안동의소파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소장 「안동의소파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24.12.3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6.4.1.)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2)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연도	소유자	보관장소	소재지
안동의소파록	1점	20×52.6	1895년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4) 추진경과

○ ('24.12.31.)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경상북도 → 국가유산청)

○ ('26. 4. 1.)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유산위원 OOO('26.4.1.)

- 을미의병 당시 안동의병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기존에 알려진 일기류 자료의 한계를 넘어 안동의병의 전체적인 지휘 편제와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로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 문화유산전문위원 OOO('26.4.1.)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 은 안동 전기 의병, 곧 을미-병신의병이 본격화

되던 1895년 12월 무렵 작성된 안동의병 지휘부 편성 문서로. 문서에는 총 27개 직임과 46인의 인명이 수록되어 있음. 이를 통해 당시 의병의 인적 구성과 지휘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줌. 따라서 이 자료는 안동 의병의 조직 실상과 초기 항쟁 전개를 입증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이면서, 의병운동의 실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 평가됨.

ㅇ 문화유산전문위원 OOO('26.4.1.)

-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12월(음) 조직된 안동의병의 지휘체계와 임원명단을 수록한 문서임. 안동의병의 봉기 당시 지휘체계와 의병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안동의병과 관련된 다른 자료를 통해 작성 시점, 직책과 임원명단이 확인됨. 안동의병의 봉기 당시 지휘체계와 의병장 명단이 대부분 수록된 유일한 자료라는 점, 안동의병 봉기 당시 의병장 46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 가결

ㅇ 출석위원 13명 / 원안 가결 13명

<붙임>

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안동의소파록
2.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3. 소 유 자 :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4. 제작연도 : 1895년
5. 유물현황 : 1점
6. 재　　질 : 종이
7. 규　　격 : (세로) 20㎝ × (가로) 52.6㎝
8. 조사자 의견('26.4.1.)

<문화유산위원 OOO>

1) 개요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1895년 12월(음력) 을미의병 당시 안동의소(安東義所)에서 작성한 파록(爬錄) 1장임. 의소(義所)는 의병을 논의하고 일으키기 위해 결성한 집단이나 장소를 의미하며 파록(爬錄)은 어느 특정 사안을 실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나누어 해당하는 직임에 임명하는(爬) 기록(錄)으로 본 유물은 안동 지역에서 의병을 논의하고 이를 주도한 집단의 27개 직임과 46인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세로 20.0, 가로 52.6 cm의 크기로.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안동의진(安東義陣)의 직책과 명단을 기록한 고문서 1점임. 등록문화유산 신청 시 '1축'으로 표기하였으나 확인 결과 낱장 형태임.

○ 작성 방법은 우측 상단부터 좌측방향으로 적은 후, 다시 하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어지며 권인술(權仁述)의 경우 유격장(遊擊將) 김회락(金繪洛)의 왼쪽에 표시를 하고 추기함.

○ 직책은 모두 27개로 대장(大將), 부장(副將), 참모(參謀), 내방장(內防將), 외방장(外防將), 좌익장(左翼將), 우익장(右翼將), 전봉장(前鋒將), 돌격장(突擊將), 유격장(遊擊將), 석격장(石擊將), 척후장(斥堠將), 초모장(招募將), 도서기(都書記), 서기(書記), 정제유사(整齊有司), 종사관(從事官), 출령(出令), 중군(中軍), 관량(管糧), 관재(管財), 모병(募兵)-도감유사(都監有司), 모량(募糧)-도감유사(都監有司), 사병(司兵)-도총유사(都摠有司), 행부상도총(行負商都摠), 군문도총(軍門都摠), 직일(直日) 순임.

○ 인물은 대장 權世淵를 비롯하여, 郭鍾錫, 柳淵博, 李相基, 柳善榮, 權炳鍾, 金震林, 金鎭懿, 姜鐔, 柳膺睦, 李運鎬, 權用鉉, 金翼張, 權鎭淳, 金繪洛, 權仁述, 權在鍾, 金鴻洛, 權玉淵, 柳廷鎬, 李琥, 柳必永, 姜璜, 李廷佐, 李雲九, 金夏林, 金縉輝,

柳淵楫, 金翰洛, 李鍾萬, 李性求, 柳晦植, 金周秉, 金潤模, 李萬求, 李重三, 金瑞洛, 柳昌植, 柳憲鎬, 金浩洛, 柳琓, 金鍾淵, 金恒洛, 權敦淵, 姜鳳元, 李壽炳으로 46명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문서는 배접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습기로 인한 손상과 곰팡이의 흔적이 있고 우측 하단 일부 결실이 있음. 내용을 판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음.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5)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 소장기관의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의병사, 지역사 자료로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을미의병 당시 안동의병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기존에 알려진 일기류 자료의 한계를 넘어 안동의병의 전체적인 지휘 편제와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로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인 박한설이 수집해 보관하다 2007년 기증한 자료임.

○ 명칭은 문서 제목인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으로 함.

9) 참고문헌

○ 박한설(2006). 初期 安東義兵의 任員名單 "安東義所爬錄" 에 關하여. 안동사학 11, 137-150.

○ 문화재청(2014). 근대문화유산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유산전문위원 OOO>

1) 개요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 은 안동 전기 의병, 곧 을미-병신의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895년 12월 무렵 작성된 안동의병 지휘부의 편성 문서임.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 은 총 27개 직임과 46인의 인명이 수록되어 있음. 의병 항쟁의 인적 구성과 지휘 체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병의 활동과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안동 전기 의병, 곧 을미-병신의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895년 12월 무렵 작성된 안동의병 지휘부 편성 문서임. 이 문서는 의병 항쟁이 실제로 조직되고 실행되는 시점의 인적 구성과 지휘 체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로서, 단순한 명단을 넘어 의병의 실질적 출발 장면을 증언하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가로 52.6㎝, 세로 20㎝의 한지 위에, 상하 2단 형식으로 각기 직임과 인명을 필사한 문서임. 제목은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으며, 상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단은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명단이 배열되어 있음.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총 27개 직임과 46인의 인명이 수록되어 있음. 대장, 부장, 참모, 좌익장, 우익장, 전봉장, 돌격장, 유격장, 척후장, 초모장, 도서기, 서기 등 군사적·행정적 직임이 두루 확인되며, 이것은 의병이 단순한 자발적 집합을 넘어 일정한 지휘 체계와 분업 구조를 갖추고 운영되었음을 보여줌.

○ 수록 인물의 성씨와 가문 구성을 보면 권씨, 김씨, 류씨, 이씨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안동과 봉화 일대의 유력 문중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음. 이는 안동의병이 특정 개인의 거사가 아니라, 지역 사족 사회와 학맥, 문중 네트워크를 토대로 형성된 집단적 항쟁이었음을 입증하는 단서가 됨. 특히 다수 인물이 퇴계학파 및 정재 류치명 문도와 관련된다는 점은, 의병이 단순한 무장 저항을 넘어 유교적 명분과 실천 윤리에 기반한 행동이었음을 잘 보여줌.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단순한 명부가 아니라 안동 의병의 조직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로, 의병 항쟁의 실물 기록으로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 자료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

○ 하지만 해당 자료는 원본을 다시 배접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을 위한 새로운 처리가 필요한 상황임.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현재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음.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여건이 일반 개인 소장 자료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됨.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은 '안동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성과 긴밀히 연결된 공간이면서, 해당 장소는 안동 의병의 주축을 이루었던 지역 중요 가문 사족 사회가 살던 곳임. 따라서 이곳은 해당 유물을 보존하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 독립운동 유적, 관련 문중 유산, 기념관 전시 콘텐츠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 문화유산 활용 여건 또한 양호하다고 판단됨.

5)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안동 의병의 조직과 참여 인물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지역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한국 의병운동사에서도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교육적 활용 가능성도 높음. 초중등 역사 교육, 대학 교양교육, 시민강좌, 독립운동사 해설 프로그램 등에서 “의병이 어떻게 조직되었는가”를 설명하는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단순히 항일 정신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명단과 직임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 대응 조직을 꾸렸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유익함.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현대어 해설, 인물 정보, 지역 지도, 계보도, 전투 전개도 등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의병 활동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라 판단됨.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지역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도 가능함. 내앞마을, 안동 의병 관련 유적,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묶은 답사 프로그램 속에서 이 유물을 핵심 해설 자료로 삼으면, 안동의 독립운동사를 장소성과 함께 체험하도록 구성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근대시기 항일(抗日) 문서 유산 가운데서도 ‘의병 조직 편성 문서’라는 점에서 성격이 비교적 분명한 자료임. 일반적인 의병 관련 유물이 격문, 통문, 일기, 보고문, 교지, 공문서, 전투 기록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면, 이 자료는 의병 결성 직후의 지휘 체계와 인적 구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특히 의병의 이념이나 전투 결과를 서술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어떤 직임을 맡았는지를 기록한 조직 명부라는 점에서 실무적이고 현장성이 강한 자료임. 이는 의병 연구에서 자주 강조되는 ‘명분’이나 ‘정신’뿐 아니라, 실제 항쟁이 어떤 조직 구조 아래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자료라는 의미를 지님.

○ 또한 안동이라는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의병과 독립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므로, 동일 유형 자료 가운데서도 지역 대표성이 큼.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1895년에 작성된 것으로, 을미의병 초기 단계의 편성 자료라는 점이 분명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첫 국면을 구체적으로 증언함. 따라서 본 자료는 한국 근대 항일운동사의 출발 국면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종합한다면 해당 자료는 자료의 희소성,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 가치가 있음.

○ 먼저,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희소성이 높다. 해당 문서는 안동 전기 의병의 지휘부 조직과 인적 구성을 한 장의 문서 안에 집약하여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서, 의병 결성 시점의 조직 편제를 직접 확인하게 해 주는 점이 중요함.

○ 둘째,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역사성이 뚜렷하다. 1895년 을미의병은 이후 51년에 걸친 한국 독립운동사의 출발 국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이 자료는 그 실제 조직 편성의 현장을 보여줌. 따라서 지역사 차원을 넘어 한국 근대사와 항일운동사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

○ 셋째,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전시·교육·연구 자료로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실물 자료로서 의병운동의 실제,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따라서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로서, 등록 가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은 '안동의'와 '소파록'으로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명칭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안동의소'와 '파록'으로 읽을 수 있는 명칭에 대한 해설이 필요함.

○ 차후 판독문, 번역문, 인물 해설, 관련 전투도 및 의병 연표를 함께 제시하여, 역사 교육의 활용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9) 참고문헌

○ 안동 전기의병의 기록, 「안동의소파록」, 『안동문화』 3월호, 안동필, 2026.

○ 강윤정, 「한말 일제강점기 전주 류씨 삼산문중의 독립운동」, 『국학연구』 43, 한국국학진흥원, 2020.

○ 박걸순, 『시대의 선각자 혁신유림 류인식』, 지식산업사, 2009.

<문화유산전문위원 OOO>

1) 개요

○ 「安東義所爬錄」은 1895년 12월(음) 경북 안동에서 봉기한 安東義兵의 편제와 직책을 임명한 기록임. 한말의병은 무력으로 국권회복을 위해 투쟁한 한 군사집단임. 한말 의병은 전기(갑오·을미의병, 1894~1896년), 중기(을사의병, 1905~1907년), 후기(정미의병, 1907~1910년)로 구분됨. 전기의병의 주요 봉기 원인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이었음.

○ 안동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공포되면서 봉기한 의병임. 1895년 11월 27일(음) 안동부에 단발을 하라는 공문서가 도착하자 안동지역에서는 의병봉기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통문이 돌기 시작함. 1895년 11월 29일(음) 「禮安通文」이 발송되었고, 12월 1일(음)에는 「靑鏡通文」과 「靑鏡私通」, 12월 2일(음)에는 「

虎溪通文」이 발송되면서 의병봉기를 촉구하기 시작함. 「청경통문」에서는 12월 3일(음) 안동의 봉정사, 「호계통문」에서는 안동향교에서의 집회가 제안됨.

○ 1895년 12월 3일(음) 봉정사에는 40~50명이 모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안동향교에 집결하기 시작해 12월 5일(음)에는 1,000여 명이 집결하여 유림대회 성격인 향회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1895년 12월 6일(음) 안동부 청사의 三隅堂에는 안동지역 士民 1만여 명이 집결했고 金興洛・柳止鎬・金道和・柳道性・柳芝榮 등 안동 유림 대표들은 權世淵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고 안동의병을 조직함.

○ 안동의병의 지휘부(義所)는 12월 7일(음) 안동부의 연무당에서 郭鍾錫을 부장으로 임명하고, 대장・부장・중군장・선봉장・우익장・좌익장 등 의병의 주요 職任을 결정하고 義陣을 편성함. 「안동의소파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된 안동의병의 지휘부의 직책과 임원명단(의병장)을 기록한 문서임.

○ 「안동의소파록」은 필사본 1장이며 상・하 2단으로 안동의병의 직책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음. 문서는 우측 상단부터 좌측방향으로 기록한 후 다시 하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기록하였음. 「안동의소파록」에는 안동의병의 직책인 대장・부장・중군장・선봉장・우익장・좌익장 등 27개의 직책과 임명된 인물 46명이 기록되어 있어 안동의병의 봉기 당시 편제와 주요 의병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안동의소파록

<주요 내용>

○ 「안동의소파록」은 안동의병의 27개의 직책과 임명된 인물이 수록되어 있음. 수록된 직책과 인명은 大將 權世淵, 副將 郭鍾錫, 參謀 柳淵博, 李相基, 柳善榮, 權炳鍾, 內防將 金震林, 金鎭懿, 外防將 姜鐔, 柳膺睦, 左翼將 李運鎬, 右翼將 權用鉉, 前鋒將 金翼張, 突擊將 權鎭淳, 遊擊將 金繪洛, 權仁述, 石擊將 權在鍾, 斥候將 金鴻洛, 招募將 權玉淵, 都書記 柳廷鎬, 李璉, 柳必永, 姜璜, 李廷佐, 書記 李雲九, 金夏林, 金縉輝, 柳淵楫, 金翰洛, 李鍾萬, 李性求, 柳晦植(이상 상단), 整齊有司 金周秉, 金潤模, 李萬求, 從事官 李重三, 金瑞洛, 柳昌植, 出令 柳憲鎬, 金浩洛, 中軍 柳琓, 管糧 金鍾淵, 管財 金恒洛, 募兵都監有司, 募糧都監有司, 司兵都摠有司, 行負商都

摠 權敦淵, 軍門都摠, 直日 姜鳳元, 李壽炳(이상 하단) 순으로 기록되어 있음.

○ 직책은 大將, 副將, 參謀, 內防將, 外防將, 左翼將, 右翼將, 前鋒將, 突擊將, 遊擊將, 石擊將, 斥堠將, 招募將, 都書記, 書記, 整齊有司, 從事官, 出令, 中軍, 管糧, 管財, 募兵都監有司, 募糧都監有司, 司兵都摠有司, 行負商都摠, 軍門都摠, 直日 순으로 기록되어 있음. 募兵都監有司, 募糧都監有司, 司兵都摠有司, 軍門都摠은 직책만 기록되어 있고 임명된 인물은 없음.

○ 임명된 인물은 權世淵, 郭鍾錫, 柳淵博, 李相基, 柳善榮, 權炳錘, 金震林, 金鎭懿, 姜鐔, 柳膺睦, 李運鎬, 權用鉉, 金翼張, 權鎭淳, 金繪洛, 權仁述, 權在錘, 金鴻洛, 權玉淵, 柳廷鎬, 李璉, 柳必永, 姜璜, 李廷佐, 李雲九, 金夏林, 金縉輝, 柳淵楫, 金翰洛, 李鍾萬, 李性求, 柳晦植, 金周秉, 金潤模, 李萬求, 李重三, 金瑞洛, 柳昌植, 柳憲鎬, 金浩洛, 柳琓, 金鍾淵, 金恒洛, 權敦淵, 姜鳳元, 李壽炳으로 46명임.

<특징>

○ 안동의병은 1895년 12월 6일(음) 조직되어 1896년 8월 19일(음)까지 항쟁한 의병임. 안동의병의 대장은 權世淵이었음. 권세연은 1896년 1월 29일(음) 전투에서 패한 책임을 지고 金道和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사퇴함. 김도화는 2월 1일(음)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함. 안동의병은 김도화가 대장으로 추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차와 2차로 구분됨

○ 전기의병은 대부분 유림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관계로 관련자료는 많이 남아 있음. 안동의병과 관련된 기록은 李兢淵의 『乙未義兵日記』, 權濟寧의 「義中日記」, 金鼎燮의 『鄕會時日記』와 『日錄』, 金道鉉의 「倡義顚末」, 金道和의 『拓菴先生文集』 등이 있음. 한말 의병자료는 크게 일기류와 통문, 그리고 격문류인데 이들 자료는 대부분이 일기류임.

○ 안동의병 관련 자료는 의병이 조직되는 과정과 전투상황 등이 중심이며, 의병의 직책과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을미의병일기』와 『향회시일기』, 『일록』임. 이들 자료는 주요 의병장과 인물만 기록되어 있어 안동의병의 전체적인 편제와 의병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러나 「안동의소파록」이 작성된 시점(안동의병 조직시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동의병의 직책과 인물을 비교,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자료임.

○ 『향회시일기』와 『일록』은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오미마을) 令監宅에서 소장하던 자료이며, 기록자는 김정섭임. 김정섭은 안동의병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부친 金秉璜이 안동의병에 자주 왕래하였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수집한 내용을 『향회시일기』와 『일록』으로 정리함. 『향회시일기』는 표지에 『향회시일기』라는 제목과 함께 '乙未十二月始'이라 쓰여 있으며, 1895년 12월 1일(음)부터 8일(음)까지의 안동의병 활동 기록임. 『일록』은 표지에 『일록』이라는 제목과 함께 '乙未十二月始'라고 쓰여 있음. 김정섭은 1895년 12월 1일(음)부터 1896년 7월 3일(음)까지 안동의병의 조직과 전투상황 등을 『일록』으로 남김.

○ 『을미의병일기』는 저자명이 없으나 내용을 검토하면 이긍연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표지가 없어 자료명을 알 수 없으나 안동의병과 관련된 내용임으로 소장처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을미의병일기』로 명명함. 이긍연은 봉정사 모임과 안동부에서의 안동의병 봉기에도 참여했으며, 안동의병(2차)의 종사관으로도 활동함. 이긍연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동의병의 봉기부터 해산때까지 활동을 『을미의병일기』로 남김.

○ 「안동의소파록」의 작성시점과 직책, 임명된 인물은 『향회시일기』와 『일록』, 『을미의병일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됨.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향회시일기』>

· 1895년 12월 초6일(음)
공사원 柳必永, 金瑞洛 이 구두로 參奉 權世淵은 참으로 이른바 韓信이라 하겠다라며 추천하였는데, 이 어른도 어른을 모시고 있다고 사양하며 나가면서 회의를 파했다

· 1895년 12월 초7일(음)
아침이 지난 뒤 練武廳 射場에서 開座하였는데 모인 사람은 어제와 같았다(중략). 副將을 뽑았는데 俛宇 郭鍾錫을 부장으로 삼았다. 左翼將, 右翼將, 內放將, 外放將, 突擊將, 石戰將, 參謀, 書記 등에는 鄕吏들이 섞여 뽑혔고 각 문중에 분배되었는데, 우리 문중은 누락되었다.

· 1895년 12월 초8일(음)
대장이 저녁 이후에 星廳에 나와 좌정하였다(중략) 儒生을 보내어 副將을 맞이하게 하였다. 爬錄을 差定하여 다시 또 30여명을 선출하였는데,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일록』>

· 1895년 12월 초6일(음)
공사원 柳必永, 金瑞洛이 參奉 權世淵을 불러 倡義旗를 옮겨 놓으니 이 어른 역시 부모가 계시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나갔다

· 1895년 12월 초7일(음)
郭鍾錫을 나오게 하게 하고 左右翼將, 內外防將, 突擊將, 石戰將, 參謀, 書記 등은 각 마을에 분배하였는데, 선비와 아전들도 섞여 나왔다.

· 1895년 12월 초8일(음)
儒生을 정하여 보내서 副將을 맞아오고 爬錄을 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정하였다. 또 30여 인을 선발하여 아침 뒤에 또 자리를 만들고 將壇을 세우는 일을 곧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1895년 12월 초10일(음)
豐山 시가에 中營을 설치하고 外防將 柳成祚와 司兵都摠 柳道章이 와서 머물렀다.

· 1895년 12월 13일(음)
本府의 砲軍 50명을 營將 柳琓이 거느리고 와서 막 禮泉으로 향하였다.

· 1895년 12월 14일(음)
陣所에서 또 先鋒 金玉瑞를 보내어 군병을 거느리고 온전하게 왔다.

· 1895년 12월 15일(음)
後鋒將 權用鉉이 포병 50여 명을 거느리고 아침에 兜率院에 이르렀다.

<『을미의병일기』>

· 1895년 12월 6일(음)
三隅庭에서 開座하였다(중략) 논의가 엄중하게 되어 대장에는 酉谷의 參奉 權世淵을 추천해 뽑았다. 전후 이틀 동안 이곳에 모인 이가 만여명이나 되었다

· 1895년 12월 7일(음)
練武亭에 모여서 부장으로 郭鍾錫을 추천해 뽑았고, 차례로 장수 이름과 參謀, 書記 등을 뽑고 모임을 마쳤다.

· 1895년 12월 11일(음)
저물 무렵에 총소리가 갑자기 진동해 온 고을이 깜짝 놀라 집안에 가만히 있는 이가 없었다(중략). 조금 가라앉은 뒤에 알아보니 中軍이 행군하는 소리였다.

· 1895년 12월 12일(음)
대장이 先鋒 金玉瑞에게 명해 砲軍 70명을 이끌고 야음을 틈타 먼저 가게하고, 中軍 柳碗에게 군인 50여명을 거느리고 출발하게 했다.

· 1895년 12월 13일(음)
큰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어 산과 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바로 전쟁의 모습이었다. 정오에 右翼將 權用賢이 60여명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 1895년 12월 14일(음)
큰바람이 불었다. 오후에 左副將 族人 李宜鎬가 100여인을 거느렸는데, 이 마을의 班軍 또한 그 속에 참여하였고, 그 뒤를 따르는 이는 厚坤이었다.

· 1895년 12월 15일(음)
선봉이 甘厓에 진을 치고 있던 중에 中軍은 豐山에 주둔했으며, 右翼將은 兜率院에 진치고 左翼將은 盧下里에 진을 쳐서 이날 아침 일찍 군대를 연합해 적을 치기로 하였다.

○ 『향회시일기』와 『일록』의 기록을 보면 안동의병은 1895년 12월 7일과 8일(음) 주요 직책과 인물을 선정하고 파록을 기록함. 1895년 12월 초8일(음) "爬錄을 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정하고 30여인을 선발"했다는 기록이 이를 말해 줌. 「안동의소파록」의 인물이 46명인 점을 보면,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12월 7일이나 8일(음) 작성된 안동의병의 주요 직책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 『향회시일기』와 『일록』에 기록된 안동의병의 左翼將, 右翼將, 內放將, 外放將, 突擊將, 石戰將, 參謀, 書記 직책은 「안동의소파록」의 직책과 일치하며, 대장에 권세연, 부장에 곽종석이 임명된 사실도 확인됨.

○ 『을미의병일기』를 통해 안동의병의 대장은 權世淵, 부장에 郭鍾錫, 중군에 柳碗, 좌익장에 權用鉉, 좌부장에 李宜鎬가 활동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은 「안동의소파록」의 '大將 權世淵, 副將 郭鍾錫'이라는 기록과 일치함. 다만 先鋒 金玉瑞, 中軍 柳碗, 左翼將 權用賢, 左副將 李宜鎬, 中軍 柳碗은 「안동의소파록」과

다소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을미의병일기』를 작성한 이긍연이 안동의병을 후원하던 중 안동의병에 직접 참여한 것은 1896년 5월이므로 봉기시에 선임된 인물을 오기한 것으로 판단됨.

- ○ 이러한 점은 中軍 柳碗, 左翼將 權用賢의 인명 표기에서 확인됨. 中軍 柳碗과 左翼將 權用賢은 「안동의소파록」에 中軍 柳琓, 左翼將 權用賢으로 수록되어 있음. 柳琓은 경북 안동군 임동면 출신으로 호는 完玉이며, 異名으로 柳碗을 사용했음.『일록』에서 中軍營將을 柳琓으로 기록한 것도 이러한 이유임. 권용현은 안동권씨로 보이며, 안동김씨 항렬자는 '鉉'임. 따라서 權用賢은 權用鉉일 가능성이 높음.『일록』에서도 좌익장은 權龍鉉으로 기록됨. 따라서 유완과 권용현의 인명표기는 「안동의소파록」이 정확한 기록으로 판단 됨.
- ○『을미의병일기』의 "先鋒 金玉瑞, 中軍 柳碗, 左翼將 權用賢, 左副將 李宜鎬, 中軍 柳碗"의 기록 중 선봉 김옥서와 좌부장은 「안동의소파록」에는 없는 직책과 인명임. 선봉 김옥서는『일록』에도 기록되 있음. 따라서 선봉은 김옥서일 가능성이 높음. 선봉 김옥서는 「안동의소파록」의 前鋒張 金翼張의 異名일 가능성이 있으며, 異名이 아니면 새롭게 참여한 인물로 여겨짐.
- ○ 이러한 점에서 「안동의소파록」은 안동의병과 관련된 주요한 자료로 판단됨. 「안동의소파록」에는 募兵都監有司, 募糧都監有司, 司兵都摠有司, 軍門都摠에 인명된 인물은 없음. 그런데『일록』1895년 12월 초 10일 기록을 보면 "司兵都摠 柳道章이 와서 머물렀다"라고 하였음. 「안동의소파록」이 작성된 후 주요 직책의 인물이 추가로 선정된 것으로 여겨짐.
- ○ 안동의병은 1896년 1월 24일 都都摠, 副摠, 中軍, 都砲將, 左砲將, 右砲將, 書記 등으로 임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함. 따라서 「안동의소파록」은 안동의병의 조직 초기 주요 직책과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후 안동의병의 직책의 변화와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향회시일기』와『일록』,『을미의병일기』 등 안동의병과 관련된 자료는 일기류로 안동의병의 주요 직책과 인명만 파악할 수 있음. 반면에 「안동의소파록」은 안동의병의 모든 직책과 인명이 기록되어 있어 봉기 초기 안동의병의 주요 직책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참여자 46명의 성격 분석을 통해 안동의병 봉기 당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 「안동의소파록」은 한 장이며 褙接상태가 미흡함. 그러나 기록된 내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원형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상태라 볼 수는 없음. 원형의 보존상태가 자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며 소장처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수장고에서 관리되고 있음

4)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 ○ 「안동의소파록」에는 募兵都監有司, 募糧都監有司, 司兵都摠有司, 軍門都摠에 인명된 인물은 없음. 이것은 안동의병이 조직된 후 편제는 마쳤으나 임명되지 않은 직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안동의소파록」이 조직 당시 편제와 참여인물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줌. 따라서 안동의병 봉기 당시 조직체계의 확인뿐만 아니라 이후 참여한 인물들과의 비교 검토가 가능한 자료임. 또한 「안동의소파록」은 가장 자세한 직책과 인원을 수록하고 있어 봉기 당시의 편제와 참여자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 안동의병은 한말 전기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임. 안동의병과 관련된 자료는 『향회시일기』와 『일록』, 『을미의병일기』 등 대체로 일기류 자료가 주요 자료임. 이들 자료는 안동의병의 전개과정과 전투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주요 직책과 인물만 수록되어 있어 전체적인 의병의 편제와 규모,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러나 「안동의소파록」은 안동의병 봉기 당시 의병장의 직책과 인물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 안동의병의 전체적인 지휘편제와 의병장 46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7) 등록가치의견

○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12월(음) 봉기한 안동의병의 지휘 편제와 임원 명단을 수록한 문서임. 박한설(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 발굴해 소장하던 중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기증했고, 현재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 「안동의소파록」은 한 장의 필사본으로 배접상태는 미흡하지만 원형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태라 볼 수는 없으며 보존상태가 자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음.

○ 안동의병과 관련된 자료는 『향회시일기』와 『일록』, 『을미의병일기』 등 많은 자료가 남아 있음. 그러나 이들 자료는 일기류인 관계로 안동의병의 주요 직책과 인물만 수록되어 있어 안동의병의 전체적인 지휘체계와 인물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러나 「안동의소파록」 大將, 副將, 參謀, 內防將, 外防將 등 안동의병 주요 27개의 직책이 수록되어 있어 봉기 당시 지휘체계를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안동의병 관련 기록 중 가장 많은 46명의 임원명단(의병장)을 수록하고 있으며, 임원명단과 직책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안동의병의 봉기 당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함.

○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12월(음) 봉기한 안동의병의 지휘 편제와 임원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작성장소와 시점이 다른 안동의병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안동의병의 지휘체계와 임원 명단이 모두 수록된 유일한 자료라는 점, 안동의병의 봉기 당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

9) 참고문헌

- 김상기,「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史學志 31, 단국사학회, 1998.
- 박한설,「초기 안동의병의 임원명단 “안동의소파록”에 관한 연구」,『안동사학』11, 안동사학회, 2006.
- 김희곤,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 국가유산청,『근대문화유산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2014.
-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 항일의병 분야 목록화조사 연구용역 , 2019.
- 안동대학교 인문학연구소,『경북독립운동사』Ⅰ, 2012.
- 안동독립운동기념관,『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2012.
- 김희곤, 권대웅,『한말 의병일기』, 국가보훈처, 2003.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7

7.「대동사」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심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소장 「대동사」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소장 「대동사」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24.12.3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6.4.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2)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연도	소유자	보관장소	소재지
대동사	3권 11책	30×19.2	1910~ 1920년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

(4) 추진경과

○ ('24.12.31.)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경상북도 → 국가유산청)

○ ('26. 4. 2.)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유산위원 OOO('26.4.2.)

- 역사서로서 내용적인 가치가 있으나 원고를 정서한 등초본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 OOO('26.4.2.)

- 대동사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국 정신'이 쇠퇴하게 됨을 우려해,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또한 한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임을 보이려는

목적에서 계몽운동가이자 독립지사인 동산 유인식이 단군 이래 이 시기까지의 역사를 순 한문의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임. 그러나 지금도 한일 간 첨예한 논쟁이 되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비판 없이 수용한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상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문화유산전문위원 OOO('26.4.2.)

- 『대동사』 유일본이라는 점, 한국근대사와 사학사, 한국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됨. 그러나 류인식이 저술한 『대동사』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일 가능성이 있으며, '曉山藏書'의 藏書印으로 보아 소장과정과 원형보전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1978년 활자본으로 발행되는 과정에 표점과 교정부호 등이 추가되었고, 任那日本府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소장 과정과 원형 보전이 불명확, 임나일본부설 비판없이 수용한 점 등)

○ 출석위원 12명 / 부결 12명

<붙임>

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동사
2.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3. **소 유 자** :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4. **제작연도** : 1910~1920년
5. **유물현황** : 3권 11책
6. **재　　질** : 종이
7. **규　　격** : (세로) 30㎝ × (가로) 19.2㎝
8. **조사자 의견('26.4.2.)**

<문화유산위원 OOO>

1) 개요

○ 독립운동가인 동산(東山) 류인식(柳寅植, 1865-1928)이 단군에서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로 11책, 필사본임. 류인식은 1912년 저술에 착수하여 1917년 초고를 완성하였고 이후에 문인들에 검토를 요청하여 1920년 경까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에 대한 정서를 요청하는 기록으로 보아 등사본인 본 유물의 필사 시기는 1920년 이후로 추정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표제(表題)는 '大東史'이며 一, 二, 三, 卷之四, 卷之五, 卷之六, 卷之七, 卷之八, 卷之九, 卷之十, 卷之十一로 각 책차를 표시하였음. 각 책마다 수록된 왕조의 연대기 제목이 기록되어 있으며 책차별 내용은 一(檀氏朝鮮記, 南北朝記), 二(南北朝記), 三(南北朝記, 高麗記), 卷之四(高麗記), 卷之五(高麗記), 卷之六(朝鮮記), 卷之七(朝鮮記), 卷之八(朝鮮記), 卷之九(朝鮮記), 卷之十(朝鮮記), 卷之十一(朝鮮記)임

○ 1책에는 '대동연혁지총도(大東沿革之總圖)', '대동연혁국차도(大東沿革國次圖)', '대동족통도(大東族統圖)', '대동역대일람도(大東歷代一覽圖)'라는 4편의 도표(圖表)가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17조의 범례(凡例)에는 저술 목적, 표제를 짓게 된 경위, 편찬 방식과 체제, 참고로 채택한 구사본(舊史本)과 채택 사유, 논찬 및 서술 방식 등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음.

○ 각 책별 크기는 一(30×19.2), 二(31×20.6), 三(28.5×21.0), 卷之四(27.1×19.6), 卷之五(30.5×21.2), 卷之六(29×20.1), 卷之七(29×18.5), 卷之八(29.7×19.6), 卷之九(29×18.2), 卷之十(29.3×18.2), 卷之十一(29×18.4)로 상이하며 약 3종 정도로 종이가 사용되었으며 현대지도 포함되어 있음. 책 표지에는 '曉山藏書'의 원형 장서인이 있고 각 책에는 가-153-①-⑪를 펜으로 기록하였음. '曉山'은 1978년

‘東山全集’ 간행에 참여한 국민대학교 송찬식(1938-1984) 교수의 호로 이 자료가 송찬식 교수의 장서로 편입되었다 후손에게 인계된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각 책은 순한문체로 주로 10행으로 필사되었으나 11-12행인 것도 있으며 필사자는 적어도 3인 이상으로 추정됨. 본문에는 표점과 교정부호가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배접된 부분도 다수 확인되며 제책도 현대에 새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기탁하여 관리되고 있음

5)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 1978년 동산선생기념사업회에서 ‘東山全集’ 상권에 수록하였고 2006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영인총서로 간행함. 2021년에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국역본을 발간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역사서로서 내용적인 가치가 있으나 원고를 정서한 등초본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9) 참고문헌

○ 류인식(1978), 동산전집, 동산선생기념사업회
○ 문화재청(2014),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 박걸순(2016), 대동사, 류인식의 민족주의 역사서, 안동학연구 15, 국학진흥원

<OOO>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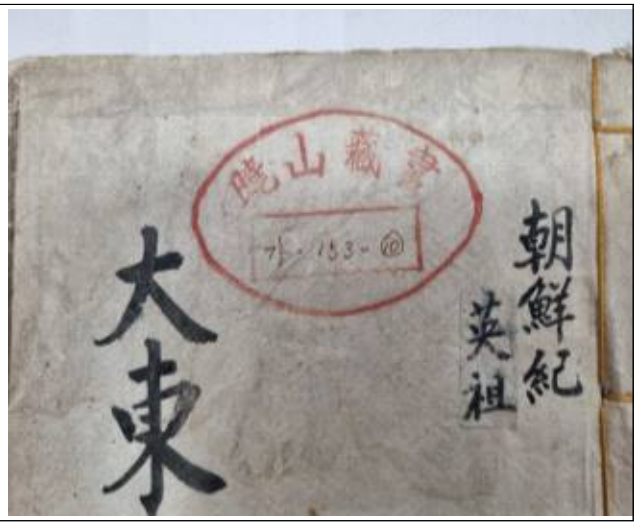
○ 동산(東山) 유인식(柳寅植, 1865~1928)은 한말~일제 초기 구국계몽운동에 앞장

섰던 혁신유림으로 <대동사(大東史)>라는 저술을 통해 한국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과 대중 계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대동사>의 편찬 체재는 대동연혁지총도(大東沿革之總圖)·대동연혁국차도(大東沿革國次圖)·대동족총도(大東族總圖)·대동역대일람도(大東歷代一覽圖) 등 4개의 도(圖), 17조의 범례와 인용서목으로 되어 있음

○ 본문은 단씨조선기(檀氏朝鮮紀)·남북조기(南北朝紀)·고려기(高麗紀)·조선기(朝鮮紀)와 부록〔歷代王室系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국 정신'이 쇠퇴하게 됨을 우려해, 우리 민족을 배달족으로 규정하고 또한 한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임을 보이려는 목적에서 편찬한 것임

○ <대동사>는 단군 이래 일본 제국주의 강점 이전까지의 4천여 년간 우리나라 역사를 순 한문의 편년체로 서술한 통사 저술서임

○ 이 책에서 관통하는 역사인식은 신채호의 대조선주의와 대종교의 범 동아시아 중심주의 사관과 일맥상통하나 서술 기조는 근대를 지향하는 과도적 단계로 전근대적 면모를 완전히 탈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예컨대 시기를 단순히 왕조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동 시기 다른 사서들과 비교하면 근대사학으로서의 면모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이 책이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일제 강점 직전부터 일본이 주장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한일 간 첨예한 논쟁이 되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으로,

- 신라 내해왕(奈解王) 4년 조에 일본사(日本史)를 인용하여 비미호(卑彌呼)의 신라 침공 기사를 인용하였고,
- 조분왕(助賁王) 17년 조에 왜(倭)의 대가야 공격과 '치행부(置行府) 주병(駐兵)' 사실을 서술하였고,

- 진흥왕(眞興王) 23년 조에는 임나일본부가 315년간 존속하다가 철폐된 것이라고 기술하였음

○ 유인식이 <대동사>를 저술한 시기는 신채호의 임나일본부 비판이 공개된 지 훨씬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사론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은 그의 항일 투쟁 이력과 대치될 뿐 아니라 역사 인식에서도 치명적인 한계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이 자료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경북 안동시 소재)에 소장되어 있으며 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 등으로 자료의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함

○ <대동사>는 유인식이 1920년대 이전 필사한 것으로 정확한 작성 연도는 단정할 수 없음

○ 이 자료는 유인식의 직계 후손인 소유자가 집에서 보관 중인 것을 기탁한 것이라고 소장 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나, 각 권 표지에 '효산장서(曉山藏書)'의 붉은색 직인이 찍혀있는 점으로 미루어 작성 이후부터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는 속단하기 어려움

○ '효산(曉山)'은 역사학자 고 송찬식 교수의 호로 송 교수는 1978년 이 <대동사>를 탈초 후 활자로 간행하는 과정에서 해제를 작성한 바 있음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동사>는 현재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그 수장고 내 보존되어 잘 관리되고 있음

○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고 보관해 오던 자료인 만큼 진위성 여부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진본임

5)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 <대동사>는 존재가 알려진 시기가 1970년대로 비교적 기간이 오래되었음에도 원문 그대로 활자로 간행된 것 외에는 번역이 진행된 바 없고 관련 학술대회도 개최된 바 없음

○ 일부 학술논문으로만 활용된 바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대동사>는 민족운동가이자 독립지사가 저술한 편년체 통사로 한국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과 대중 계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 책에서 관통하는 역사인식은 동 시기 다른 역사서와 달리 많은 부분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대 사서로서는 적지 않은 한계가 보임

○ 특히 지금도 한일 간 첨예한 논쟁이 되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비판 없이 수용한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상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9) 참고문헌

○ 宋贊植, 1978「解題 大東史」『東山全集』, 東山先生記念事業會

○ 趙東杰, 1978「安東儒林의 渡滿經緯와 獨立運動上의 性向」『大丘史學』15·16

○ 金喜坤, 1999「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7

○ 朴杰淳, 2000「東山 柳寅植의 歷史認識」『韓國史學史學報』2

<문화유산전문위원 OOO>

1) 개요

○ 『大東史』는 독립운동가 東山 柳寅植이 편찬한 역사서임. 류인식은 경북 안동 예안 출신으로 1907년 이후 協東學校·嶠南敎育會·大韓協會·新民會 등에 참여해 계몽운동을 전개함. 1911년 만주로 망명해 활동하던 중 1912년 자금 마련을 위해 귀국한 후 재망명을 포기하고『대동사』저술에 몰두함. 1920년 朝鮮敎育會와 朝鮮勞動共濟會 설립에 참여했으며 1923년에는 朝鮮民立大學期成會 발기 총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으며 1927년 8월에는 신간회 안동지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선출되어 활동한 후 1928년 4월 사망함(건국훈장 독립장 수여)

○ 『대동사』는 등초본이며, 책수는 3권 11책, 쪽수는 1,728쪽임. 표제는 '大東史'이고 각 책마다 표제 하단에 권수가 표시되어 있음. 표제 좌측에는 각 책마다 수록된 왕조의 연대기 제목이 기록되어 있음. 각 책은 대개 10행으로 등초 되었으며 11행이나 12행으로 등초된 부분도 있음

○ 『대동사』는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된 통사이며, 단군조선부터 1910년 강제병탄전까지의 역사를 서술함. 1책의 첫머리에「大東族統圖」·「大東歷代一覽圖」라는 4편의 도표(圖表)가 수록되어 있으며 17조의 凡例에는 저술 목적, 표제를 짓게 된 경위, 편찬 방식과 체제, 논찬 및 서술 방식 등을 기술함. 본문은 1권(「檀氏朝鮮紀」(1책)·「남북조기(南北朝紀)」(1~3책)), 2권(「(高麗紀)」(3~5책)), 3권(「조선기(朝鮮紀)」 및 부록(역대왕실계보)(6~11책))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대동사』는 단군조선부터 1910년 강제병탄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단순히 왕조체제의 변화와 교체에 따라 서술한 것이 아니라 倍達

族이라는 단일민족의 이합집산과 변천과정으로 서술함. 배달족을 조선족, 북부여족, 예맥족, 옥저족, 숙신족 5개로 나누고 北朝(북여·옥저-고구려-발해), 南朝(기자조선-삼한-가야·백제·신라-통일신라)로 구분함. 이러한 南北朝史觀은 우리민족의 역사를 남조와 북조로 나누고 통일신라와 후삼국시대까지를 남북조시대로 구분하고 고려를 최초의 통일국가로 평가함. 삼국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며, 발해가 우리 민족사임을 입증함. 이러한 사관은 우리민족의 역사를 정치조직과 단위 중심의 국가사가 아니라 종족중심의 국가사로 보려는 관점임

- ㅇ 조선전기 분량이 가장 많음. 이것은 망국의 원인을 규명하고 독립의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전통사서와는 다르게 고려멸망의 필연성을 도출하고 조선건국의 당위성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조선건국은 단군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 복속하게 되는 원인으로 봄. 따라서 조선기에서는 당쟁·외척 등 망국의 원인을 평가함. 또한 고종과 대원군, 민비 등이 망국을 초래했다고 평가함
- ㅇ 일제의 침략과 민족운동을 빠짐없이 기술함. 일제의 침략을 乙巳五條約(一轉)·丁未七條約(二轉)·庚戌國恥(三轉)로 서술하고 조약의 부당성 등 일제의 침략을 비파함. 또한 의병과 자결순국, 계몽운동, 의열투쟁 등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서술함
- ㅇ 『대동사』는 류인식이 만주에서 귀국한 1912년부터 1917년까지의 시기에 저술했으며, 수시로 문인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1920년 이후까지 수정 보안한 역사서임. 일제의 무단통치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단군조선에서 1910년 강제병탄까지의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로라 평가됨
- ㅇ 『대동사』는 우리민족을 배달족으로 규정하고 단일민족사로 체계화 했다는 점, 기존 역사서와는 다르게 단순히 왕조체제의 교체에 따른 서술이 아니라 배달족의 이합집합과 변천으로 서술했다는 점, 단군과 발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 한국근대사와 사학사에서 중요한 유물로 판단됨. 다만 역사인식에서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과 任那日本府를 역사적 사실로 서술한 것은 결점으로 평가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ㅇ 『대동사』는 류인식이 만주에서 귀국한 1912년경 저술에 착수하여 1917년 초고가 완성됨. 그러나 이후에도 고증이 정밀하지 못하고 유례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門人과 賢士들에게 검토를 요청하며 1920년경까지 계속 수정 보완하였음[1)]
- ㅇ 『대동사』는 류인식의 손자 류기원이 소장하고 있던 중 2004년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고, 현재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음. 『대동사』는 東山先生紀念事業會에서 활자본으로 1978년 『大東史』(東山全集 上)로 발행함.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2006년 영인하여 『大東史』(上)·『大東史』(하)로 발행함
- ㅇ 『대동사』는 3권 1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종이의 재질과 필체 등을 고려하면 1~5책, 6~11책은 필사자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음(사진 1 참조). 따라서 원본을

1) 박걸순, 「東山 柳寅植의 歷史認識」, 『한국사학보』2, 한국사학사학회, 2000, 66쪽.

적어도 2명 이상이 필사한 것으로 파악됨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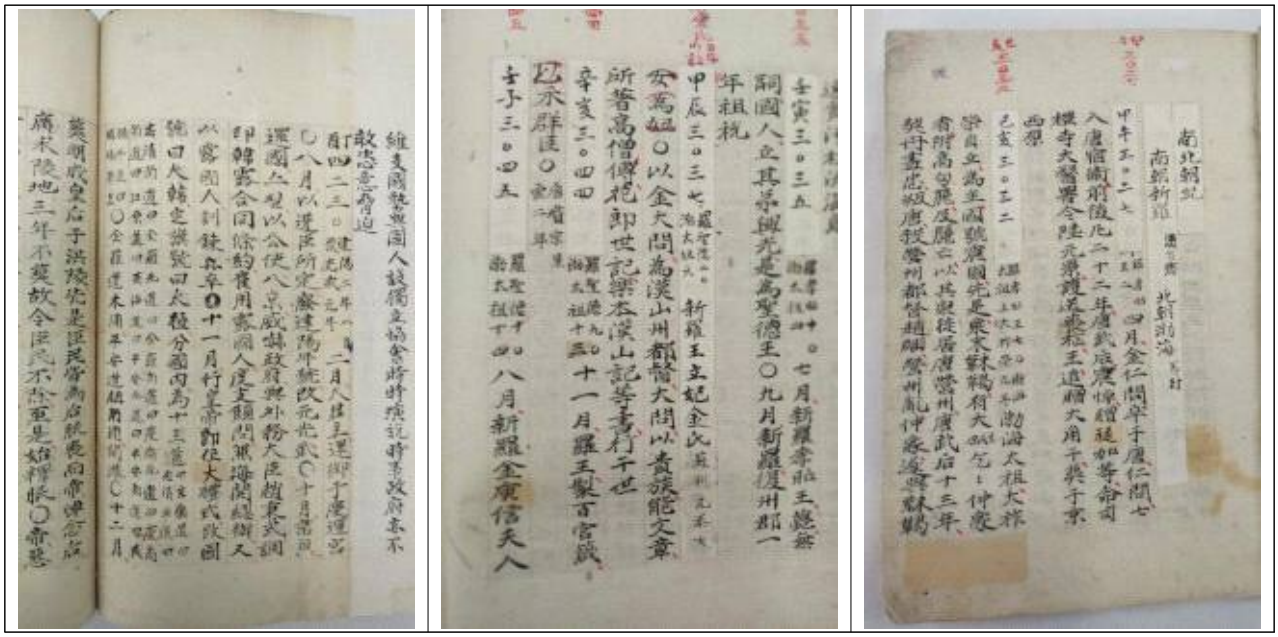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소장『대동사』(이하 신청유물)는 표지에 "曉山藏書"라는 藏書印이 찍혀 있고, 장서인에는 "가-153-①~⑪"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있음(위 사진1 참조). 曉山은 전 국민대학교 교수 宋贊植으로 파악됨. 1978년 활자본으로 발행된『대동사』는 동산선생기념사업회에서 편찬하고 손자 柳基元이 발행했으나 해제를 송찬식이 작성했기 때문임.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유물이 송찬식 소장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사진 2>

○ 신청유물에는 표점과 교정부호 등이 붉은색으로 표기 되어 있음. 이러한 점은『대동사』11책 모든 책에서 찾아짐. 이것은 1978년 활자본『大東史』(東山全集 上) 편찬과정에서 표점을 찍고 교정부호를 사용해 교정·교열한 것임(사진2 참조)

예를 들면 신청유물에 "戊辰元年國人推載王任儉爲王"을 "元年戊辰國人推載王儉爲王"으로 교정했는데, 1978년 활자본에 "元年戊辰國人推載王儉爲王"으로 교정된 내용이 그대로 수록됨. 신청유물의 붉은색으로 교정된 내용이 1978년 활자본에 그대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신청유물의 붉은색 표기된 내용은 1978년 활자본 발행시 교정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신청유물의 표점도 1978년 활자본과도 동일함. 따라서 신청유물의 표점과 교정부호 등 붉은색으로 표기된 내용은 1978년 활자본 발행 시 편찬자가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신청유물에는 배접하고 내용을 수정한 곳이 다수 발견됨(사진 3 참조). 수정된 내용은 1978년 활자본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음. 이것은 1978년 활자본 발행 시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원본을 수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사진 3>

4) 문화유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동사』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소장되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재질의 특성상 철저한 보존・관리가 필요해 보임

5) 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

○ 『대동사』는 독립운동가 류인식이 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저술한 역사서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동사』는 우리민족을 배달족으로 규정하고 단일민족사로 체계화 했다는 점, 기존역사서와는 다르게 단순히 왕조체제의 교체에 따른 서술이 아니라 배달족의 이합집합과 변천으로 서술했다는 점, 단군과 발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 한국근대사와 사학사에서 중요한 유물로 판단됨

6) 등록가치의견

○ 『대동사』 유일본이라는 점, 한국근대사와 사학사, 한국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됨. 그러나 류인식이 저술한 『대동사』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일 가능성이 있으며, '曉山藏書'의 藏書印으로 보아 소장 과정과 원형보전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1978년 활자본으로 발행되는 과정에 표점과 교정부호 등이 추가되었고, 任那日本府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7) 기 타(등록 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大東史(대동사)

8) 참고문헌

○박걸순,『시대의 선각자 혁신유림 류인식』,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2009
○박걸순,「「東山 柳寅植의 歷史認識」,『한국사학보』2, 한국사학사학회, 2000
○박걸순,「대동사, 류인식의 민족주의 역사서」,『안동학연구』15, 국학진흥원, 2016
○국가유산청,『근대문화유산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2014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 항일의병 분야 목록화조사 연구용역 , 2019
○안동대학교 인문학연구소,『경북독립운동사』 Ⅰ, 2012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8

8. 「임실 박경수 고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 가치 심의

가. 제안사항

임실군에 위치한 「임실 박경수 고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가치와 필수보존요소 지정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임실 박경수 고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25.10.14.)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6. 3. 3./ '26.4.13.)를 실시하였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과 필수보존요소 지정 가치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OOO

(2) 대상문화유산

○ 문화유산명칭(안) : 임실 박경수 고택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가리 OOO 등 3필지

○ 소 유 자 : OOO

○ 수　　량 : 건물 3동 및 시설물 1동/ 연면적 219.12㎡

○ 건축규모

- 안　채: 정면 6칸 측면 2칸/ 팔작지붕/ 연면적 125.87㎡
- 작은채: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 연면적 43.36㎡
- 문간채: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 연면적 45.89㎡
- 부속건축물(우물비가림): 4㎡

○ 건립시기 : 1939년

○ 건축구조 : 일반목구조

(3) 필수보존요소

○ 필수보존요소 지정 검토대상

필수보존요소 지정 검토대상				
번호	지정명칭(안)	수량 , 위치 등	지정사유	비고
1	안채 지붕 합각부	안채 합각부 창호 2개소, 벽돌 등	안채 팔작지붕의 합각부를 구성하는 벽돌벽과 아치 창호, 꽃 모양의 철제 장식은 타 한옥과 구별되는 특징임.	

	아치형 창호	안채 합각부 창호 2개소	다락 공간에 빛과 외관의 장식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며 건립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지붕 합각부 유리 창호	2개소 지붕 양쪽 박공면	채광, 통풍의 목적으로 설치한 유리 창호로 시대성이 반영된 건축적 요소로 보존가치 있음	
2	안채 안방 벽장 및 다락문	안채 안방 좌측벽 벽장의 문 및 서랍과 다락문	안채 안방 벽장의 문 및 서랍과 다락문은 제작 당시 장인의 수공예적인 기법과 재료, 장식, 철물 등이 잘 남아있어 이 한옥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 요소임.	
	안방 붙박이 가구	1개소	전통 고택의 반침을 이용한 수납공간으로 근대기 실내장식사적 측면에서 보존가치 있음	
3	안채 건넌방 벽장 문	안채 건넌방 배면 벽장 문	안채 건넌방 벽장 문은 제작 당시 장인의 수공예적인 기법과 재료, 장식, 철물 등이 잘 남아있어 이 한옥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 요소임.	
4	서화 장식 창호	안방 및 건너방 설치 창호	일반 전통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호(두겁창,미서기창)를 서화로 장식한 것으로서 예술성이 돋보임	
5	배면 툇마루	1개소 안채 배면	생활방식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물리적 흔적으로서 보존가치 있음	
6	안채 정면	안채 정면 전체	안채 정면은 유리창, 옹기 기와 등 본 건축물의 근대 한옥적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입면이며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있음	
7	지붕 옹기기와	안채 지붕 전체 1식	기와의 기능성과 장식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고 건립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8	창호장식	안채 방 3의 창호 패턴 및 그림	창호의 패턴 및 그림 등 기능과 예술적 가치가 있음	
9	기단석, 초석	안채 기단부	귀틀석 · 초석의 원석 크기, 가공 기술적 가치가 있음	
10	근대식 목욕탕	작은채 욕조, 세면대	욕조 내 솥을 걸고 물 데움 등 원형의 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어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줌	

(4)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 가치 여부

(5) 추진경과

○ (‘24. 3.27.)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북특별자치도→청)

○ (‘24. 5. 7.) 등록신청 서류 미비*로 반려(청→전북특별자치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서류 확인불가

○ (‘25.10.13.)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청(전북특별자치도→청)

○ (‘25.11.27.) 보완자료(변형 및 수리이력,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요청(청→전북특별자치도)

○ (‘25.12.30.) 보완자료 제출(전북특별자치도→청)

○ (‘26. 3. 3.)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유산위원 OOO, 문화유산전문위원 OOO, OOO

○ (‘26. 4.13.) 관계전문가 추가 현지조사

- 문화유산전문위원 OOO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유산위원 OOO(’26. 3. 3.)

- 임실 박경수 고택은 조선 후기 이후 이 지역 부농 주택의 특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2중 서까래의 독특한 지붕 구조, 벽돌로 구성된 합각부 및 다양한 장식 요소, 안방과 건넌방, 다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과 창호의 수공예적인 구법과 장식, 아래채 욕실, 우물의 지붕 구조물, 벽돌 담장의 장독대, 안채 앞 정원 등에서 전통 한옥과는 구별되는 근대한옥으로서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등록범위는 근대한옥으로서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안채와 솟을대문으로 주택 일곽의 규모와 경계를 보여주는 문간채를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유산 명칭은 ‘임실 성가리 근대한옥’이 적합함.
- 또한, 근대한옥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안채 지붕 합각부, 안채 안방 벽장 및 다락문, 안채 건넌방 벽장문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전문위원 OOO(’26. 3. 3.)

- 본 가옥은 1939년 건립된 2고주 7량가의 견실한 전통 구조에 서양식 창호와 근대식 위생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근대 한옥의 변천사를 완벽하게 실증하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천도교 임실교당 등 인근 문화유산 및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높은 활용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또한 건립 시기와 배경이 명확하며, 전통 한옥의 가구 수법에 근대적 생활편의 시설과 서구적 장식이 가미된 '한국 근대 주거 문화의 변천'과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근대 주거사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지표로서 안채 정면, 지붕 옹기기와, 아치형 창호, 창호장식, 기단석·초석, 근대식 목욕탕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전문위원 OOO(’26. 3. 3. / 4. 13.)

- 현존하는 상량 기록을 통해 건축연도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소유자 증언 등을 통해 건립배경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고택 내에 남아

있는 여러 흔적들 속에서 근대기라는 시대성과 함께 소위, 근대한옥으로서 갖는 여러 건축적 가치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왔고, 또한 과거 생활 속에서 내, 외부 공간의 변형이 발생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다소 훼손된 부분(영역)도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시에는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근대기 건립된 한옥으로서 당시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배면 툇마루, 지붕 합각부 유리창호, 서화 장식 창호, 안방 붙박이 가구를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등록 범위는 안채, 문간채로 함**
- **명칭은 '임실 성가리 근대한옥'으로 함**
- **필수보존요소 지정 ①지붕 합각부 유리창호, ②안채 안방 벽장 및 다락문으로 함**

ㅇ 출석위원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붙임 1> 고택 배치도

N
대지 경계선
창 고
(주4동)
대지 경계선
대지 경계선
283 대
창 고
(부1동)
사무실
(주1동)
282 대
사무실
(주2동)
3-4M 도로
우물 비가림
(부2동)
281 대
도로경계선
대지 경계선
창 고
(주3동)
건 물 배 치 도
1/500

장독대
창고
안채
우물
작은채
대문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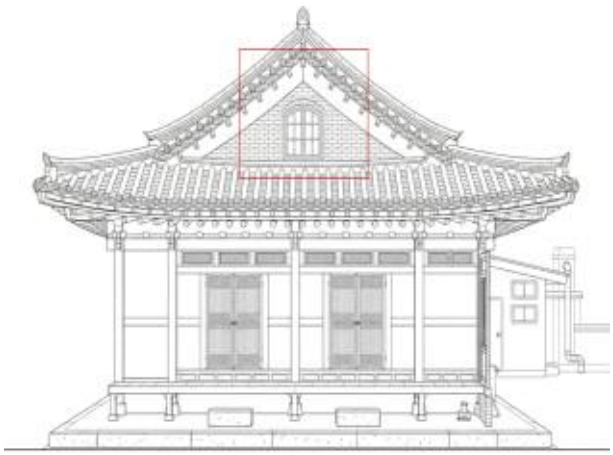
<붙임 2> 현황사진첩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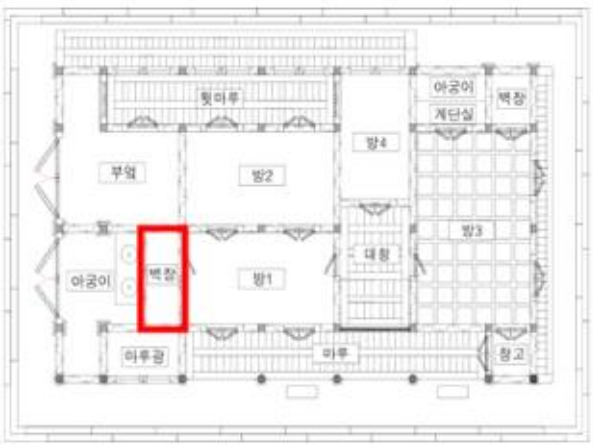
고택 전체(배면)	고택 전체(정면)
안채	사랑채
대문채	우물

○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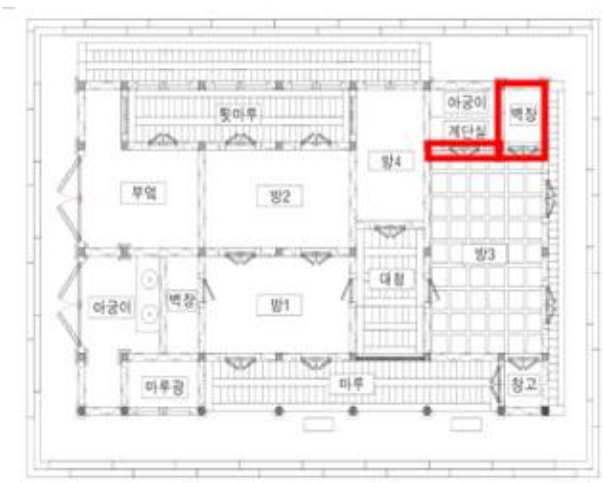
1. 안채 합각부 창호(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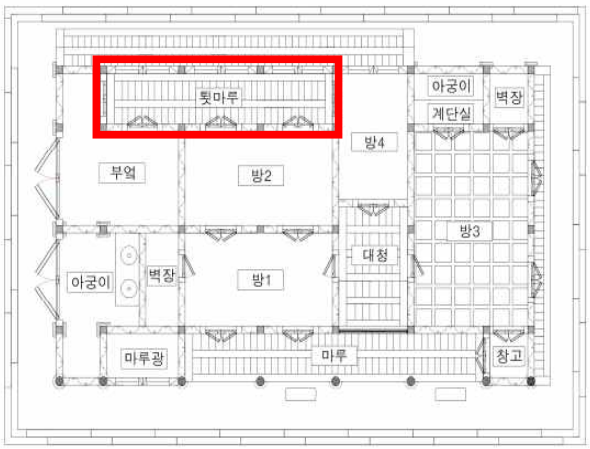
2. 안채 안방 벽장(붙박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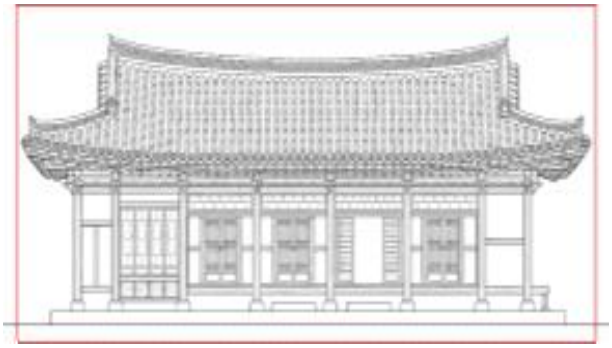
3.-4. 안채 건넛방 벽장(붙박이 가구) 및 미서기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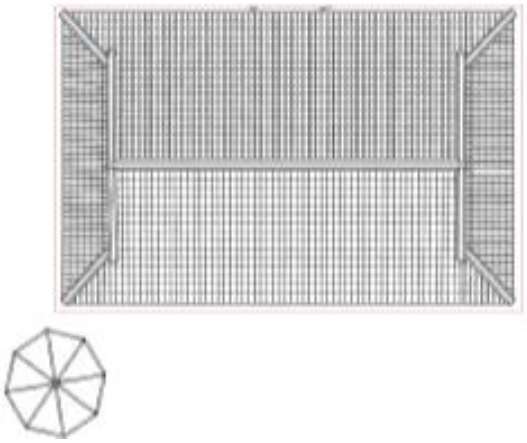
5. 안채 배면 툇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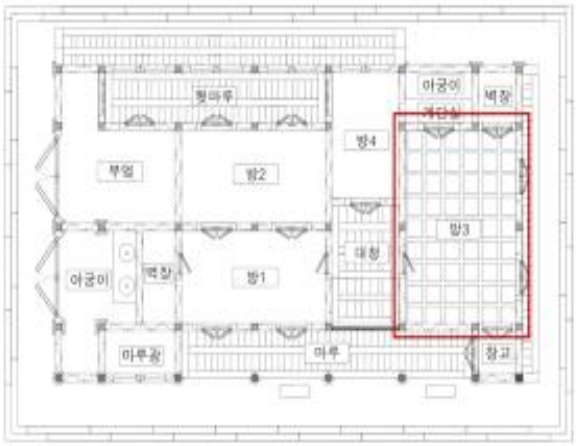
6. 안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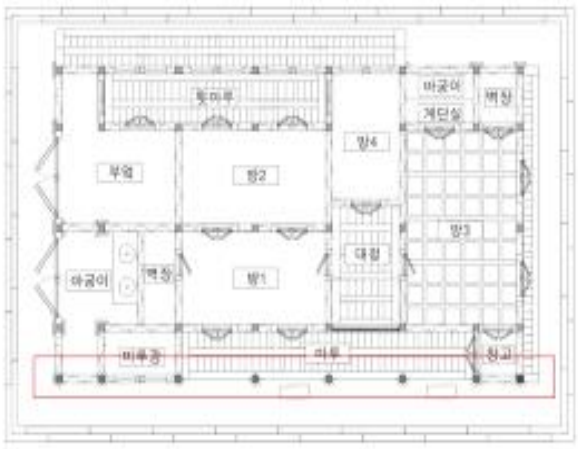
7. 안채 지붕 옹기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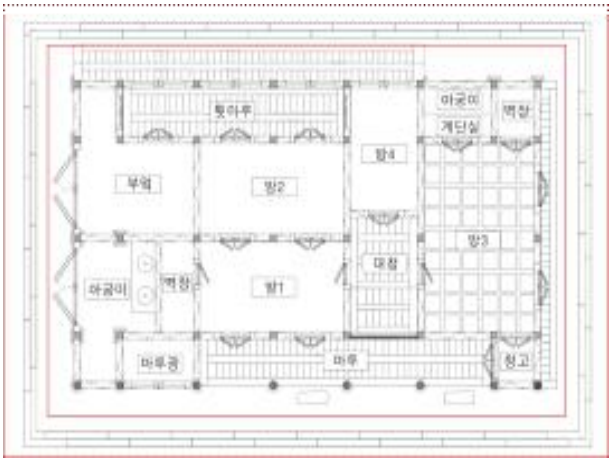


8. 안채 창호장식



9. 안채 기단석 및 초석





10. 사랑채 근대식 목욕탕(욕조와 세면대)

<붙임 3> 등록조사보고서 3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

2. 용　　도 : (현) 근린시설　　(원) 주거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가리 OOO 등 3필지

4. 소 유 자 : OOO

5. 건축물 및 시설물 개요

○ 수량 및 규모 : 건물 3동 시설물 1동(연면적 219.12㎡)
- 안　채: 정면 7칸 측면 4칸/ 팔작지붕 겹처마/ 연면적 125.87㎡
- 작은채: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지붕 홑처마/ 연면적 43.36㎡
- 문간채: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홑처마/ 연면적 45.89㎡
- 우　물: 연면적 4㎡

○ 층수(높이) : 지상 1층

○ 구　　조 : 일반목구조

○ 건립연대 : 1939년

6. 조사자 의견

○ 조 사 일: 2026년 3월 3일(화)

○ 조 사 자: 문화유산위원

○ 조사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적정성 검토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 대상 검토

○ 종합의견
-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은 조선 후기 이후 이 지역 부농 주택의 특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2중 서까래의 독특한 지붕 구조, 벽돌로 구성된 합각부 및 다양한 장식 요소, 안방과 건넌방, 다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과 창호의 수공예적인 구법과 장식, 아래채 욕실, 우물의 지붕 구조물, 벽돌 담장의 장독대, 안채 앞 정원 등에서 전통 한옥과는 구별되는 근대한옥으로서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개요 및 연혁
-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은 임실역에서 임실읍사무소를 지나 임실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임실읍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봉황로의 북쪽에 인접하여 자리 잡은 한옥

으로 가까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천도교 임실교당'이 있으며 주변으로 한옥이 일부 현존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전통적인 마을 경관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역임.

- 이 한옥은 임실지역의 부농이었던 박용만(1879~1941)의 둘째 아들인 박경수(1912~2008)가 분가하면서 지은 집으로 알려져 있고 안채와 문간채의 상량문을 통해 1939년(乙卯年)에 건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안채와 작은채, 문간채의 3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황로에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남향하여 문간채가 있고 안마당을 중심으로 맞은 편에 남향한 안채와 안마당의 동쪽에 작은채가 서향하여 자리 잡음.
- 3동의 주요 건축물 이외에도 안채의 앞쪽으로 연못과 돌다리 등으로 구성한 정원이 형성되어 있고 서쪽으로 우물이 있는데 특징적인 구조와 양식을 갖는 지붕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안채 뒤쪽으로 붉은 벽돌로 쌓은 굴뚝 주변으로 벽돌 담장을 둘러 형성한 장독대가 있고 별동의 소규모 창고가 위치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안채는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전후좌우툇집으로 좌측으로부터 부엌 2칸, 안방 2칸, 대청 1칸, 건넌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음.
- 2칸의 안방 뒤쪽으로 미서기문으로 연결되는 2칸 규모의 방을 두었고, 다락으로 연결되는 문을 두어 부엌과 방 상부를 모두 넓은 다락으로 구성함.
- 대청의 뒤쪽으로도 방을 연결하였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대청에 비해 건넌방은 통칸으로 만들어 4칸 규모의 넓은 공간을 구성하고 앞쪽으로 반칸 규모의 창고와 뒤쪽으로 벽장을 두었으며 건넌방 위쪽에도 다락을 구성하였음.
- 남부 지방에서 일반적인 '一'자형 평면의 한옥으로 전후좌우툇집의 구성과 겹집의 공간 구성, 부엌, 안방, 건넌방의 다락과 같은 넓은 수장 공간의 입체적인 공간 구성 등은 조선 후기 이후 이 지역 부농 주택의 특성을 계승하고 있음.
- 2고주 7량의 가구구조로 2단으로 쌓은 장대석 기단 위에 잘 다듬은 초석과 원기둥으로 정면을 구성하고 무익공에 소로 수장하였으며 대들보 위에 동자주와 종보 위에 항아리 모양 판대공을 두어 도리를 지지하였고 팔각 도리를 사용함.
- 도리 위로 서까래를 두었고 그 위쪽으로 공간을 두고 서까래를 한 번 더 설치한 후 지붕을 구성하는 2중 서까래를 설치하는 독특한 지붕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겹처마 팔작지붕에 오지기와를 올려 마감하였고 합각부는 벽돌로 마감하고 아치형 창호를 두었으며 꽃 모양 철제 장식을 두어 독특한 의장적 특성이 나타남.
- 또한, 유리로 마감된 다락 공간의 광창, 대청과 툇마루 사이의 유리 미서기 문 및 상부 장식, 안방과 건넌방에서 다락으로 연결되는 문, 건넌방의 문과 창 등은 부분적으로 전통 건축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수공예적인 장인의 섬세함을 드러내고 있음.
- 아래채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의 규모로 왼쪽은 욕실이고 그 옆으로 부엌, 방,

마루로 구성된 건물로 외벌대 장대석 기단 위에 사각 초석과 사각 기둥으로 구성하고 홑처마 팔작지붕을 올림.
- 욕실은 인조석 물갈기로 마감되어 있고, 물을 데우는 시설 등 기능적 구성, 유리미서기창, 타일 마감 등이 잘 남아있음.
- 문간채는 솟을대문의 정면 5칸, 측면 1.5칸 규모 건물로 방, 광, 대문, 광, 화장실로 구성됨. 말을 타고 출입하기 위해 일반적인 솟을대문보다 높게 구성한 것으로 전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안채 뒤쪽으로 창고가 증축되었고 일부 문과 창호에서 변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으나 변형의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 등록문화유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기준을 초과했을 수 있어 변형의 유무가 가치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어려움.
- 현재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아래채의 경우 안채보다 변형과 노후화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됨.
- 안채의 경우 한옥의 구조체와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의장 요소, 다락으로 연결되는 문, 건넌방의 문과 창호 등에서 수공예적인 구법과 장식이 잘 남아있음.

4)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임실군과 소유주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임실읍의 개발 수요가 높지 않으나 주변으로 부분적인 상업 시설과 관광 시설이 있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천도교 임실교당이 있어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객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활용 가능성 향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유산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주와 임실군은 빈집 활용을 위한 민간단체 설립 또는 직영을 통해 당해 문화유산을 숙박 체험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임실군의 치즈 관련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 공간 활용 등을 계획하고 있음.
- 문화유산 활용계획이 보존관리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유지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 빈집 활용을 위한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직영을 통한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유산 유지관리 및 활용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음.
- 다만, 소유주와 기초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고 있어 유지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가. 동일 유형 기 등록된 문화유산

- 기 등록된 문화유산 중 주거 용도의 한옥은 약 20여건 정도인 것으로 판단됨.
- 기 등록 문화유산 중 상당수는 이승만, 박종화, 전형필, 최순우 등 근대기 중요한 정치가, 예술가, 문화예술계 인사 등 우리 근대사에서 기억할 만한 중요 인물의 생가이거나 주요 활동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음.
- 또 다른 기 등록 문화유산은 '근대한옥'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전통 한옥과 구별되는 다양한 근대적 특징이 나타나는 한옥으로 전통한옥이 20세기 전반기 동안 사회, 문화적 변화와 건축 구조, 재료의 변화를 수용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오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음.

나. 기 등록문화유산의 가치 비교 · 검토

-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은 '근대한옥'으로서 가치를 갖는 건축물로 전후좌우툇집의 구성과 겹집의 공간 구성, 부엌, 넓은 수장 공간의 입체적인 공간 구성 등에서 조선 후기 이후 이 지역 부농 주택의 특성을 계승하고 있고, 2중 서까래의 지붕 구조, 벽돌로 구성된 합각부 및 다양한 장식 요소, 각종 문과 창호의 수공예적인 구법과 장식, 아래채의 욕실 등에서 근대한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어 기 등록문화유산과 비교하여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 의견

-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은 전후좌우툇집의 구성과 겹집의 공간 구성, 부엌, 넓은 수장 공간의 입체적인 공간 구성 등에서 조선 후기 이후 이 지역 부농 주택의 특성을 계승하고 있음.
- 2중 서까래의 지붕 구조, 벽돌 구성의 합각부 및 장식 요소, 각종 문과 창호의 수공예적인 구법과 장식, 아래채의 욕실, 우물의 지붕 구조물, 벽돌 담장의 장독대, 안채 앞 정원 등 전통 한옥과는 구별되는 근대한옥으로서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범위, 등록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

- 등록범위는 근대한옥으로서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안채와 솟을대문으로 주택 일곽의 규모와 경계를 보여주는 문간채를 포함하도록 함.
- 기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당 문화유산이 우리 근대사에서 기억할 만한 중요 인물의 생가이거나 주요 활동과 관련된 공간의 경우 문화유산 명칭에 해당 인물의 이름을 표기(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함.
- 반면 근대한옥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는 경우 소재지와 함께 근대한옥임을 표기(서울 계동 근대한옥) 함.
- 이에 따라 등록시 문화유산 명칭은 '임실 성가리 근대한옥'이 적합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 사 자 : OOO (서 명)

<붙임 1> 현황사진첩(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자료)

안채, 아래채, 문간채 전경 및 안채 측면

우물의 지붕 구조물, 장독대, 정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

2. 용　　도 : (현) 근린시설　　(원) 주거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가리 OOO 등 3필지

4. 소 유 자 : OOO

5. 건축물 및 시설물 개요

○ 수량 및 규모 : 건물 3동 시설물 1동(연면적 219.12㎡)
- 안　채: 정면 7칸 측면 4칸/ 팔작지붕 겹처마/ 연면적 125.87㎡
- 작은채: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지붕 홑처마/ 연면적 43.36㎡
- 문간채: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홑처마/ 연면적 45.89㎡
- 우　물: 연면적 4㎡

○ 층수(높이) : 지상 1층
○ 구　　조 : 일반목구조
○ 건립연대 : 1939년

6. 조사자 의견

○ 조 사 일: 2026년 3월 3일(화)
○ 조 사 자: 전북대학교/한옥
○ 조사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적정성 검토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 대상 검토
○ 종합의견
- 본 가옥은 1939년 건립된 2고주 7량가의 견실한 전통 구조에 서양식 창호와 근대식 위생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근대 한옥의 변천사를 완벽하게 실증하는 학술적가치를 지닌다.
- 특히 음악가 박평수와 '르네쌍스' 설립자 박용찬 등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 거장들의 생애가 투영된 인적 가치가 탁월하며, 내부 민속자료 또한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 아울러 천도교 임실교당 등 인근 문화유산 및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높은 활용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스토리텔링과 건축적 공간미가 결합된 이 고택은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1) 개요 및 연혁

- 임실 박경수 고택은 전북 임실읍 성가리 OOO 일원에 위치하고 안채와 작은채, 문

간채 등 총 3채로 구성된 근대 한옥이다.

- 안채와 문간채의 상량문을 통해 1939년에 건립된 시기가 확인되었으며 당시 임실의 만석꾼이었던 박용만이 차남 박경수의 분가를 위해 조성하였다.
- 건립자 박경수는 일본 와세다대학 출신의 엘리트로 귀국 후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이 가문은 음악가 박평수, '음악감상실 르네쌍스' 설립자 박용찬 등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의 거장들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안채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겹집 구조로, 2고주 7량가의 견실한 가구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항아리 모양의 판대공과 팔각도리 등 정교한 세부 기법을 보여주는 대규모 가옥이다.
- 전통적인 유교 관념에서 벗어나 부엌과 아궁이를 분리하여 위생적이고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다락을 통한 수납과 동선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 안채의 기단석, 초석 등은 가공기술과 큰 규격의 귀틀석은 수급 능력과 재료의 가치를 담고 있고 창호 장식 및 그림 등 장식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 전통 한옥 구조에 서양식 유리 미서기창, 붉은 벽돌 합각벽, 아치형 창호뿐만 아니라 인조석 물갈기 마감의 근대식 목욕탕과 일식 정원이 결합된 독특한 근대 한옥의 발전 양상을 보여준다.

3) 원형보존 · 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립 당시의 주요 구조체와 유리 창호, 벽체, 가구 등이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목욕탕의 세면대와 욕조 등 위생 시설이 변형 없이 보존되어 가치가 높다.
- 2010년경 작은채의 서까래와 대들보 일부 및 기와를 교체하였고, 작은채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기능 변화에 따른 부분적 변형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양호하다.
-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작은채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후 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소유자가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용요산을 뒤로하고 임실천이 굽이쳐 흐르는 풍수적 명당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 전통 한옥들이 밀집하여 근대기 건축 경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 인근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천도교 임실교당'이 있으며, 뒤편으로는 지정환 신부가 조성한 치즈숙성동굴과 임실치즈공장이 위치하여 근대 문화 벨트 형성이 가능하다.
- 임실읍 성가리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보수 및 정비 사업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지자체의 보존 의지가 강해 관리 여건이 우수하다.

5) 문화유산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고택의 원형과 정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가리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도모한다.

나. 유지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 넓은 마당과 잘 가꿔진 정원을 활용한 숙박체험(한옥스테이), 임실치즈와 연계한 다과 체험 공간 조성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다.

다. 기타사항

- 박용만-박경수-박재홍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이야기와 박용찬의 '르네쌍스' 스토리 등 풍부한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 잠재력이 있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가. 동일 유형 기 등록된 문화유산

- 박경수 고택과 유사한 전통적 평면 구조에 근대적 공간 구성이 결합한 과도기적 양식을 보여주는 보성 이용욱 고택 등 당시 부농 계층의 생활상이 투영된 근대기 한옥들이 주된 비교 대상이다.

나. 기 등록문화유산의 가치 비교 · 검토

- 근대한옥은 전통적인 유교적 공간 구획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박경수 고택은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흔치 않은 대형 규모(2고주 7량가)로 구조적 희소성뿐만 아니라, 서양식 우물각, 아치형 유리창, 근대식 목욕탕, 정원 등을 도입하는 등 근대적 감각과 실용성이 돋보인다.

7) 등록가치 의견

- 본 고택은 건립 시기와 배경이 명확하며, 전통 한옥의 가구 수법에 근대적 생활 편의 시설과 서구적 장식이 가미된 '한국 근대 주거 문화의 변천'을 보여준다. 또한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8) 기 타(등록범위, 등록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

- 의견없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 사 자 : OOO (서 명)

<붙임 1> 현황사진첩(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자료)

안채 전경

대문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　　(구) –

2. 용　　도 : (현)주거시설　　(원)주거시설

3. 소 재 지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OOO 일원

4. 소 유 자 : OOO

5. 시설물 개요

○ 수량 및 규모 : 건물 3동 시설물 1동(연면적 219.12㎡)
- 안　채: 정면 7칸 측면 4칸/ 팔작지붕 겹처마/ 연면적 125.87㎡
- 작은채: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지붕 홑처마/ 연면적 43.36㎡
- 문간채: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홑처마/ 연면적 45.89㎡
- 우　물: 연면적 4㎡

○ 층수(높이) : 1층

○ 구　　조 : 목구조

○ 건립연대 : 1939년

6. 조사자 의견

○ 조 사 일: 2026년 3월 3일(화)

○ 조 사 자: 문화유산전문위원/ 건축역사

○ 조사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적정성 검토

○ 종합의견: 현존하는 상량 기록을 통해 건축연도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소유자 증언 등을 통해 건립배경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고택 내에 남아 있는 여러 흔적들 속에서 근대기라는 시대성과 함께 소위, 근대한옥으로서 갖는 여러 건축적 가치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1) 개요 및 연혁

- 등록신청 대상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에 위치한 살림집으로 비교적 넓은 부지 내에 안채, 아래채, 대문채, 우물 등 여러 동의 건물들이 일곽을 구성하고 있음.
- 현 소유주의 조부인 석송(石松) 박경수(朴庚洙,1912~2008)가 본가에서 분가해 가는 과정에서 1939년에 신축된 것으로 전하며, 실제로 안채와 대문채 등의 상량 기록을 통해서도 건립년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박경수의 부친 박용만(朴容萬,1879~1941)은 함양박씨의 임실 입향조인 박득지(朴得止)의 14세손으로 예전에 임실을 대표하는 지역 유지 중의 한 사람으로 전하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임실군지에는 1926년 지주명부에 당시 임실군에서 100정보(약30,0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조선인 지주 3명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음. 또한 오늘날 오수면을 비롯한 구례군, 진안군 등 호남지역 일대에는 박용만과 관련된 다수의 시혜비가 소재하고 있으며, 당시 기부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사업 등에 대한 신문 기사 내용도 확인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박경수 고택은 뒤쪽으로는 용요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임실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취하고 있으나, 도심화로 인해 그 주변으로 많은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과거의 역사인문경관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 상태임.
- 고택 경내에는 안채를 비롯해 작은채, 문간채, 우물 등의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는데, 솟을삼문 형식의 문간채를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남향을 한 안채와 서향을 한 작은채가 가운데 정원을 마주하며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정원 한쪽 편에는 일종의 비가림막을 설치한 우물이 자리하고 있음.
- 전체적인 배치 형태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의 유교적 질서나 지역의 보편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근대기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음.
- 안채는 정면7칸×측면4칸 규모에 2고주7량의 겹처마 팔작집으로서 집 짓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식 목구조의 기법 등을 충실히 따르고는 있음. 이와 달리, 배면에 복도의 용도(기능)로 설치한 툇마루 등 일부 살림 공간의 구성방식에 있어 근대기의 시대상이 투영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칸(間)의 분리를 통해 부엌과 찬방을 구분한 평면 구성은 근대한옥에서 보편적으로 채용하였던 공간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어 보임. 이와 함께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실내 붙박이 가구(장롱 등), 창호(갑창 등) 및 장지문 등을 서화(書畵) 등 일종의 미술 작품으로 장식한 수법 등은 기 등록된 유사 사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장식 요소라 할 수 있음. 이 밖에 지붕 가구 천정 속에 가려져 가시 되지 않아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용마루 양쪽 단부에 일부 덧서까래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용마루의 곡을 의도적으로 높게 처리하기 위한 독창적인 수법으로 추정됨. 또한 팔작지붕의 양쪽 박공 면을 붉은 벽돌로 마감하고 아치를 튼 개구부를 두고 유리 창호를 설치한 것이 특징적인데 아마도 안채 상부에 다락을 설치함에 따라 채광과 통풍(환기)을 위한 용도로 보이나, 정확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작은채는 정면4칸×측면2칸 규모의 반오량가의 홑처마 팔작집으로 구성하였으며, 손님 접대를 위한 응접실의 기능으로 건립되었다고 함. 전언에 따르면, 최초

건립 당시에는 '목욕탕-부엌-온돌방-마루' 공간으로 실을 구성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개, 보수 되어 적지 않은 변형이 발생하였음. 특히 부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목욕탕 역시 물을 데웠던 철제 솥 등 일부 시설만이 남아 있어 소위, 응접실 공간으로서의 흔적을 살펴볼 수 없음. 또한 지난 2010년경 지붕 누수로 인해 일부 대들보 등 구조 부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재로 교체된 상태임.

- 문간채는 정면5칸×측면3칸 규모의 팔작지붕 솟을삼문 형식으로 세웠으며 가운데 대문을 중심으로 좌측 편에는 화장실과 창고, 우측 편에는 창고와 방을 들였음.
- 우물은 정원 한쪽 편에 위치하며 정원 내에는 조경수와 함께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데 소유자 증언에 따르면, 우물물을 펌프로 끌어 올려 정원의 연못에 물을 채웠다고 함. 우물 상부에는 일종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4개의 방주를 세우고 그 위에 8각형의 모임지붕을 만들어 동판으로 마감하였으며, 고택을 지은 대목 장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함. 정원의 조성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이밖에 안채 뒤편으로는 붉은 벽돌 담장으로 둘러싼 장독대가 있는데 아치로 장식한 출입문과 그 양쪽에 붉은 벽돌로 세운 굴뚝이 매우 이색적으로 보임.

3) 원형보존 · 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과거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최초 건립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원형보존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
- 소유자의 증언 등에 따르면, 안채의 경우 배면에 욕실을 달아낸 것 외에는 구조체의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작은채의 경우에는 입면 일부와 실내 공간(부엌 등)에 크고 작은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오랫동안 빈 집으로 방치되어 왔던 관계로 전반적인 보존 및 관리상태는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니며, 솟을대문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바라볼 때 일부 기울어짐 현상이 있어 보이기도 함.

4)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소유주가 실 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한 관할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도 있어 난개발 등으로 인한 훼손, 멸실될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임.

5) 문화유산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 야행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특히 관할지자체에서 지역 내 빈집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하루살이, 한

달살이 등 한옥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유지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 제시한 활용계획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유산과의 가치 비교·검토

가. 동일 유형 기 등록된 문화유산

- 시대적 생활상이 잘 들어나 있는 근대기 부농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 되고 있는 사례는 전국에 걸쳐 다수가 있음. 이들 유산의 경우 대부분 시대성과 함께 지역적 보편성 등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주거 공간이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지역별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나. 기 등록문화유산의 가치 비교 · 검토

- 건축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동 가옥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 층위의 흔적들이 기 등록문화유산에 비해 보다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7) 등록가치 의견

- 현존하는 상량 기록을 통해 건축연도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소유자 증언 등을 통해 건립배경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고택 내에 남아 있는 여러 흔적들 속에서 근대기라는 시대성과 함께 소위, 근대한옥으로서 갖는 여러 건축적 가치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왔고, 또한 과거 생활 속에서 내, 외부 공간의 변형이 발생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다소 훼손된 부분(영역)도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시에는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여러 차례의 개 · 보수로 인해 본래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변형이 발생된 작은채와 건립내력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물보호각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범위, 등록시 문화유산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

- 등록 시, 등록명칭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임실 박경수 가옥’

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등록 시, 등록범위는 등록신청 대상 중 작은채와 우물보호각을 제외하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 사 자 : OOO (서 명)

<붙임 4>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3식

■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			건립연도	1939년
소 유 자	000	관 리 자	000	구 조	일반목구조
현 용 도	생활한옥	원 용 도	주거	규모·수량[1]	건축물 3동, 시설물 1동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은 조선 후기 이후 이 지역 부농 주택의 특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2중 서까래의 독특한 지붕 구조, 벽돌로 구성된 합각부 및 다양한 장식 요소, 안방과 건넌방, 다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과 창호의 수공예적인 구법과 장식, 아래채 욕실, 우물의 지붕 구조물, 벽돌 담장의 장독대, 안채 앞 정원 등에서 전통 한옥과는 구별되는 근대한옥으로서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공간·입면					
	기술·재료					
	창호·장식	벽돌 구성의 합각부 및 장식 요소 안방 및 건넌방, 다락에서 문과 창호의 수공예적인 구법과 장식		○		
	설비·가구					
	환경·기타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안채 지붕 합각부	안채 지붕 합각부(2개소)를 구성하는 벽돌벽, 창호, 철제 장식	안채 팔작지붕의 합각부를 구성하는 벽돌벽과 아치 창호, 꽃 모양의 철제 장식은 타 한옥과 구별되는 특징임.
	안채 안방 벽장 및 다락문	안채 안방 좌측벽 벽장의 문 및 서랍과 다락문	안채 안방 벽장의 문 및 서랍과 다락문은 제작 당시 장인의 수공예적인 기법과 재료, 장식, 철물 등이 잘 남아있어 이 한옥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 요소임.
	안채 건넌방 벽장 문	안채 건넌방 배면 벽장 문	안채 건넌방 벽장 문은 제작 당시 장인의 수공예적인 기법과 재료, 장식, 철물 등이 잘 남아있어 이 한옥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 요소임.

종합의견[9]	근대한옥으로서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의 가치를 구성하는 지붕 구조, 공간 구성 등 문화유산 이외 관련 법과 연계하여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한 부분 및 요소를 제외하고 안채 팔작지붕 합각부 구성 및 재료, 장식 요소, 안채 안방 및 건넌방에서 연결된 벽장 문 및 서랍과 다락문의 구조, 재료, 구법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이 근대한옥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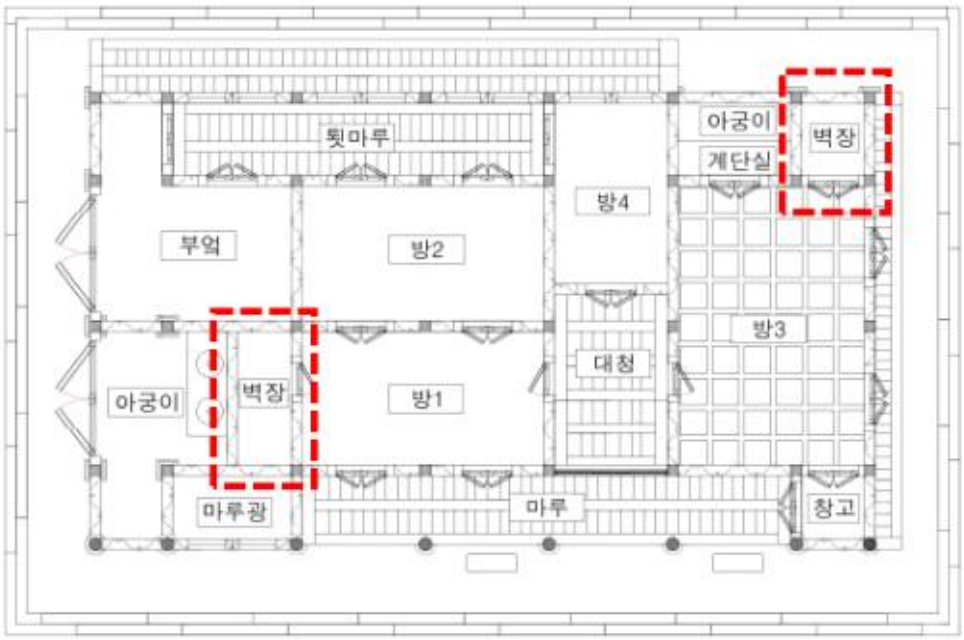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6년 3월 3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11)]

위치도·도면 설명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12)]

안채 지붕 합각부	안채 안방 벽장 및 다락 문
건넌방 벽장 문	

210mm×297mm[백상지(80g/㎡)]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			건립연도	1939년
소 유 자	000	관 리 자	000	구 조	일반목구조
현 용 도	생활한옥	원 용 도	주거	규모·수량[1]	건축물 3동, 시설물 1동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대상 건물의 안채는 건립 당시의 원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식 수장재와 자재 등 시대의 특성이 반영되어 근대 부농층의 가옥과 비교했을 때 근대한옥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공간·입면	안채입면	√			
	기술·재료	옹기기와, 초석, 기단석	√			√
	창호·장식	창호와 문의 문양 및 그림, 합각부 아치형 유리창	√	√		
	설비·가구	근대식 목욕탕				√
	환경·기타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안채 정면	안채 정면 전체	안채 정면은 유리창, 옹기 기와 등 본 건축물의 근대 한옥적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입면이며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있음
	지붕 옹기기와	안채 지붕 전체 1식	기와의 기능성과 장식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고 건립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아치형 창호	안채 합각부 창호 2개소	다락 공간에 빛과 외관의 장식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며 건립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창호장식	안채 방 3의 창호 패턴 및 그림	창호의 패턴 및 그림 등 기능과 예술적 가치가 있음
	기단석, 초석	안채 기단부	귀틀석 · 초석의 원석 크기, 가공 기술적 가치가 있음
	근대식 목욕탕	작은채 욕조, 세면대	욕조 내 솥을 걸고 물 데움 등 원형의 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어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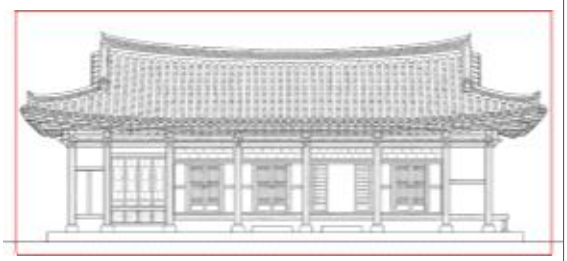
종합의견[9]	본 가옥은 1939년 건립 당시의 상량문이 온전히 보존되어 연혁이 명확하며, 전통적인 2고주 7량가의 견실한 가구 구조와 기단석, 초석이 잘 다듬어진 대규모 근대 부농 가옥이다. 특히 전통 한옥의 골격에 서양식 아치형 유리창과 붉은 벽돌 마감, 그리고 일식 가옥의 영향을 받은 근대식 목욕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절충형 양식의 정수를 보여준다. 또한 창호 장식 등 정교한 소목 기법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근대 한옥 건축의 예술성과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사의 거장들과 연계된 인적 가치가 탁월하다.

	또한 입지적으로 천도교 임실교당과 지정환 신부의 치즈숙성동굴 등 근대 유산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 문화 자산 간의 강력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근대 주거사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지표로서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매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6년 3월 3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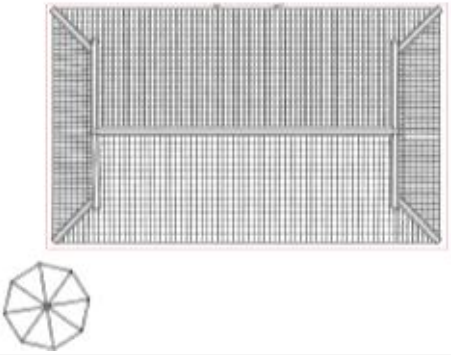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11]	안채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12]	안채 정면
	
	안채 입면 장식(정면)
	안채 입면 장식(정면)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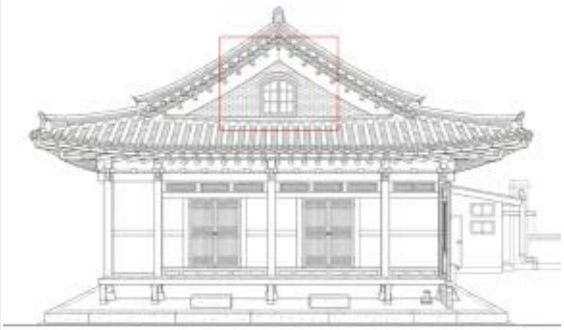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12)]

안채 지붕 옹기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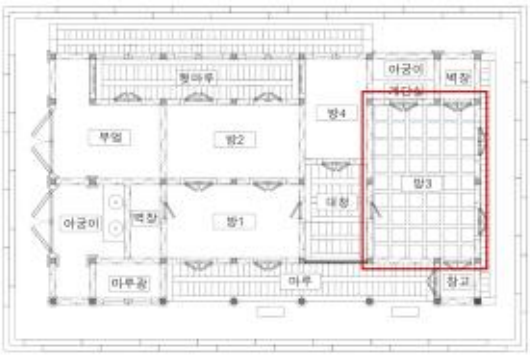
안채 지붕 옹기기와

안채 합각부 아치형 유리창



안채 합각부 아치형 유리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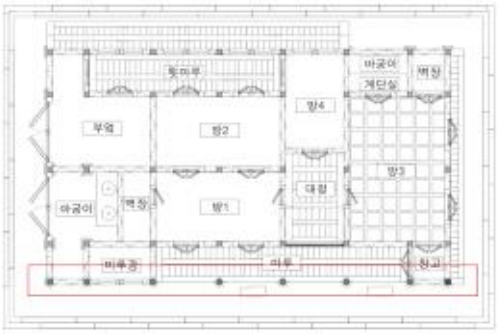
방3 창호 및 문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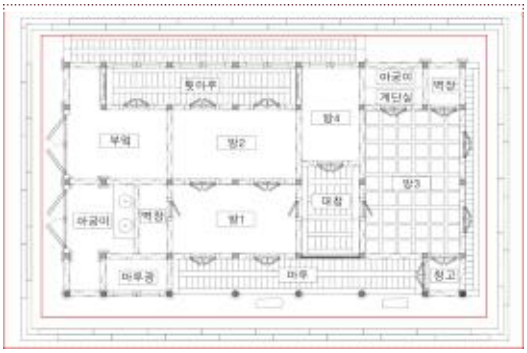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12)]

안채 정면 초석(8개)



안채 기단석 전체 1식



근대식 목욕탕(작은채 욕조와 세면대)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보고서

1. 일반정보

문화유산명	임실 석송 박경수 고택			건립연도	1939년
소 유 자	000	관 리 자	000	구 조	일반목구조
현 용 도	생활한옥	원 용 도	주거	규모·수량[1]	건축물 3동, 시설물 1동

2. 필수보존요소 지정 조사

대 상 문화유산 가 치[2]	건립연대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고, 또한 고택 내 여러 흔적들을 통해 시대성과 함께 소위, 근대한옥이 갖는 여러 건축적 가치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음	문화유산 등록 가치(√)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	√

필수 보존요소 검토	분 류[3]	필수보존요소 검토 대상[4]	필수보존요소 지정 기준[5]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형태·구조	배면 툇마루			√	
	공간·입면					
	기술·재료					
	창호·장식	지붕 합각부 유리창호, 안방 및 건너방 서화 장식 창호			√	√
	설비·가구	안방 붙박이 가구			√	
	환경·기타					

3. 필수보존요소 지정 의견

필수 보존요소 지정 대상	지정 명칭[6](안)	현황[7](수량, 위치 등)	지정 사유[8]
	배면 툇마루	1개소 안채 배면	생활방식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물리적 흔적으로서 보존가치 있음
	지붕 합각부 유리창호	2개소 지붕 양쪽 박공면	채광, 통풍의 목적으로 설치한 유리창호로 시대성이 반영된 건축적 요소로 보존가치 있음
	서화 장식 창호	안방 및 건너방 설치 창호	일반 전통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호(두겁창,미서기창)를 서화로 장식한 것으로서 예술성이 돋보임
	안방 붙박이 가구	1개소	전통 고택의 반침을 이용한 수납공간으로 근대기 실내장식사적 측면에서 보존가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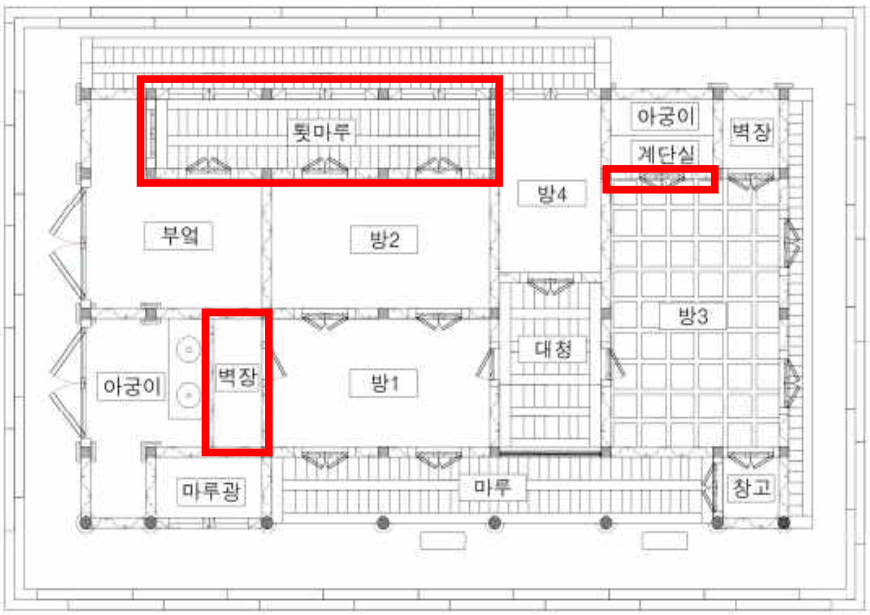
종합의견[9]	근대기 건립된 한옥으로서 필수 보존 요소 지정 대상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으며, 특히 과거의 전통적 생활공간이 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조 사 자	소 속		조사일	2026년 3월 3일 2026년 4월 13일	소 유 자 사전 동의[10]	동의함 □
	성 명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4. 필수보존요소 지정 자료

필수 보존요소 위치·도면[11]	배면 툇마루, 미서기 창호, 안방 붙박이 가구 위치



필수 보존요소 대상·사진[12]	배면 툇마루	서화 장식한 미서기창호

	지붕 합각부 유리창호(내부)	안방 붙박이 가구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09

9.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및 사적 「구 서울역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도시관리 공단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 공동기획전시> (1) 허가 받는 자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 허가 내용 ○ 대상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 허가내용 : 10옥사(1층) 전시물 설치 ※서대문형무소-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시 ('26.08.14.~ '28.12.31.) - 설치 위치: 복도 및 감방 15곳 - 전시물 유형 · 수량 · 크기(mm) · (복도) 철재 전시패널 8개, 800~2000(W) × 1400~1600(H) · (감방) 목재 전시패널 13개, 1400(W) × 1730~2400(H) (3) 허가조건 ○ 전기사용 관련은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받아 추진 (4) 허가기간 : 2026.06.10. ~ 2028.12.31.	허가	'26.06.10.
사적 「구 서울역사」	서울 중구	한국철도 공사	<구 서울역사 내 「2026 철도문화전」 개최> (1) 허가 받는 자 : 한국철도공사 (2) 허가내용 ○ 위 치 : 서울 중구 통일로 1 ○ 내 용 : 구 서울역사 내 철도문화전 전시행사 개최 - 아카이브 전시, 체험존 운영 등 전시시설물 설치 및 개막식 행사 등 - 행사기간 : 2026.6.10. ~ 2026.8.17. (3) 허가기간 : 2026.6.5. ~ 2026.8.31. (4) 허가조건 ○ 아래사항 보완 후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시행 - 국가유산(내부마감 포함)의 훼손·오염 방지를 위한 보양조치 방안(상세) - 관람동선계획, 전기 등 설비계획, 안전관리 계획 - 전시물의 낙하·전도 방지 및 하중 분산 등을 위한 구조안전 대책 ○ 본 행사 관련, 국가유산청의 시정 및 보완 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본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26.6.5.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 출석위원 12명 / 원안접수 12명

안건번호 근현대 2026-01-10

10. 국가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사적「전주 전동성당」현상변경(파이프오르간 설치)

가. 보고사항

「국가유산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제1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6.05.26.(화) 14:00 / 국가유산청 소회의실

○ 참석 위원 : OOO, OOO, OOO

○ 회의 안건 : 사적「전주 전동성당」현상변경(파이프오르간 설치)

○ 회의 결과 : 조건부 가결

다. 보고내용

○ 추진경과

· **2024년 제5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2024.10.22.) : 조건부가결**
  - 파이프오르간 설치가 문화유산 내부의 특징적 형태 및 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

· **2024년 제1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소위원회 심의(2024.11.19.) : 보류**
  - 전동성당 내부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파이프오르간 규모·사이즈 최소화안 제시, 원형 간섭 최소화 및 공간상 배치 도면, 수평보강 대안 및 도면 제시 등

· **2024년 제2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소위원회 심의(2024.12.17.) : 보류**
  - 성당 규모 대비하여 파이프오르간의 크기가 적정한지 객관적 데이터 제출, 이와 관련한 국내 성당 사례조사 및 비교 가능한 객관적 데이터 제출

· **2026년 제1차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소위원회 심의(2026.02.24.) : 보류**
  - 문화유산에 영향(물리적 훼손, 내부변경) 최소화안 제시 필요

○ 주요내용

내 용	검토의견
(1) 신 청 인 : 전주 전동성당 (OOO) (2) 대상문화유산명 : 사적「전주 전동성당」(‘81.9.25. 지정)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 당해 문화유산 (본당 내부 1층, 성가대석 및 중층 회랑(남측)) ○ 신청내용 : 성당 내부 파이프오르간 설치 - (파이프오르간) 3m(W)×3.225m(D)×4.4m(H), 4.84Ton - (오프셋 구조물) 10.535m(W)×0.72m(D)×1.44m(H), 0.61Ton - (설치 방식) 파이프오르간 구조물 자립, 성가대석 바닥 목구조 보강	* 조건부 가결 - 추가 적재 하중(파이프오르간)에 의한 구조 변위 발생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지속·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 출석위원 12명 / 원안접수 12명